

SDU

디지털문학

2010 / 제4호

| 교수문단

[시] 이재무/오봉옥

[소설] 임정진

[평론] 황송문

| 학생문단

[시] 류제희/안장수/김형출

/금상욱/노정숙/박병식/예외석/정정선/조인숙

(동시) 조무호/조인숙

[소설] 정혜련/예외석

[수필] 유영희/김형출/전종수/윤경희/이순선/이후남/최해자

[동화] 조무호

[사이버문학상] 이언주/안진영 장미숙/안성진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부

【서울디지털대학교 사이버문학상 공모】

주최 : 서울디지털대학교(SDU)

주관 : SDU 문예창작학부

문학 계간 『시작』

문학 월간 『에세이 플러스』

서울디지털대학교는 21세기 한국문학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신인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제5회 서울디지털대학교 사이버문학상>을 공모합니다.

한국문학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참신한 상상력을 기다리며,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응모요령

▶ 접수기간 : 2010년 월 일 ~ 2011년 월 일

▶ 보낼 곳 ① : 서울 마포구 도화동 560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부
사이버문학상 담당자(우편번호 120-040)

보낼 곳 ② : writing@sdu.ac.kr

▶ 입상작 발표 : 2011년 월 일 서울디지털대학교 홈페이지

▶ 유의사항 : 이미 발표된 작품이나 표절로 밝혀진 작품은 입상 결정 후에도 취소됩니다. 원고 첫 장에 주소, 성명(필명일 때는 본명을 필히 기입), 연락처(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써야합니다. 원고는 한글 또는 워드로 작성하여 파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공모부문

시 : 5편 이상

생활기록문(수필, 수기) : 2편 내외

3. 공모대상

문단에 등단하지 않은 전 국민

4. 당선 상금 및 특전

• 당선작 : 각 부문 일백만원,

『시작』(시), 『에세이 플러스』(생활기록문)에 작품 게재
등단시인 및 등단 수필가로 인정

• 가작 : 각 부문 일백만원,

『시작』(시), 『에세이 플러스』(생활기록문)에 작품 게재
등단시인 및 등단 수필가 인정 여부 작품 심사 후 결정

SDU

·

문예창작학부

·

제4호

·

2010



|| 차례 ||

|| 교수문단

| 시

- 이재무 된장찌개 • 11
순가락의 운명 • 12
냄새를 맡고 오는 비 • 13
오봉옥 거미와 이슬 • 14
공놀이 • 16
나를 만지다 • 18

| 소설

- 임정진 줄 위의 꽃, 바우덕이 • 19

| 평론

- 황송문 중국 조선족 시와 한국의 시 • 33

|| 학생문단

| 시

- 류제희 오동나무 • 57 / 논현 신도시 • 58
안장수 보문호에서 • 60
김형출 희망을 짓고서 • 62
금상욱 민들레 깃털 • 63 / 단칸방 • 64 / 달팽이 • 65
노정숙 제사 • 66
박병식 천면(天眠) • 68 / 이제 그만 살고 싶어 • 70 /
고로쇠의 피 • 71
예외석 시는 막걸리에서 나온다 • 72 / 낮선 유리컵 • 74 /
내 몸에도 거미줄이 나온다 • 76 / 보이지 다방 • 78
정정선 탈속(脫俗) • 80 / 꽃망을 • 82 / 순천택 밍키 • 83
조인숙 그림자 놀이 • 84

(동시)

- 조무호 발자국 • 85 / 염소 • 86
조인숙 클로버 • 87

| 소설

- 정혜련 명동 주민센터를 찾아가다 • 91
예외석 고래심줄 • 106

| 수필

- 유영희 나비야 나비야 • 129
김형출 금속사랑 • 132
전종수 중국 장가계의 와~와 관광 • 141
윤경희 의의학전문대학원의 쓸림현상에서 본
이공계 위기와 그 타개책 • 153
이순선 시장, 거기엔 그리운 사람이 있다 • 157
이후남 시장에 가면 • 163
최해자 난전의 좌판할머니 • 167

| 동화

조무호 낮잠 자는 나무 • 173

| 사이버문학상

- 이언주 발바닥 • 181
여자만 汝自灣 • 182
빨래경전 • 184
하관 • 185
미로 찾기 • 186
- 안진영 문 • 188
고향식당 정씨 • 190
마리화나를 위하여 • 191
박하사탕 • 192
나팔꽃 • 193
- 심 사 평 • 194
당선소감 • 196
- 장미숙 아버지의 자전거 • 198
- 안성진 밤에는 모든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 • 202
- 심 사 평 • 208
당선소감 • 210

교수문단

이재무 (시)

오봉옥 (시)

임정진 (소설)

황송문 (평론)

教授 文壇

된장찌개 外 2편

이재무

이 구수한 맛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입천장을 살짝 데우고
한 바퀴 입 속 행귀 적신 뒤
몸 안으로 습벅습벅 들어가는
얼얼하고, 칼칼 텁텁하고, 매콤하며
썩썩해하는 구성진 이것은
먼먼 조상 적부터 와서
여태도 우리네 살림을 떠나지 않고 있다
흐린 등불 아래 등글게 모여앉아
논밭에서 캐낸 곡물과 바다에서 난 산물과
산에서 자란 나물 등속이 만나
우려낸 되직한 속정을
손가락에 푹 퍼서 떠먹다 보면
바깥에서 문혀온 냉기
햇살 만난 는개처럼 풀리고
사는 일에 까닭 없이 서느런 마음도
저만큼 세상의 윗목으로 물러나 있다
무구하고 은근하며 우직한 이것은
우리네 피의 설운 가락을 타고 온다

손가락의 운명

밥집에 앉아 밥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상 위에 놓인 손가락 골똥히 들여다본다
손가락 맨 처음 세상에 내놓은 이는 누구일까
출생년도와 출신지를 알 수 없는
이 손가락 든 손 얼마나 될까
한탄과 눈물로 손가락 든 이가 있을 것이다
겸허와 감사로 손가락 든 이도 있을 것이다
이 손가락 애인처럼 반가운 이,
사자처럼 저주로 보인 이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뜨고 퍼 나르며 평생을 살다가
손가락은 어느 날 홀연 밥상을 떠날 것이다
내가 모르는 수많은 입과 손 다녀왔을
손가락 앞에 놓고 손가락 놓지 않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온 날들 떠올리는 동안
소찬들이 나오고 밥과 국이 나온다
천천히 밥 한 그릇 달게 비운다
손가락 앞에서 밥은 비로소 밥이 된다

냄새를 몰고 오는 비

늦여름비에는 냄새가 난다
들쩍지근한 참외 냄새 몰고 오는 비
멸치와 감자 우려낸 국물의
수제비 냄새 몰고 오는 비
옥수수기름 반지르르한
빈대떡 냄새 몰고 오는 비
김 펼 펼 나는 순대국밥 내음 몰고 오는 비
아카시아 밤꽃 내 흠뿌리는 비
청국장 냄새가 골목으로 번지고
갯비린내 물씬 풍기며 젓통 흔들며 그녀는 와서
그리움에 흠뻑 젖은 살 살짝 물었다 빨는다
원 종일 빈집 문간에 앉아 중얼중얼
누구도 알아듣지 못할 혼잣소리 내뱉다
신작로 너머 출연 사라지는 夏쫄의 여자

이재무 : 시인, 1983년<실천문학>통해 작품활동시작

시집<<위대한 심사>>외 다수, 계간 시작 편집주간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창학부 교수

거미와 이슬 外 2편

오봉옥

거미의 적은 이슬이다
끈끈이 점액질로 이루어진 집은
이슬의 발바닥이 닿는 순간
스르륵 녹기 시작한다
녹녹해진 거미줄로는
그 무엇도 붙들 수 없어
허공을 베어 먹어야만 한다

거미는 숙명적으로
곡마단의 곡예사가 된다
가느다란 줄에 매지어 매달리는 이슬을
곡예사가 아니고선
다 떨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슬의 삶은 공처럼 부드럽다
곡예사는 이슬을 발가락 끝으로 통
통 통겨보기도 하고
입으로 빨아들여 농구공처럼 툭
툭 내쫓기도 한다
작은 물방울들을 눈덩이처럼 굴러
크게 만들어놓은 뒤
새총을 쏘듯이 거미줄을 당겼다 놓아
다시금 새하얀 구슬들로 쏟아지게도 한다

이슬을 다 걷은 거미는
괜시리 한번 거미줄을 튕겨본다
오늘도 바람이 불면 그물망 한 가닥
기둥처럼 붙잡고 흔들릴 것이다
그 뿐인가,
팽팽한 줄이 퍼덕이는 순간
회심의 미소를 짓기도 할 것이다

공놀이

한 아이가 학원도 가지 않고
달을 차고 논다.
발끝으로 툭툭 건드리다가
질풍처럼 몰고 가기도 하고
하늘 높이 뺑, 내지르기도 한다.
그 순간 달은 집으로 돌아갈까 하다가
저 혼자 노는 아이가 안쓰러워
다시금 풀밭에 툭툭툭 떨어진다.
아이는 오늘
처음으로 세상의 주인이 되어
달을 차고 논다.
골킥퍼가 되어 짐승처럼 웅크리기도 하고
패널티킥을 실축한 선수가 되어
연신 헛발질 하는 흥내를 내다가도
어느새 다시 골 넣은 선수가 되어
손가락으로 브이 자를 그리며
경중경중 춤추듯 걷는다.

어라, 언제 시간이 이렇게 되었지?
아이가 달을 숨겨놓으려는 속셈으로
공중으로 뺑 차올리자
구름 벗겨진 하늘이 그것을 날름 받아
시치미 똑 떼고 하늘가에 내놓는다.

나를 만지다

어둑발 내리고 또 혼자 남아 내 몸을 가만히 만져보네. 얼마만인가. 내가 내 몸을 만져보는 것도 참 오랜만이네. 그래, 기계처럼 살아왔으니 고장이 날만도 하지. 기름칠 한 번 없이 돌리기만 했으니 당연한 일 아닌가. 이제 와서 닦고 조이고 기름칠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내 몸 곳곳의 나사들은 붉은 눈물을 줄줄 흘릴 뿐이네. 필사의 버티기는 이제 그만, 급기야 나사 하나를 바꿔볼까 궁리 하네. 나사 하나쯤 중국산이나 베트남산이면 어때, 벼락 맞을 생각을 하기도 하네. 어둠 속에서 난 싸늘하게 굳은 나사 하나를 자꾸만 만져보네.

오봉옥 : 시인, 1985년 창비 신작시집으로 등단,

시집 《나 같은 것도 사랑을 한다》외 다수,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창학부 교수

줄 위의 꽃, 바우덕이

임정진

1. 잘 웃는 아이

“어허. 꼭두쇠가 실성했는가. 뒤에 쓸라고 기집애를 데려왔을까?”
등짐꾼 칠성이가 호택이에게 수군거렸다.
“넌들 아나요. 무동으로 쓸려나.”

호택이 역시 꼭두쇠가 데려온 다섯 살짜리 계집애가 못마땅했다. 가
뜩이나 먹을 것도 모자라는 시절이었다. 게다가 남사당패에 계집애란,
스님에게 참빗처럼 당최 소용이 없었다. 등짐꾼이나 빠리는 꼭두쇠 하
는 일에 감히 이러저러한 토를 달 처지는 아니어서 뒤돌아 수군거리
기만 하였다. 웃저고리 벗고 머리를 풀고 참빗으로 서캐를 훑던 곰뱅
이쇠가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지긋이 쳐다보다가 가래끓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친구가 기어코 죽었소?”

꼭두쇠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형제도 먼 친척도 없는 불쌍한
친구였다. 친구가 각혈병으로 죽고 나니 남은 거라고는 이 딸 하나 뿐
이었다. 애 낳자마자 사라져버린 에미를 찾기는 애저녁에 그른 일이었
고, 차마 쓰러져가는 빈 집에 어린애만 혼자 버려두고 올 수가 없었

다. 벌써 초겨울이라 정월 대보름 될 때까지는 놀음 놀 곳도 마땅치 않아 겨우 내내 식량 걱정을 할 판이었다. 답답해서 데려오기는 하였지만 계속 데리고 있을 형편은 아니었다. 남사당패 형편은 몇 년 새 차차 어려워지고 있었다. 다른 지역 남사당패도 마찬가지로여서 소문에는 어느 남사당패는 뼈리 하나가 굶어죽는 바람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했다.

“칠성이, 이 아이를 해원사에 데려다 주게. 비구니들이 어린애를 내치지야 않겠지.”

곰뱅이쇠가 그 말을 듣고는 피식 웃으며 이번엔 저고리에서 서캐를 털어내기 시작했다. 얇은 속저고리 바람의 팔뚝에 오소소 소름이 돋고 있었다.

“비구니들이 껍도 기빠하겠수. 거두지도 못할 아이를 왜 데려왔수. 아무튼 곧 해 떨어질테니 내일 데려다 줘야겠소.”

계집아이가 조금 더 컸으면 부자집 마나님의 몸종으로라도 들여보낼텐데 너무 어렸다. 비구니들도 이런 애를 받아줄지 꼭두쇠도 실은 자신이 없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입술을 꼭 다물고 있던 꼬마가 눈을 치켜뜨며 또 랑또랑하게 말했다.

“나 중 싫어.”

다들 놀라서 꼬마를 바라보았다. 당돌한 꼬마의 다음 말도 궁금해졌다.

“왜? 중되면 부처님이 잘 보살펴 줄텐데.”

호택이가 달래듯 그렇게 말을 붙여보았다.

“중은 머리 자르잖아. 난 도투락 땡기 할거야. 이렇게 긴 땡기. 고운 비단으로 만든 거.”

그 말을 하면서 꼬마는 환하게 웃었다. 어린데도 눈썹이 참 짙었다.

칠성이가 꼬마의 대답에 푸하하 웃었다. 비단을 보지도 못했을 가난한 집에서 컸는데 양반가의 새색시나 드리워보는 비단 도투락 땡기를 꿈꾸다니 참으로 맹랑한 아이였다.

“이 꼬마 보통내기가 아니네. 이름이 뭐냐?”

“바우덕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우리 딸 바우덕이.”

곰뱅이쇠가 손에 쥐었던 저고리를 바닥에 놓고 바우덕이의 허름한 옷자락을 잡아당겨 자기 앞에 세웠다.

“바우덕아. 잘 생각해봐라. 이 냄새 고약한 시커먼 남정네들하고 지내는 거보다 비구니들하고 지내는 게 백번 낫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 위도 절에서는 가끔 과일도 먹고 떡도 먹는단다.”

“머리카락 없으면 도투락 땡기 못 해. 이렇게 길게 할 거야. 이쁘게. 아버지가 꼭 사다준다고 했는데 아파서 장에 못 갔어.”

바우덕이는 손으로 긴 땡기를 쓸어내리는 시늉까지 하면서 환하게 웃었다. 방금 도투락 땡기를 드리우고 자랑하는 듯 했다.

“아버지가 그랬어. 도투락 땡기하면 바우덕이가 세상에서 제일 고운 색시가 될 거라고.”

바우덕이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도 목화처럼 환히 웃었다.

“아이 애비가 약속한 도투락 땡기 사 주면서 데리고 있을 거요?”

결죽한 목소리로 곰뱅이쇠가 다시 꼭두쇠를 나무라듯 물었다. 꼭두쇠도 참으로 난감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바우덕이가 주저앉더니 곰뱅이쇠가 서캐를 털던 저고리를 헤집으면서 서캐를 잡아채냈다. 손이 작아서 그런지 날래게 잘도 잡아냈다. 다들 멍하니 아이 하는 짓만 보고 있었다.

서캐를 잡아내면서 중얼중얼 뭐라고 읊조리는 바우덕이에게 칠성이가 다그쳤다.

“뭐라는 거냐? 안 들린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우덕이가 소리를 키워냈다.

~~페이루 페이루 띠어라 따~~~

덜미 놀음을 시작할 때 부르는 구음이었다. 능청스러운 소리였다. 지난 가을 남사당패 놀음을 구경했던 바우덕이는 그 소리가 제일 귀에 남아서 틈만 나면 흥얼거리곤 했다.

“그 소리는 어디서 배웠니?”

꼭두쇠가 묻자 바우덕이는 까르르 웃으며 대답했다.

“배운 거 아냐.”

바우덕이 아버지는 딸이 장난으로라도 소리하는 걸 싫어했었다. 소리기생할까봐 무섭다고 했다. 소리를 퍽이나 좋아하던 애엄마의 기억 때문이기도 하였다.

“다른 대목도 할 줄 아는 게 있느냐?”

곰뱅이쇠가 느긋해진 목소리로 다른 소리를 해보라고 하자, 바우덕이는 이번엔 제법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노래를 했다.

~ 짙은 산에 꽃을 숨겨 얇은 산에 꽃이 피어
큰꽃 하나 끊어다가 님의방에다 걸어놓고
꽃이 좋냐 님이 좋냐 꽃이 좋제 님이 좋아
님하여 나는 간다 가절라건 가소나만은 정일랑은 두고 가소~

어느새 바우덕이는 일어나 남짓남짓 어깨춤까지 추면서 방긋거리며 노래가락을 불러댔다.

“당분간 데리고 있어보자구.”

꼭두쇠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내치긴 아까운 아이였다.

2. 하늘에 줄을 매고

무상사 주지가 개금불사를 위해 남사당패에게 놀음을 부탁하였다. 창건불사를 위한 공연은 여러 번 해보았지만 개금불사는 처음이었다. 500개의 나한상들을 옷칠한 후, 금니를 입혀서 화려하게 보존하고 싶다는 게 주지 욕심이었다. 부처님들이 너무 초라하게 망가져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다. 개금 불사를 하면 그걸 보러 신도들이 올 것이고, 영험이 있다고 소문도 나면 복전도 늘어갈 것이라는 계산도 있었다. 부처님도 좋고 절도 좋으니 두루두루 좋은 일이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모금하려고 남사당패를 불러온 것이었다. 꼭두쇠로서는 나한상에 금칠하는 게 절에 단청하는 것과 매한가지로 중요하다는 주지의 생각에 찬성하고 반대하고 할 계제가 아니었다. 당분간 요사채에서 머무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맘이 편해졌다. 패거리가 오

십명씩 되던 때에 비하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서른 다섯 명 안팎의 식구들을 재우고 먹이는 일은 늘 버거웠다.

“어련히 알아서들 잘 하시겠지만, 기왕이면 늘 하던 것 말고 새로운 것도 보여주면 좋겠지요.”

그런 주지의 부탁도 있었다.

“오무동을 합시다. 칠무동도 연습하면 하긴 하는데… 머릿수가 그리 안 되니. 바우덕이도 끼면 다섯이 되니까.”

오무동을 하려면 아래서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이가 제일 힘이 드는데, 풍물을 맡은 상무동님이 그리 말하니 꼭두쇠로서는 다행이다 싶기도 했다. 대개 무동태우기는 단무동이나 맞무동을 많이 하고 삼무동을 간혹 하면 큰 박수가 나오곤 했다. 무동을 할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일도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무동을 세울 아이들은 잔심부름을 시킬 수는 있었지만 먹고 입히는 공에 비해 쓸모가 적었다. 사당패가 형편이 좋을 때는 식구가 불어나는 게 자랑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 게다가 남의 머리 위에 올라서서 양쪽에 다른 아이를 붙잡을 정도로 요령있고 담이 큰 무동을 키우기도 쉽지 않았다.

곰뱅이쇠는 그 말을 듣고 말없이 바우덕이를 바라보았다. 바우덕이는 방 한 귀퉁이에 이불도 덮지 못하고 모로 누워 잠들어 있었다. 사내아이들 옷을 물려 입었는데 소맷부리가 그새 많이 짧아졌다. 먹을 것도 부실한데 키가 크는 게 신기할 지경이었다. 그나마 절에 온 후로는 시래기국이라도 실컷 먹으니 다행이었다. 바우덕이의 입성은 허술했지만 머리 모양새는 늘 깔끔했다. 땥기머리를 혼자 빗어내리고 땀은 솥씨가 야무졌다. 길놀이 때 소고를 두드리면서 따라다니는 역할도 곧잘 했고 단무동을 시켜도 겁없이 잘 해낸 바우덕이었다. 그래도 오무동은 단무동과는 제법 달랐다.

“뼈도 약한 기집애를…”

곰뱅이쇠가 더 길게 말하려다 말을 끊었다. 바우덕이의 입장은 늘 아슬아슬했다. 남사당패에 계집애를 들인 후 재수가 없다는 말도 간혹 나오곤 했었는데 이번이 어쩌면 바우덕이의 입지를 단단히 할 수도 있는 기회였다. 바우덕이는 그동안 으뜸산이에게 줄타기를 가르쳐 달라고 여러 번 졸랐다. 그때마다 곰뱅이쇠는 으뜸산이에게 바우덕이를

어름빠리로 삼지 말라고 지시했었다. 바우덕이에게는 위험한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아서였다. 하지만 더 이상 바우덕이를 감싸고 둘 수 없었다.

“벌써 일곱 살이네. 밥값은 해야지.”

옆에서 들던 버나쇠가 야멸차게 말했다.

당장 다음 날부터 삼신각 뒤의 공터에서 오무동 연습이 시작되었다. 상무동님이 우선 바우덕이를 불러냈다. 바우덕이는 이미 단무동에는 능숙하였지만 오무동은 다른 요령이 필요한 기술이었다.

“오늘부터 오무동 연습이다. 정신 바짝 차려라. 사람으로 3층 탑을 쌓는 것이다. 제일 꼭대기엔 득진이가 올라설 것이다. 넌 2층에 올라선 호택이 손을 잡고 매달리면 된다. 발을 가볍게 하고 호택이 손을 놓치면 안 된다.”

“네, 그러지요.”

야무지게 대답하는 바우덕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곰뱅이쇠가 넋지시 물었다.

“안 무섭나?”

“난 세상에서 호랑이만 무서워요. 호랑이가 엄마를 잡아갔어요.”

바우덕이는 어릴 적 아버지가 한 말을 아직도 믿고 있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머니가 저를 두고 다른 곳을 갈 리가 없다고 믿었다. 실은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건 굶는 것이었다. 하지만 다행히 남사당패에 들어온 후론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하루에 한 끼는 먹었다. 더운 밥을 못 먹는 날은 있었지만 마른 누룽지나 녹녹해진 미역귀라도 나눠 먹었다. 곰뱅이쇠는 속이 안 좋다며 무덤덤한 낯으로 제 몫의 먹을 걸 갈라 바우덕이에게 내밀곤 하였다. 바우덕이는 곰뱅이쇠가 잘 웃지 않아 어려웠지만 속이 갓 지은 밥처럼 따끈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 여기는 호랑이가 없으니까 그냥 내 집 섬돌 위에 섰다고 생각해라. 아니다. 문지방 위에 섰다고 생각해라.”

“문지방 위에 서면 재수없는데.”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면 반석 위에 섰다고 생각해라.”

“괜찮아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날 붙잡아 줘요. 밑에 호랑이가 있으니까.”

상무동님이 호랑이란 말이었다. 상무동님은 그 말을 듣고도 못들은 척 그냥 웃었다. 크게 야단칠 일이 없는 아이였다. 눈치 빠르고 답력도 있었다. 여기서 쫓겨나면 기말 곳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는지 뭘 가르쳐도 악착같이 해냈다.

‘어린 것이 얼마나 무서우면 그런 생각까지 해냈을까.’ 곰뱅이쇠는 안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고향 친구들과처럼 일찍 잠가갔으면 이런 딸이 있을 나이였다. 떠도는 형편에, 딸처럼 정붙일 바우덕이가 있으니 그 또한 복이라면 복이다 싶었다. 데러오기는 꼭두쇠가 데러왔으나 돌보는 곰뱅이쇠가 돌보는 꼴이 되었다.

준비하고 있던 호택이가 손에 뿔뿔 침을 뱉었다. 그리고는 손바닥을 흙바닥에 다시 문질렀다. 왕모래가 박혀 손바닥에 슬쩍 피가 비쳤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올라서서 양 손에 무동을 하나씩 잡아야 된다니 쉬울 리 없었다. 호택이는 점점 무동이 하기 싫어졌다. 위로 올라서는 것도 싫었고 밑에서 누굴 태우는 것도 싫었다. 버나 돌리기만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사람 수가 적다보니 한 사람이 두 세 가지 재주를 다 해야만 했다.

곰뱅이쇠가 태평소를 불기 시작하였다. 아무리 연습이라도 음악이 없으면 장단이 맞지 않아 서로 호흡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헛.”

뜯쇠 머리 위로 우선 호택이가 올라섰다.

“헛.”

칠성이의 도움을 받아 득진이가 또 호택이 머리 위로 올라섰다. 머리 위가 묵직하였다. 호택이는 잠시 숨을 멈추었다. 큰 나무가 된 것처럼 세상이 다 내려다 보였다. 아까의 짜증과 두려움이 곧 사라졌다. 호택이는 다시 두 팔을 벌리고 양 손에 한 명씩 무동을 받아들였다. 맨 밑의 뜯쇠가 두 무동의 발을 받치기는 하지만 힘은 호택이가 다 써야 했다. 양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오무동을 한 상태로 빙그르르 도는 순간 오른손으로 잡은 바우덕이와 왼손으로 잡은 해수가 무게가 너무 차이가 나서 기우뚱해진 것이

었다.

“정신 차려!”

맨 아래의 뜯쇠가 무섭게 소리쳤다. 호택이는 다시 무거운 해수 쪽의 손목에 힘을 더 주었다.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을 해야 했다. 바우덕이는 한 손은 호택이 손을 잡고 또 한 손은 팔랑거리면서 태평소 음에 맞추어 춤을 추었다. 정말 대청마루에 아무 걱정없이 서 있는 아이 같았다.

“호택이 오라버니, 나처럼 하늘에 줄을 매고 붙잡아.”

바우덕이가 송곳같은 목소리로 그렇게 재빨리 말했다. 호택이는 그 말에 속으로만 대꾸했다.

‘니네 아버지는 하늘서 줄을 붙잡아주겠지.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안 죽었어, 이 년아. 날 팔아먹고 술 처먹고 잘 살고 있다고. 아마 아버지가 날 보면 돈 번거 없냐고 밑에서 잡아당길 걸.’

호택이는 눈물이 핑 돈 채로 깨끼춤 장단을 한 귀로 흘려들었다.

태평소 소리가 잦아들면서 후르르 바람 부는 날 벚꽃잎 떨어지듯 무동들이 땅으로 내려섰다. 태평소를 입에서 떼고 곰뱅이쇠가 모두에게 들으라는 듯 말했다.

“이번 개금불사 놀음이 끝나고 나면 바우덕이는 어름뼈리가 되거라. 내가 직접 가르치마.”

바우덕이는 그 말에 깜짝 놀랐다. 이제 드디어 줄타기를 배우게 된 것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잘 할 수 있습니다.”

“있드릴 거 없다. 아무래도 우리 앞날이 네게 달린 것 같구나.”

3. 떼이루 떼이루 띠어라 따

“열 살짜리가 저리 줄을 척척 타니 어름이 쉬워보이는구나. 허허허.”

다들 바우덕이의 줄타는 모습을 보고는 대견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바우덕이는 맘이 갑갑하였다.

“저는 언제 놀음마당에 서나요?”

바우덕이는 참다 참다 스승인 곱뱅이쇠에게 가까스로 물었다. 경기 일대서 제일 가는 으뜸산이었던 곱뱅이쇠에서 2년을 꼬박 배운 터라 바우덕이의 솜씨는 이제 으뜸빼리 중에서는 제일 출중하였다. 배우는 동안 얇은 줄에서 몇 번 떨어지기도 하였지만,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 않는다고 줄 위에 서는 것이 너무 좋아 겁도 나지 않았다. 으뜸 뿐이라. 풍물도 춤도 노래도 이제 제법 자신이 있었다.

“아직 멀었다.”

“제가 허공잡이를 아직 능숙하게 못 해서 그런 거지요?”

가랑이 사이로 줄을 튕겨 몸을 위로 치솟게 하는 허공잡이 기술은 아무리 연습을 해도 구경꾼들에게서 환호가 나올 정도가 안 되었다. 몸이 가벼운 바우덕이는 남자 어른 으뜸산이에 비해서 아무래도 위로 튕겨오르는 높이가 좀 모자랐다.

“허공잡이 잘 한다고 으뜸산이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요? 제가 계집아이라서요?”

“그런 것이면 애시당초 널 가르치지도 않았다. 널 줄 위에 올라서서 노래만 부르고 걸어다닐 셈이냐?”

아차 싶었다. 으뜸도 버나도 달미도, 기술도 기술이지만 사설이 중요하였다. 재담을 잘 하는 으뜸산이가 특히 시장터에서는 인기가 좋았다. 줄 아래서 우스개 말을 받아쳐주는 매호씨가 따로 있을 정도로 으뜸에서는 재담이 중요한 제2의 기술이었다. 그동안 줄에서 이런 저런 묘기를 하는 것에 집중하느라 늘 입을 꼭 다물고 줄만 생각하고 연습을 하였다. 노래는 자신있는데 재담은 미처 연습할 겨를이 없었다. ‘왜 그 생각을 못 했었지?’ 하면서 바우덕이는 곱뱅이쇠가 조금 원망스러웠다.

“그러면 저에게도 이제부터 재담을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시면 잘 하겠습니다.”

“아하하하. 재담은 배운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세상살이가 한 눈에 보여야 재담도 하는 것이지. 널 아직 어리구나.”

바우덕이는 애가 타 들어갔다. 다른 어떤 것보다 줄타기를 사람들 앞에서 하고 싶었다. 줄을 잘 타는 재주를 보이면 구경꾼들이 돈을 주

는 걸 많이 봤다. 지전을 줄에 끼워주는 양반네도 간혹 있었고 동전을 하나 둘씩 내놓는 이는 흔했다. 돈을 벌게 되면 곰뱅이쇠가 다 가져가지는 않고 얼마간 어름산이에게 나눠주는 것도 보았다. 그러면 그 돈을 모아서 도투락 댕기를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바우덕이는 가슴이 설레었다. 어릴 적부터 꿈꾸던 도투락 댕기를 두리우면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고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 날부터 바우덕이는 매호씨를 따라다니기로 마음 먹었다. 매호씨가 하는 재담들을 수백 번도 더 들었건만 막상 바우덕이 입으로 따라해보려니 아무 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아마 웃을 때 그 말들이 머리 속에서 다 도망간 모양이었다.

“덕아덕아 바우덕이 바우덕아. 내 얼굴에 밥 붙었냐? 그러다가 똥 어지겠다. 왜 어제부터 그리 나를 따라 다니냐?”

“아, 아닙니다. 재담은 어떻게 하는지 배우려고요. 가르쳐주세요.”

바우덕이가 잘못 절하는 시늉까지 하면서 부탁을 했다.

“재담을 듣기만 하면 못 배운다. 나랑 말을 주고 받아야 배우지. 우선, 소리 한 토막 해보아라.”

** 좋구나 매화로드 어야디아 어허야 예~디어라 사랑도 매화로드
인간이별 만사 중에 독수공방이 상사난이란다.**

매호씨가 걸쭉한 목소리로 소리 중간을 끊고 들어왔다.

“아따 그 처자, 소리 한번 시원하다. 한여름 매미 소리냐. 개성 박연폭포 소리냐. 그런데 댕기머리 처자가 독수공방이 뭘 말인지 설마 아시겠는가.”

바우덕이는 피식 웃으며 또박또박 대답하였다.

“그거야 과부가 혼자 사는 방을 말하는 거지요.”

매호씨가 손바닥으로 자리 칸 바닥을 팍팍 두 번을 쳤다.

“안다고 다 아는 척 할래? 그러면 아무도 안 웃는다.”

“그러면 바보인 척 할까요?”

어리둥절한 바우덕이가 다시 물었다. 바보인 척 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으나 썩 맘에 들지는 않았다.

“남들을 웃기려면 남들 마음 속을 훤히 다 들여다 보아야 한다.”

“어찌 그리 합니까?”

“그러니 네가 아직 재답하기 너무 어리단 소리다. 모르는 척 하는데도 재주가 있는 법이다. 비슷한 것을 늘어놓으면서 교묘하게 정답에서 비켜가야 한다.”

“아는 척도 모르는 척도 하면 안 되는 거네요.”

“아는 척 하면 노여워하고, 모르는 척 하면 알잡아 본다. 그게 구경꾼들 못 된 심뻐지.”

“너무 어려워요.”

“덕아덕아 바우덕이 바우덕아, 세상 나기보다 어려운 것이 또 있겠느냐. 아무리 어려워도 죽기보다 쉬우니라.”

“아는 척도 모르는 척도 안 하겠습니까.”

“아는 척 할 때도 정답에서 교묘하게 비켜가야 한다. 그래서 구경꾼들이 자기만 정답을 아는 것처럼, 안심시켜야만 한단다.”

“왜 사람들이 그리 비비 꼬였는가요?”

“비비 꼬인 그들을 웃게 하는 게 우리들 재주다. 재인들은 비록 세상에 더없이 천한 무리들이지만 그 비비 꼬인 마음을 풀게 하지.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동전을 던져주는 게 아니겠니.”

“아재 하는 대로 잘 따라하면 되지요?”

“나는 땅에 있고 너는 줄 위에 있는데 구경꾼들이 누굴 쳐다보겠느냐?”

“먼저 줄타는 이를 보겠지요.”

“그럼 누구 말을 귀담아 들겠느냐? 나는 네가 말을 하면 받아쳐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널 앞서서 나가는 말을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장작불은 네가 피우는 것이다. 나는 옆에서 풀무질을 하는 것이지.”

바우덕이는 침이 말랐다. 줄 위에서 걷고 줄 위에서 뛰고 줄 위에서 눕는 재주까지 익히느라 숨털 하나하나를 곧추 세우면서 지내왔다. 그런데 이제 재답까지 능란하게 해야만 하다니 막막하였다. 노래야 하던 대로 하면 되니, 크게 신경쓸 것이 없었다. 하지만 재답은 달랐다. 그동안 남사당패들이 했던 재답을 다시 생각해보니 아무리 미리 재답을

준비하여도 그때마다 구경꾼들 모습이 다르고 풍속이 다르고 인심이 다르니 대꾸도 제각각이었다. 그러면 그때그때 눈치껏 말을 바꾸어야 하고 엉뚱한 질문이 올라오면 적절히 대답을 해서 사람들을 웃겨야만 했다. 그냥 땅에 서서 말하라면 그쯤 대꾸야 못하겠는가 싶었지만 온 신경이 줄 타는데 몰려 있으면서 그렇게 여유롭게 재담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오방기를 들고 주막집 마당을 가로지르던 곰뱅이쇠가 풀 죽은 바우덕이에게 말을 건넸다.

“너무 걱정마라. 널 바라보는 사람들이 주는 기운이 널 힘나게 한다.”

“오방기는 왜 들고 가는가?”

평상에 앉아 흥종각 꼭두의 뻑뻑해진 무릎관절을 손보던 덜미쇠가 물었다.

“어름산이가 이불을 다섯 채나 덮고도 춥다하네. 이거라도 풀어서 이불 안에 밀어넣어줄까 하고, 이불이 더 있을 리 있는가?”

골방에 있던 어름산이가 어제부터 전혀 맥을 못 추고 있었다. 아무래도 학질같다고 몇몇이 수군거렸다.

바우덕이 눈빛이 매서워졌다. 어름산이 병이 그리 심하면 당장 내일 놀음에 줄타기를 할 사람이 없었다. 곰뱅이쇠는 5년 전 줄에서 떨어진 후로는 어름빼리들을 가르치기만 했지, 다시는 직접 줄을 타지 않았다.

4. 빈 지계에 웃음을 얹어주마

“어허얼싸, 참봉댁 배넛병신 만아들이 화급하게 나서는데... 꼭 이렇게 나셨겠다.”

날라리와 태평소, 장구가 신나게 장단을 만들었다. 바우덕이는 다리를 저는 참봉댁 만아들 걸음을 흥내내면서 떨어질 듯 말 듯 줄 위를 휘청휘청 걸어갔다. 그때마다 여기저기서 한숨인지 감탄인지 알 수 없는 소리들이 터져나왔다. 열다섯에 남사당패의 첫 번째 여자 꼭두쇠가 된 바우덕이는 이제 경기 충청 뿐 아니라 남도에서도 만주에서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이름이 되었다.

노래 잘 하지. 인물 곱지, 배포 크지, 줄 잘 타지. 재담 흥건하지. 바우덕이가 뻘뻘하면 어느 고을이든 술렁거렸고 순진한 마을 총각 몇은 상사병이 나기 일쑤였다. 꼭두쇠가 된 지 2년 만에 바우덕이는 이제 경복궁 공사장에서 놀음을 펴고 있었다. 바우덕이는 궁궐 안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발바닥에 날개가 달린 기분이었다.

‘아버지, 하늘서 똑똑히 보시고 있지오? 내가… 이 바우덕이가 꼭두쇠 된다 했을 때 다들 안성 남사당패 곧 망할 거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궁궐에 와 있습니다.’

일꾼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공사장에 팔도의 내노라 하는 재인(才人)들을 불러오게 한 건 대원군이였다. 그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재인이 바로 바우덕이였다. 걸핏하면 도망가던 일꾼들이 아침 일찍 공사장으로 몰려드는 것이 바우덕이 덕분이라는 걸 대원군은 알고 있었다.

“이 기둥 그랭이질은 대체 누가 했어? 눈 감고 했나?”

도편수가 화를 내며 소리질렀다. 그러나 목수들의 눈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바우덕이 치마에 가 있었다. 도편수는 정말 대원군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다. 일꾼들이 죄다 정신이 빠졌는데 어떻게 일을 하라는 건지 답답하기만 하였다. 바우덕이 재간에 정신이 빠져 빈 지계를 지고 경중거리는 일꾼들이 하나 둘이 아니었다.

“저기 저 와공, 기와장 무너져요. 와르르르르!”

바우덕이 사설에 깜짝 놀란 지붕 위의 와공과 도편수가 동시에 ‘뭐야?’ 하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건 바우덕이가 허공잡이를 하려고 잠시 줄 밑으로 몸을 똑 떨어지듯이 내려앉느라 한 재담이였다.

“으하하하. 바우덕이야, 우리 간 떨어진 거 내놔라.”

그 와중에 와공 하나가 그렇게 소리치자 바우덕이가 치마를 살짝 들추며 눈을 흘겼다.

“쓸개도 없는 양반이. 간은 해서 뭐하게? 속 다 비우고 편히 살지.”

또 한바탕 웃음이 폭풍처럼 지나갔다. 허공잡이를 하다가 가세트림을 하면서 바우덕이는 부채를 휘 펼쳤다.

저쪽 황색 비단 일산 아래서 대원군이 바우덕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천하를 호령하는 대원군도 바우덕이를 올려다보아야했다. 대원군은 한참을 바우덕이 재간을 바라보다 옆의 신하에게 말했다.

“참으로 귀한 재주로다. 저 어름산이에게 옥관자를 내려 그 공을 모두가 높이 여기게 하라.”

신하가 화들짝 놀라 되물었다.

“천한 재인에게 옥관자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당상관 정3품에게 내리시는 옥관자를 어찌 천한 계집에게…”

“어느 고관대작이 나라 큰 일을 위해 제 목숨을 걸고 저 줄 위에 올라 저리 뛰겠느냐.”

옥관자를 받아든 바우덕이는 잠깐 정신이 아득했다. 이 천한 열일곱 처녀 아이 발 아래에 세상이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도투락 땡기처럼 환한 햇살이 바우덕이 어깨 위로 늘어졌다.

모두 옥관자에 절을 올리고 곱방쇠가 울면서 그 옥관자를 두레기에 매달았다. 바우덕이는 다시 줄 위로 올라섰다. 매호씨가 열른 노래를 시작하였다. 바우덕이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늘 불러대는 유행가였다.

~~소고만 들어도 돈 나온다.~~

빈 지계를 지고 경중대던 녀 나간 일꾼들이 따라부르기 시작하였다.

~~ 치마만 들어도 돈나온다.

줄 위에 오르니 돈 쏟아진다

바람을 날리며 떠나를 가니~~~

노래에 맞춰 바우덕이가 환하게 웃으며 진솔 버선발을 내딛었다. 춤 춤히 느긋하게 이리 걸어가면 하늘까지도 걸어갈 것 같았다.

임정진 : 동화작가, 〈해모수 파크를 탈출하라〉 외 다수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창학부 교수

중국 조선족 시와 한국의 시

황송문

1.

이번 세미나에서 저에게 주어진 명제는 <중국조선족 시와 한국의 시>입니다. 이 명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의 본질을 전제한 다음, 한·중 간의 두 세계의 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어떤 시가 바람직한 시인가 하는 기준이 설정되기 전에는 정상적인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孔子는 최초로 『詩經』을 편찬하면서 시란 ‘思無邪’라 했고, 朱熹는 「詩經集註序」에서 餘韻과 和音を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시인 워즈워드는 ‘강한 감정의 자연스런 流露’라 했고, 미국의 시인 에드가 알란 포우는 ‘아름다움의 음악적인 창조’라 했습니다. 볼테르는 ‘영혼의 음악’이라 했고, 투르게네프는 ‘神의 말’이라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까지 나열한 여러 말들을 종합하게 될 때 시란 ‘아름다운 언어의 표현’으로 집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름다움’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의 여러 학설을 종합하게 될 때 그 아름다움이란 ‘균형과 조화와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을 주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겠습니다. 균형이 깨져도 아름답지 않거니와 조화롭지 못해도 아름답지 못합니다.

따라서 신묘한 정서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욕구를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는 환경이 이뤄져야 하겠는데, 그동안 역사적 경험에 비춰보게 될 때 강력한 감정의 자연스러운 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표현의 자유를 용인하는 쪽이 자유민주주의요 그 반대되는 쪽이 공산주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한·중 간의 시문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중국조선족 시문학은 중국의 역사적, 사회적 전환과 중국조선족 역사 변천의 특수성 및 중국조선족문학 발전의 구체적 상황을 동시에 고려하게 될 때 19세기 천입 당시부터 1920년까지를 1기로, 1931년까지를 2기로, 1945년 8·15광복까지를 3기로, 1949년까지를 4기로, 1966년까지를 제5기로, 1966년부터 1976년까지의 문화대혁명 기간을 제6기로, 197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문학을 제7기로 가름하는 게 중국조선족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초창기 재만(在滿) 조선족 시문학의 대표적인 문인으로는 김택영, 신정(신규식), 신채호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1910년대 중기부터 자유시가 출현하였는데, 가령 김택영의 「고국의 10월 사변을 회상하여」, 신채호의 자유시 「나의 사랑」 「새벽의 별」 「너의 것」, 류영의 시 「새빛」 등이 여기에 해당되었습니다.

중국 연변대학의 김호웅 교수는 『재만조선인문학연구』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중국학파’들은 기본상 속지주의(屬地主義) 원칙에 따라 무릇 중국 경내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 작가는 죄다 조선족작가의 범주에 넣고 있다. 김택영, 신정, 신채호의 경우와 같이 만주 조선인이민사회와의 연계여부, 문학성격 여부를 불문하고 중국에서 활동하다가 중국에서 운명한 작가에 대해서는 대서특필하고 있지만, 안수길의 경우와 같이 해방 직전에 남하한 작가에 한해서는 그들이 재만조선인문단에서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를 막론하고 무조건 조선족문학사에서

배제하고 있다.… 만주의 조선인이민사회의 생활과 정서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큰그릇’들인 김택영, 신정, 신채호 등을 억지로 끌어들이는 결과… 재만조선인문학을 형성, 구축하는데 직접 참가한 ‘문화부대’—염상섭, 안수길, 박팔양 등의 기여와 이 땅의 첫 향토작가, 시인들인 이육, 김창걸의 존재는 많이 격하되고 말았다.¹⁾

김호웅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명망 높은 문사에 대해서는 조선인이민사회와의 연계여부나 문학성격 여하를 불문하고 중국에서 활동하다가 운명한 작가에 대해서는 대서특필하고 있지만, 재만 조선인문학을 형성, 구축하는 데 직접 참가한 염상섭, 안수길, 박팔양 등이라든지, 이육이나 김창걸 등 향토작가의 존재는 재만 조선인문단에서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를 막론하고 격하되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3.

1907년 7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신한촌에서 한의사의 아들로 태어난 이육(이학성) 시인은 1920년대부터 시창작에 몰두한 이래 적지 않은 작품으로 이 지역의 시문학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의 시 「님 찾는 마음」(민성보, 1930)은 李月村人이라는 필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님이시여 당신이 부르시며는
우거진 숲속의 다름질로
안개의 골짜기를 찾아서 가지요

님이시여 당신이 부르시며는
예마을 찾아오는 제비의 나뭇으로
검푸른 大空으로 찾아가지요

1) 『在滿朝鮮人文學研究』(金虎雄, 국학자료원, 1997)

님이시여 당신이 부르시며는
하늘에 흐르는 번개의 빛으로
화산의 비탈도 찾아가지요

신석정의 시 「임께서 부르시면」을 연상케 하는 작품입니다. 여기에는 임께서 부르시면 달려가겠다는 급박한 마음이 비장하게 내비치는가 하면, 임께서 부르시면 찾아가겠다고 하는 소극적인 자세도 동시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 ‘임’은 상대적 관계가 아니라 절대적인 종적 관계로서의 ‘임’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가을날 노랗게 물들인 은행잎이
바람에 흔들려 휘날리듯이
그렇게 가오리다. 임께서 부르시면……

호수에 안개 끼어 자욱한 밤에
말없이 재넘는 초승달처럼
그렇게 가오리다.
임께서 부르시면……

포근히 풀린 봄 하늘 아래
굽이굽이 하늘가에 흐르는 물처럼
그렇게 가오리다. 임께서 부르시면……

파아란 하늘에 白鷺가 노래하고
이른 봄 잔디밭에 스며드는 햇볕처럼
그렇게 가오리다. 임께서 부르시면……

위의 시는 신석정의 시 「임께서 부르시면」입니다. 이 시는 임께서 부르시면 가겠다는 내용의 반복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께서 부르지 않는다면 갈 수 없는 처지이거나 그러한 심상임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임께서 부르면 가고, 부르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것은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자세입니다. 아무리 가고 싶어도 불러주어야만 갈 수 있다는 것은 입과 나오는 평등한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주종의 수직적 관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입’이라는 주체가 상대적 평등의 관계가 아니라 절대적 수직관계라는 점은 이육의 「님 찾는 마음」이나 신석정의 「입께서 부르시면」이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한국시단에도 알려진 함형수 시인은 1914년 함경북도 경성의 빈한한 가정에서 태어나 향리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경성고보에 진학했으나 재학시절 광주학생운동을 지지 성원하는 시위(1929. 11)에 나간 것이 죄가 되어 당국에 구속되었다가 풀려났습니다. 그 사건으로 학교를 퇴학당한 후 중앙불교전문학교 문과에 진학하여 공부하는 한편 시 창작에 정진하였습니다.

나의 무덤 앞에는 그 차거운 碑돌을 세우지 말라
 나의 무덤 주위에는 그 노오란 해바라기를 심어 달라
 그리고 해바라기의 긴 줄거리 사이로 끝없는 보리밭을 보여달라
 노오란 해바라기는 늘 太陽같이 太陽과 같이 하던
 華麗한 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라
 푸른 보리밭 사이로 하늘을 찌는 노고지리가 있거든
 아직도 날아오르는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자.

- 함형수의 시 「해바라기의 碑銘」

함형수의 이 시는 이 시인을 시단의 총아로 일컬어지게 할 만큼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이 시가 이처럼 호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더니즘의 기법이 번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낭만성과 함께 시각적 색채의식이나 형태의식을 중시하는 모더니즘 기법이 생동하는데, 이러한 근거는 이 시인의 개성과 함께 동향인 정지용의 모더니즘을 수용한 것으로 보는 학자들의 견해도 간과할 수 없겠습니다.

내 코피를 쏟아보아도
도무지 붉어지지 않는 강물이었다.

사발만한
노오란 해바라기의 꽃은
강을 지키지 않고 기어이 쓰러져버렸다.

흰 나비 하나
山脈 위 바람을 찾아
가늘은 線으로 가버리면……

갈기갈기 찢어진 흰 구름 아래
우수수—
갈대밭은 머리를 풀고 몸으로 울었다.

빨간 채송화가 피어있는 자리는
몇 해 전 붉은 댕기—處女の 屍體가 밀려왔던 자리다.
바다가 왈각 이 江으로 기어오르던 滿潮의 밤,
등불 들고 病들어 바위 위에 서서 울던
女子를 싣고 간, 검은 뱀놈들의 노랫소리가 있었다.

- 장영창의 시 「만경강의 노랫소리」

한국시단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장영창 시인은 1920년 전북 김제 청하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대학 예과에서 수학, 도쿄 세이소쿠 영어학교 영문과 수업 후 리더스 다이제스트 사, 한국일보, 월간 시지 『풀과 별』 주간, <종교신문> 편집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처럼 화려한 경력과 혁명적 낭만주의 작품의 소유자임에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까닭은 노이로제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는 고소공포 증 때문에 외출을 삼가고 청과동 집에서 은둔했습니다.

함형수 시인이 무덤에 해바라기를 심어달라고 부탁했다면, 장영창 시인은 쓰러진 해바라기를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만경강은 詩想을 길러준 어머니와 조국으로 동일시됩니다.

닭 잡아먹던 옛일은
이릿다운 한 폭의 그림이 되고 말았구나.
오랑캐영이 병풍처럼 둘러안고
멀리 아라사의 푸른 하늘을 바라다 볼 수 있는 곳
이 지역이 고향을 잃은 사람들의 보금자리였다.

거촌 풀밭에 피는 한송이 박꽃
토실토실 피어나든 순이는
참으로 못있게스리 예뻐졌다.

항상 살림에 쪼들리는 백성들이지만도
모래성 쌓던 더벅머리 짝 아린 시절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영겨진 비단방석 같았다.

오색 무지개 번진다던 마을 우물에 물이 마르고
탐스럽게 부풀어가던 순이의 젓가슴이
똥똥보 땀가네 집으로 가마타고 갈 줄이야.

이빠진 호물딱 할멈 말씀마다나
젊은 사나이들이 모여들던 순이네 집은
우리들이 닭 잡아먹은 후 기어코 집터가 비었다.

- 천청송의 시 「닭 잡아먹던 집」

한 가정의 눈물겨운 수난사를 주시하는 시인의 심회가 순수합니다. 여기에서 관심이 가는 사물은 ‘닭 잡아먹던 옛 일’과 아라사의 푸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랑캐영’, ‘고향을 잃은 사람들의 보금자리’,

거촌 풀밭에 핀 ‘박꽃’과 중국인 맹가네 집으로 시집가는 ‘순이’, 그리고 비어있는 ‘집터’라 하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순후한 인정미학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뻐진 순이는 중국인 집으로 시집을 가고, 그녀가 살던 집터는 비어있다고 하는 허무의식으로 수난자의 비애를 내비치면서 향수를 달래게 됩니다.

1915년 중국 용정에서 출생한 천청송과 비슷한 연대로서, 1912년에 경남 마산에서 출생한 김용호 시인의 시「눈오는 밤에」는 앞의 시와 비슷한 정서지만 멧돼지와 집돼지만큼이나 풍찬노숙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누이들의
정다운 얘기에
어느 집 질화로엔
밤알이 토실토실 익겠다.

콩기름 불
실고추처럼 가늘게 피어나던 밤

과문은 불씨를 헤쳐
앞담배를 피우며

<고놈, 눈동자가 초롱 같애>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할머니,
바깥엔 연방 눈이 내리고
오늘 밤처럼 눈이 내리고,

다만 이제 나 홀로
눈을 밟으며 간다.

오우버 자락에

구수한 할머니의 옛 얘기를 싸고
어린 시절의 그 눈을 밝으며 간다.

오누이들의
정다운 얘기에
어느 집 질화로엔
밤알이 토실토실 익겠다.

- 김용호 시인의 시 「눈오는 밤에」

앞의 시의 결구가 순이는 중국인에게 시집을 가고, “우리들이 닭 잡아먹은 후 기어코 집터가 비었다.” 라면, 뒤의 시 결구는 “어느 집 질화로엔 밤알이 토실토실 익겠다.” 입니다. 일제 식민지치하 국내외의 사회 현실이나 정서의 차이가 확연히 대비되고 있습니다. 둘 다 과거 회상인데, 연민의 정서가 확연히 구분된다 하겠습니다.

4.

1945년 광복으로 인하여 일제의 질곡에서 벗어나게 되자 중국조선족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는데 일조하였습니다. 그 당시 중국조선족 시인들은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다양한 문학작품을 창작하기 시작하였는데, 대체로 여기에 해당되는 시인으로는 김례삼, 설인(이성휘), 임효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의해서 노동계급이 역사의 전면으로 부상하고, 반제반봉건투쟁을 창출하던 1920년대 중국조선족문학 현실에도 무산계급문학에 관한 마르크스이론이 파급되었습니다. 무산계급문학을 주조로 내세우던 그 당시에는 소위 반제반봉건과 민족해방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때의 문예창작은 계급적인 모순과 대립 투쟁 속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작품 속에 형상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급의 대립에서 오는 투쟁의식과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을 두드러지게 형상화하도

록 독려하던 그 당시의 문학은 마르크스주의 단체들이 문인들에게 비현실적인 급진적 요구를 제기하고, 문학의 공리적 역할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예술성의 결핍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계급투쟁이론의 철학적 모순, 또는 비진리의 공소성에서 온 것입니다. 마르크주의 문학이론은 마르크스주의 철학을 토대로 그것이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표방하고 천명하였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문예의 신생과 발전 등 근본적 문제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혔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자초한 철학적 함정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그들의 주장에 비쳐보더라도 용이하게 판별됩니다.

① 노동은 궁전을 창조하였지만 노동자에게는 빈민굴을 마련하여 주었다. 노동은 미를 창조하지만 노동자를 기형으로 만들었다.… 노동은 지혜를 창조하지만 노동자는 우둔하고 미련케 했다.… 대상이 인간에게 사회적 대상이 되었을 때만이 인간 자체는 자신으로 하여금 사회적 존재물로 되게 한다. (『맑스주의문학예술론』, 연변대학, 1986. 33쪽(맑스, 1844년 경제학 철학원고 발췌))

② 맑스는 ‘원고’에서 자본주의 소외로동을 분석하면서 노동의 본질을 탐구하였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의 본질에 접촉하였으며, 그로부터 인간이 동물계에서 벗어나 인간으로 된 것은 노동의 결과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물질생산노동은 인간을 동물과 구별케 하였고, 자각적이고 자유스럽고 전면적인 노동생산실천은 인간의 본질적 역량이 되었다.²⁾

③ 우리 선조들이 원숭이로부터 인간으로 이행하던 시기에 수천년에 걸쳐 점차로 자기 손을 여러 동작에 적응시키는 것을 배웠을 때 그 동작들은 처음에는 매우 간단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³⁾

2) 『맑스주의문학예술론』(연변대학, 1986. 45쪽)

3) 『맑스 엥겔스 예술론』(연변인민출판사, 1958. 22쪽. 예술의 발생에 있어서의 노동의 역할). 엥겔스, 자연변증법. 『원숭이의 인간화과정에서의 노동의 역할』(맑스 엥겔스연구소, 사회경제출판사, 모스크바-레닌그라드, 1931. 62쪽)

④ 인성이라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물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성이 있을 뿐이고 추상적인 인성이라는 것은 없다. 계급사회에 있어서는 계급성을 띤 인성이 있을 뿐이고 초계급적인 인성이라는 것은 없다. 우리는 무산계급의 인성, 인민대중의 인성을 주장하고, 지주계급과 자산계급은 지주계급과 자산계급의 인성을 주장한다.…혁명적 문예가에 있어서 폭로의 대상은 침략자, 착취자, 압박자 및 인민 속에 끼친 그들의 나쁜 영향 뿐이고 인민대중일 수는 없다.⁴⁾

앞에서 제시한 ①과 ②는 모두 『맑스주의문학예술론』에서 나온 말입니다. ③은 『맑스 엥겔스론』(맑스 엥겔스연구소 자료)에서, 그리고 ④는 『모택동문예를 논함』(중국과학원문학연구소)에서 뽑아 밝힌 내용입니다. 이 책들을 종합해 보면 ㉠ ‘인간은 원래 원숭이와 같은 동물이었는데 노동을 통한 진화로 인해서 인간이 되었으므로 사회적 노동을 통해서 인간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논리와 ㉡ 사회적 노동을 통하여 인간의 자격이 주어지는 노동자계급은 옹호하되 그에 반하는 계급은 투쟁하여 제거하며, ㉢ 무산계급(암흑)을 묘사하는 자의 작품은 반드시 보잘 것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자체모순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논리는, 인간은 원래부터 인간이었다는 기독교적 논리에 반하는 비인간화, 즉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령 무산계급이 혁명이라고 하는 인간의 사회적 노동에 동참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인간의 자격이 주어질 수 없다는 차별이 규정됨으로써 상황에 따라서는 가차없이 처단할 수 있는 살인극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순된 증오의 철학에 의해서 이 지구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가. 이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인성이 있을 뿐이고 추상적인 인성이라는 것은 없다.” 고 했는데, 가령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도 계급적 인성을 가지고 나온다는 말인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

4) 『모택동문예를 논함』(중국과학원문학연구소 편, 민족출판사 발행, 1959. 89쪽)

니게 되는 사단(四端), 즉 仁義禮智라든지, 박애정신, 대자대비 등은 추상적인 인성인데 그도 부정하고 말살해야 하는가?

이러한 철학적 모순은 계급적 대립 모순이라는 투쟁이론을 낳고, 이것이 마치 영구불변의 진리라도 되는 듯이 규정지어 숭상함으로써 동지를 의심하고, 이유 없는 증오심의 증폭으로 인하여 ‘문화대혁명’과 같은 불행한 사태를 자초하였던 것입니다.

1926년 10월 13일 함경남도의 가난한 화전민의 아들로 태어난 임효원은 3세 때 부모를 따라 시베리아 일대를 유랑하다가 9.18사변 직후에 흥개호를 건너 흑룡강성 목단강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는 1945년 9월의 혁명대오에 참가한 후 1946년 1월에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였으며, 토지개혁공작원으로 일한 후에는 목단강, 하얼빈, 연길 등지에서 신문사 편집기자로도 있었습니다. 그는 맑스주의 저작을 접속하면서 혁명적 이론을 배움으로써 결국은 그 사상에 입각하여 「이 손에 총을 주소」(1950)와 같은 시를 창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손에 총을 주소
그렇지 않으면 폭탄을 주소
늙은이라 녀려 말고
이 손에 총을 쥐게 해주소.

피에 붉은 원수는
우리의 하늘에 쳐들어와
그처럼 웃으며 근심없이 자라던
철부지 손자를 죽였쇠다
희디흰 가슴팍에 폭탄을 던져
글세 짓찧어 죽여버렸쇠다

아니외다
이것 뿐 아니외다!
이웃 조선 땅 우에 몰려와

수천 수만 손자들의 가슴팍에
날창을 휘둘러 어린 목숨 앗아가고
무수한 아들과 며느리들을
달고 치고 지지다 못해
생매장해 치웠쇠다

그러나 아예 생각지 마소
이 늙은이에게
이 늙은이에게 눈물이 있으리라고는!

갈쿠리 손에 총을 주소
이 가슴에 폭탄을 품게 해주소
이 몸에 피 한 방울 남는
그날까지 싸우리다!

불타는 조선의 땅 우에서
눈물을 잊은 형제들과 함께
그 더러운 짐승의 검은 숨통을
기어코 쏘아 넘기고야 말겠쇠다!
산산히 부수어 씹어 버리고야 말겠쇠다.

- 임효원의 시 「이 손에 총을 주소」

6.25사변이 일어나던 1950년 11월에 발표한 이 시는 시종일관 구호처럼 직접적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적에 향하는 과잉된 의식의 적개심으로 팽배한 글입니다. 이러한 성격의 글에서는 문학성(예술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본연성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칭하는 “피에 굶은 원쑤”는 물론 미군을 위시해서 유엔군을 말하겠지만, 거기에는 동족도 포함되겠습니다. 6.25라는 동족상잔을 소재로 표현한 임효원의 시 「이 손에 총을 주소」와 평범한 한국의 시인 이신강의 시 「내가 만난 인민군」은 시 정신에 있어서 큰 대조를

보입니다.

어머니는 일제(日帝)하에서도 내놓지 않던 놋그릇(祭器)을 꽃밭을 파고 향아리에 고이 담아 묻고 그 위에 봉선화와 과꽃을 심었습니다. 꽃밭에는 다알리아와 글라디올러스, 야생국화와 도라지꽃이 다투어 피고 있었습니다. 한 인민군이 싸리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바라보는 어머니를 보고 그 인민군이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학생인데 저도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고향에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지나가다가 꽃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아주머니, 꽃 한 송이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꽃 한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인민군은 물기어린 눈으로 어머니를 그윽하게 바라보고 갔습니다. 어머니도 웃고름으로 눈물을 찍으며 빠알간 눈으로 그 인민군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 이신강의 시 「내가 만난 인민군」

이 시가 특별한 창작방법으로 시적 기교를 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동을 주는 까닭은 인간의 본성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고,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인간의 본연성에 입각해서 쓰여진 시가 그 진실성에 의해서 감동을 주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견해로 보게 될 때 계급의식으로 인간의 본성을 가리게 되는 계급혁명론은 시를 굳어지게 하고 뒤틀리게 하여 예술적 가치를 상실하게 한다는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5.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중국조선족 문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의욕으로 발돋움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스스로 쟁취해서 획득한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새로운 삶

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욕적인 출발과는 달리, 정치적인 세파에 부대끼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조선족 문인들의 단합과 새로운 시대의 민족문예사업을 벌여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제1회 중화전국 문화예술일군대표대회(1949년 7월 2일-19일)의 정신에 준하여 중국조선족의 문단적 기반을 닦기 위한 연변문예연구회를 1950년 1월 15일에 발기하여 결성, 문학·음악·미술·연극·무용 등 5개조를 설치하였습니다.

1951년 4월 23일 연변문예연구회를 해체하고 연변문학예술계연합회준비위원회를 결성했던 기초 위에서 1953년 7월 10일 제1차 연변조선족자치주 문학예술일군대표대회를 소집하고 이 대표대회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문학예술일군연합회(연변문련)를 결성하고 규약을 통과, 대표단을 선출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모택동문예사상이 중국조선족문예발전의 지도사상이라는 것을 확정하고 중국공산당의 영도하에 맑스주의, 레닌주의, 모택동사상을 학습하며, 인민대중과 고락을 함께 함으로써 세계관을 개조한다는 실천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러나 건국초기의 중국조선족문학건설은 심각한 모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나 사회현실에 대한 시민들의 통찰력이 부족하였고, 예술적 기량이 성숙되지 못한 데서 오는 창작상의 개념화라든지 도식화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조선족 문인들은 철학적 인식이나 작가적 양식 등 인생관, 또는 세계관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획일적인 유물론, 유물사관 등의 교양교육을 받았고, 맑스-레닌주의 세계관과 문예관을 흡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념은 결국 학술적 비판운동으로부터 정치적 비판운동으로 넘어가고, 좌경적인 과오를 빚어내게 됨으로써 중국조선족문학 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짐은 1957년 하반기에 시작되어 그 이듬해 봄에 마무리된 중국조선족문단의 반우파투쟁에 이르러 치명적인 과오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좌경적 사조가 범람하는 상황에서 중국작가협회 연변분회에서는 제2차 회원대표대회를 1959년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그리고 제3차 회원대표대회를 1961년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연길에서 열었습니다.

니다. 이 대회에서는 문학이 “진실을 써야 한다”는 견해로 수정주의 비판이 대두되었는데, 작가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좌경적 비판운동은 『연변문학』(1961. 2)이 폐간되는 등 것처럼 자라나는 예술을 경직시켰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으로부터 ‘문화대혁명’ 전까지 17년간의 중국조선족 시문학은 양적으로 확장되고 있었으나 질적인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모순을 회피한다거나 인물을 치켜올리며 영웅인물로 신격화하는 등 문학창작상의 소위 허풍 떠는 일을 서슴치 않고 대대적으로 조장시켰습니다.⁵⁾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초기 시단에 진출하여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시인으로는 김철, 김성휘, 이삼월, 이상각, 김응준 등을 들 수 있겠는데, 먼저 김철의 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토무렵 두 령감

지경돌을 뽑는다

물싸움에 삽자루 동강나던

지난 일을 생각하여 얼굴이 붉었는가

아니 지경 없는 이 밭을

임경소 트랙또르 척척 갈아엎으리니

오늘부터 한 집 식구 두 령감

오, 행복의 노율이 비졌노라!

- 김철의 시 「지경돌」

1953년에 창작된 이 시는 사회주의적 농업합작을 소재로, 그리고

5) 『중국당대문학사』(연변인민출판사, 1990. 56쪽)

공생공영을 주제로 다룬 작품입니다. 소농경제와 소생산자로서의 토지사유의 상징인 ‘지경돌’을 뽑는 행위를 포착하여 사회주의적 농업합작이라는 역사적 변천과정에서 초래되는 농민들의 감격스런 환희는 다정다감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932년 8월 6일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출생한 김철 시인은 1942년 전남 곡성으로 귀국,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니다가 부모를 따라 중국 길림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는 1963년 중국작가협회 연변분회 부주석 겸 비서장으로 있다가 ‘문화대혁명’이 시작되면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5년 후인 1970년 무죄석방되어 원직에 복귀되었습니다. 중국작가협회 길림성분회 부주석, 연변분회 주석, 연변문학예술계연합회 주석,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 등의 화려한 경력과 왕성한 작품창작의 분량에 비하여 그의 시작품의 수준은 유명세에 미치지 못하다 하겠습니다.

착한 백성은 온종일
풀을 벤다.

앞 이가 빠진 낫 들고
햇끝을 목에 감고
달끝으로 사타구니를 가리고 사는 백성이
벤 풀을 그 자리에 깔아 댄다.

살을 포개어 댄다.
쓰러진 몸으로 들을 덮는다.

풀은 누워서
지나가는 바람의 씨알을 익히며
밀도리의 상채기에서 새순이 돋아나드락
돋아나 풀썩이 되드락 더 산다.

착한 백성은 한 평생
자기를 배어 세상에 간다.

- 이병훈의 시 「풀베기」

이병훈 시인은 김철 시인보다 7년 연상인 1925년생입니다. 전북 옥구에서 태어난 그는 한국문인협회 군산지부장을 역임한 후 조용히 시만 쓰고 살다가 금년(2009년)에 타계했습니다. 김철 시인은 그 사회에서 유명해져 있는데 비하여 이병훈 시인은 한국문단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조선족 문단에서 가장 유명한 김철 시인과 한국문단에서 별로 유명하지 않은 이병훈 시인의 시를 비교해 보시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자명해지겠습니다. 김철 시인은 한국의 학계나 예술계, 언론계 등에 화려하게 알려져 있는데, 한국사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행적과 작품세계를 구분해서 연구하지도 않고, 떠도는 풍설만으로 두루뭉실하게 인기에 영합하는 학계나 예술계나 언론계도 문제입니다. 그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최근의 유명세는 작품 자체보다는 정치적인 분위기나 매스컴에 좌우되는 현실의 단적인 실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물론 일부에 한하겠지만, 앞으로 여과작용이 없이는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가슴에 웅덩이 하나
그것은 오래 전에 옥을 파간 자리
나는 모른다 그 옥이 지금은
누구의 머리를 장식했는지
누구의 목에서 빛 뿌리는지

내 가슴에 웅덩이 하나
그것은 오래 전에 옥을 파간 자리
오랜 세월이 흘러갔건만

오늘도 웅덩이에 허연 소금이 돋치어
마를 줄 모르는 빗물 눈물이 고여있다.

- 조룡남의 시 「옥을 파간 자리」

한 자리에 서있으면
지평선은 포승줄이 된다.

나는 묶이지 않으려고
줄곧 지평선을 넘어간다.

- 이삼월의 시 「지평선」

한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제가 할 일은 다 한다.

한 마디 말이 없어도
두려워하는 자 있다.

허름한 옷을 걸치고도
추위와 배고픔을 모른다.

밤낮 외롭게 지내지만
욕심도 불평도 없다.

팔 벌린 채 먼 산을 바라보며
세상을 우습게 안다.

- 이상각의 시 「허수아비」

위의 시 「옥을 파간 자리」는 1957년 반우파운동 때 ‘우파분자’로 몰려 20여 년간 최하층에서 고생한 조룡남 시인의 작품입니다. 문학을 정치적 계급투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폐단으로 인하여 심미적 예술성이 살아남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작품은 경험의 소산입니다.

이삼월의 시 「지평선」은 짧지만 사색이 요구되는 시이고, 이상각의 시 「허수아비」는 부동과 침묵의 미학에 남루와 기아를 초탈하는 안심입명의 경지가 연상되는 작품입니다. 부귀공명을 탐하는 현실을 우습게 여기는 처사의 풍모가 잔잔한 재미를 줍니다.

중국조선족 시인들이 정치 사회적 현실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인 동시에 언어와 문화 및 혈연공동체라는 민족의식으로는 한글문화권의 조선족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게 가장 근원적인 문제성을 지닌다 하겠습니까.⁶⁾ 정판룡 교수가 갈파한대로 중국이 시가라면 한국은 친정과 같은 것이어서 그리운 친정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시가에도 충실해야 한다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중국조선족 시와 한국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한중의 동족간의 시작품 세계를 살펴본 결과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은 문학작품의 예술성보다는 사회적 지위나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규정되는 유명세, 그리고 인간의 욕구에 반하는 정치 이데올로기의 독소가 문학을 말살한다는 점입니다.

중국조선족의 시문학에 비하여 한국의 시문학은 정치 계급적 이데올로기의 독소의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았지만, 언어의 방종이 모국어의 순수성을 쪼먹는 경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몇 년 전 신춘문에 당선작의 제목만 봐도 「엘리펀트맨」 「스트랜딩 증후군」 「트레이싱 페이퍼」 등 외국어를 무절제하게 남발하는 것도 우리의 시어를 푸지지 못하게 하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한국의 시인들은 중국조선족 시인들에게서 잃었던 우리의 고유정서, 즉 어머니의 향토정서와 만나야 하겠고, 중국조선족 시인들은 한국의 시인들에게서 시의 창작방법으로서의 기교를 터득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6) 『중국조선족시문학의 변화양상연구』(국학자료원, 2003. 179쪽)

인간의 기본 욕구를 말살하는 정치 이데올로기나 독자의 눈을 흐리게 하는 비순수의 사회적 통념들에 나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한중간의 동포시인들은 문학 본령의 나침반과 안테나를 장착해서 문학이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진력해야 하겠습니다.

- 한국문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계절문학』 2009년 가을호(통권 8호)에서 -

황송문 : 시인, 수필가, 소설가, 문학평론가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창학부 교수

학생문단 | 시

류제희
안장수
김형출
금상욱
노정숙
박병식
예외석
정정선
조인숙

조무호(동시)
조인숙(동시)

詩

|| 시 ||

오동나무 外 1편

류제희

햇간 추녀 밑에
떨어진 씨앗 하나
디딘 자리에 뿌리 내려
쑥쑥 자랐다.

어릴 적
잡풀 베는 칼날에
빼그덕 꺾인 허리
다행히 목숨은 비켜갔다.
세월은 꺾인 채로 지나
장정이 되었다.

양갈진 비바람 막아주던 햇간
기둥 밑에 뿌리 단단히 묻어 놓고
몸뚱이는 해를 따라 따뜻한 쪽으로
굳어버렸다.

어느덧 햇간보다
높은 키로 서서
하늘을 똑 바로 올려다보지 못하고
견뎌온 설움
양철지붕 위에 쏟아내어
온 동네 싸움 난 듯
가을 내내 시끄러웠다.

논현 신도시

죄 없이 꽃들이 뽑혀 나갔다.
대대로 마을을 지켜오던
아름드리 상수리나무가 기계톱날에 잘려 나가고
길들이 지워지기 시작했다.
소화기관처럼 구불구불
포구와 마을을 이어주던 길들이 지워지고
한동안 상관없는 사람들만
밀물로 왔다가 썰물로 빠져 나갔다.

낮익은 풍경 뿌리째 뽑혀나간
최씨네 포도밭 너머
논현 신도시 팻말 하나씩
부적으로 박히더니
뚝 부러진 허수아비가 여기저기
별집같이 쭈셔 놓은 마을을 점령하고 있다.

아랫도리가 파헤쳐진 오봉산
빨건 흙비린내 온통 소문으로 퍼지고
이주해 온 사람들, 이권다툼으로
너나없이 핏발 선 이기심만
프리미엄으로 엮어지는 소래마을

터전 잃은 사람들
마당가 노오란 들국처럼
여기저기 물러앉았다.

조그만 포구, 마을로 향한
사람의 길은 지워지고
제 스스로 풀 한 포기 자라지 않는
유비쿼터스, 완벽한
꿈에 그린, 해피트리, 뜨란채, 웰카운티
꿈이 낙원이 되어 가고 있다.

< 약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부 졸업

‘시와 시학’ 등단

한국문인협회회원

서해아동문학회원

시집 [산벚꽃과 옹달샘이 있는 풍경], [논현동 577번지]

보문호에서

안장수

삼경 무렵 호변 길 접어드니
버들개지 호수 일렁임에 푸르려고
옛숲길 홀로 아득하다

달하 높이곰 솟아 멀리곰 비치시라
눈 들어 들레 보고프나
물오리들 짹짹하며 상쾌한 소음 일으키다

검은 코트 여인들 어둑새벽 호텔길 오르고
여인상 호변 빗대어 앉아 머릿결 날린다

내 가슴 뽕을 느끼나 음률 바람처럼 일렁이고
외간남자 테니스라켓 뽕뽕하며 휘두르며 처용무 춘다

달은 외동읍 또는 내동면 복사가지를 가리며 지나가고
모화 얼굴 달빛으로 보문호에 어리다

도투락월드 풍차 하늘 등글게 원을 치는데
부자재벌 양대 금벚지 묘역에 묻히고

서민들 애환 낙엽처럼 포도에 떨어져 뒹군다
보문호는 활짝 문을 열고 반기나
아랫것들에겐 제방턱이 높기만 하다

< 약력 >

경북 상주 출생

서울디지털대 문예창작학부 졸업

2004년 문예한국으로 등단

현 한국문인협회 문경시부지부장

희망을 짓고서

김형출

후훗, 지난날이 미워서가 아니다
휴우, 오늘이 만족해서도 아니다
하, 내일이 궁금해서이다
기억과 망각보다는 상상에 투자를 하겠네
인연을 어찌 잊을까 마는
세상이 블랙버드*처럼 지나갈까봐 끔찍하고
사람이 안드로이드와 결혼할까봐 끔찍하고
복제인간들 세상이 올까봐 끔찍하고
내가 나를 몰라볼까봐 끔찍하고
지구가 우주를 떠날까봐, 끔찍하다.
매순간 가능성이 있다 나는 사라져도
상상이란 얼마나 끔찍한 희망인가를... 바라
기억과 망각에 구속된 자유를 펼쳐놓고
나는 상상에 붉은 희망을 걸었네
삼백예순다섯 개 달린 빛과 그림자와 사귀면서
산마루에 솟아오르는 붉은 태양을 맞이하며
희망을 짓고서, 얼굴이 불그레하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가상의 검은새

< 약력 >

경상남도 함양 출생

육군3사관학교 및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부 졸업

제5회 대한민국 경제올림피아드 경제신문에 수필 대상(2010)

창조문학신문 신춘문에 시 당선(2009)

제1회 방촌문학상(2009)

|| 시 ||

민들레 깃털 外 2편

금상옥

밝히고 뭉개지는 작은 풀꽃이라
그 서러움을 못 이기고 떠나간 후

너의 영혼 하얗게 다시 피어
가을 들녘에 서럽게 서있네

겨울눈 맞이하기 위해
하얗게 화장을 했나

바람은 네 마음을 아는 듯
눈처럼 휘이휘이 날려주네

평생 되풀이 되는 생 (生)
그렇게 넌 다시 세상 밖으로 비상한다

단칸방

갈라진 벽 틈 사이로
정미 흐르는 방
살 부비며 잠들기도 했던

갈라진 벽 틈 사이로
들락거린 바퀴벌레
내 곁에 잠시 머물다 갔을지도

갈라진 벽 틈 사이로
흘러나온 녹물
난이 되어 피어나기도

갈라진 벽 틈 사이로
새어 나온 연탄가스
엄마랑 형아랑
사이좋게 나눠 먹고

갈라진 벽 틈 사이로
흐르는 답소
몰래몰래 퍼졌을지도

달팽이

달팽이처럼 느릿느릿 꿈을 향해 가는 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 답답하다면서 떠나가네

둥글 둥글게 감겨있는 내 마음 깊은 그 속에
꿈의 씨앗이 있다는 걸 그 누가 알아줄까

지름길로 가려하는 많은 사람들은
느리게 가는 날 답답 하다하네

아직 끝 지점까지 도달 한 것도 아닌 것을
벌써부터 아웅다웅 시시비비 가리려고 하네

달팽이는 느린 박자로 생을 살아가지만
잠시도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달팽이는 느리지만 뒤로는 가지 않는다

제사

노정숙

광대였던 내 아버지 제삿날,
우리는 택시를 잡고 물 좋은 곳으로 가자 했다
어느 곳이나 기사가 정보통이지
20여 분 달려 내려준 곳은 거대한 성곽 앞
입구서부터 쿵쿵 고막을 울리다 못해
가슴에 대포를 쏘아댄다
번쩍대는 간판 아래 30세 이하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음, 맘에 드는군
산전수전까지는 몰라도 생의
그들은 좀 알아야 한단 말이지
카펫이 깔린 널찍한 계단을 내려가는데 귀가 보챈다
심장은 저 혼자 끁끁대다 말면 그만이지만
고막이 성내는 건 심각한 일
휴지를 말아서 살짝 귀에 넣고 달란다
옛된 조성모가 무대 앞자리로 이끈다
강비트 음악과 함께 겹겹 성문이 열리고
철벽을 배경으로 선 무희는 남자가 제격이다
흰칠한 키에 적당히 근육이 붙은 단단한 몸
완벽하다

오른손 올려 왼손 올려 허리를 돌리고
제자리 뛰기
그의 구렁에 맞춰 굳은 몸이 열린다
취한 오색 별 아래
물결치는 맨몸이 각각
각을 세우고 튕겨질 때 마다 터지는 괴성
덩달아 흠뻑 젖을 무렵 하늘에선
가짜 눈이 내린다
밖엔 폭염주의보가 내리거나 말거나
새로운 성에선 새 시간이 피어난다
키 큰 내 아버지의 등도 따라 년출년출

천면(天眠) 外 2편

박병식

삼십 여 년을 지켜온
석문을 무작스럽게 들이친다
깜짝 놀라 주저앉은 대문 위로
봉우리가 열리기 시작했다.

빛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점점 망자의 저택을 찾는 이 줄고 있다
한 십 년 이십 년 지나고 나면
잡초더미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으리

돌배나무 위에서 놀던 가그머리*
가르르 가그르, 그림 그림 하며
하늘높이 날아가고
기어코 무너진 뒷등위로
칠성판 빼죽 고개를 내밀며
폭석 주저앉는다

가죽으로 둘러싼 육체
흠흠 벗어던지고 남은 뼈대
정강이부터 부슬부슬 기어 나온다

천면의 안식을 위해 헤쳐진 무덤
뼈대로 환생한 주검
한바탕 불춤을 추고 나서야
분골의 날개를 달았다
작은 항아리 관을 통하여 훤히 날고 있다

*가그머리 (때까치, 충남서산방언)

이제 그만 살고 싶어

살아가는 흉터마다 알토랑 같은
알맹이 속 속 내려놓고
빈곤에 겹쳐질 때
홍수가 곱으로 밀려올 때에
더러는 독기품은 생각
던질 수도 있었는데

자신을 태워 방고래를 데우고
한줌 재가 된 빨감같이
옥 같은 육신 다 녹여내고
껍데기만 남아 제자리 맴돌아도
희고 높고 깊은 학이 되어
날개를 피셨던 임이시여

허울뿐인 육신마저
내려놓고 싶은 님이시어
그것은 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장승처럼 보고만 서있는
못난 새끼입니다

고로쇠의 피

피를 뽑는다
단풍나무 수액을 뽑아낸다
전동 드릴로 구멍 뽕 뽕 뚫고
호수 콧 박아 넣고
허연 피를 뽑는다
바람 부는 날이면
단풍나무에 귀를 대고 들어보라
풀무질하는 소리가 들린다
쭈르륵 끄르륵, 숨쉬는 소리 들린다
불가마 속의 열대야를 지나온 몸이다
북서풍에 실려온 시베리아 찬 공기와
싸우며 잉태한 서리꽃 이다
그래도 난 아하!
아가리에 처넣는다

시는 막걸리에서 나온다 外 3편

예외석

말이 한 움큼씩 빠진다
혀와 말이 섞여
뭉텅뭉텅 잡히는 대로 빠진다
밤마다 잔인한 불면으로 몸부림치며
언어의 낚싯대를 드리워본다
소도 아닌 것이 어찌자고
콧등을 활쨌다며 헛바닥을 날름대고 있나
에이, 만 놈의 손아!
시를 써보야 밥이 나오나 돈이 생기나
밤마다 흘레붙는 개처럼 헐떡이며
마른우물 또 파고 비벼댄다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
더 이상 샘물은 솟아나지 않는다
책상 위 원고지를 확 쓸어버리고
막걸리와 풋고추, 된장을 엮어놓는다
겉쫘하게 한 잔 밀어 넣으니
타던 목올대가 젖어들며 해벌쫘 웃는다
시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막걸리 한 잔에 나는 소가 되어
두 눈을 희번쩍거리고 헛바닥으로 코를 훑는다
온갖 잡스런 파리 떼를 쫓아내고
흥겨운 노랫가락으로 발 갈고 씨 뿌린다
어야디야, 어기야디야~

낮선 유리컵

오늘 커피, 크림 한 쌍을 결혼시켰다
신혼부부를 집으로 데려오니
투명하고 맑은 유리컵 하나를 덤으로 준다
기념으로 소주 한 잔 먹이고
검은머리 과 뿌리 될 때까지
한 가족처럼 즐겁게 지내자 다짐해본다
맑고 순수한 그녀를 찬찬히 살피며
진하게 키스 해 본다
스읍~
헉, 가시가 있다
입술이 따끔하고 혀바닥이 아린다
탁자위에 선홍빛 핏방울이 툭툭 떨어지고
내 입은 금방 쥐 잡아먹은 고양이가 된다
이런, 독한 년이 있나
귀통이가 깨져 날을 세우고 있는 그녀
독기를 띠고 나를 파르르 노려보고 있다
커피와 크림의 합방을 질투하는 모양이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녀에게
뜨거운 보리차를 한잔 먹여본다
핏물이 녹아들어 금방 와인으로 변한다

그래, 너의 품격을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해
우린 결국 만나자 이별의 아픔을 겪는구나
쓰레기통으로 가줘야겠어
우린 인연이 아닌 것 같아
그녀는 마지막 몸부림으로 사지를 뒤틀다
쩍~
찢어진 사이로 붉은 핏물이 배어든다
우린 첫날 밤 하나가 된다

내 몸에도 거미줄이 나온다

새벽이 내 어깨 위에 내릴 때
조용히 발걸음을 죽이며
담배연기는 산산이 흩어진다
뻗으면 뻗을수록 공허함만이
텅 빈 가슴을 더욱 허전하게 한다
소멸하기 싫은 것들조차
소나무 잎 사이 스며들다 녹는다
어제 본 그 암거미
오늘 또 내 앞을 지나간다
딸깍발이 소리내며 걷는 긴 다리가
바닷가의 돌고래같이 매끈하다
나도 그녀 앞에서는 거미가 된다
내 몸에서도 거미줄이 나온다
그 거미줄에 암거미가 걸린다
간혹 그녀와 궁둥이를 맞대며
거미줄을 섞는다
둘이 몸부림 칠 때마다
거미줄은 마닐라 로프가 된다
그 거미줄에 작은 거미가 오르내린다

우리가 만든 거미줄에
우리가 뽕뽕 묶이고 만다
때가 되면 작은 거미도
줄을 치고 암거미를 찾는다
내 몸에서 더 이상 거미줄이 나오지 않으면
콧구멍과 입에서 가글가글
하얀 솜털만 토해낸다
흰 솜털을 토해내고도 콧구멍은 노래진다
거미는 늙으면 염소가 된다

보이지 다방

보통보통 앞에 가는 차
조그만 소형 티코 뒤에
커다랗게 붙여놓은 이름
보이지 다방*
사천에 가면 보이지 다방이 있다
보인다 보여, 허연 다리가 보인다
사천에 가면 허연 다리가 있다
그 가랑이 사이로 째진 물이 흐른다
잠자리 날개 허리에 두른 오봉 순이가
허연 다리를 내놓고
보통보통 허벌나게 달린다
스포츠 머리도 오빠,
허열게 센 머리도 오빠
오봉 순이는 오빠가 많다
처음엔 이가 하나 빠져 있었다
마나님들 성화에 못 이겨
동네 아바이들이 이를 하나 해 넣었다

사천의 명물

보

이

지 다방

순이는 화장기 짙은 얼굴로 웃음 짓지만

그 옛된 얼굴엔 눈물자국이 보인다

*경남 사천에 있는 다방 이름

탈속(脫俗) 外 2편

정정선

누더기를 모두 벗었다
핸드폰도 벗었다

샤워기의 뜨거운 물은
지도처럼 펼쳐진 가는 실핏줄을 빠르게 회전시키고
따뜻한 온탕에 들어앉아 편안한 사색에 잠기니,
속세를 떠났다

한증막에서 즐줄 흐르는 땀은
속세의 모든 시름을 싣고 내로 흐른 후 바다로 흘러가고
냉탕에 풍덩 뛰어드니 물벼락이 등짝을 후려쳐 정신이 번쩍나고
물폭포를 맞으니 열심히 살라고 죽비가 머리를 내리친다

44도의 열탕에 육신을 서서히 담가
묵은 때를 퉁퉁하게 불러준다
악행의 덩어리인 묵은 때는 짹짹 벗겨내어 떼어버리니
크리스탈처럼 시원하고 투명해진다

머리를 감아 씻은 가지처럼 종종 매달려 있던 악연들을
때국물 샴푸와 함께 떼내려 보내고
몸에 오일을 문지르니 옥돌 같은 매끄러움으로
새 삶을 감싸 안는다

다시금 누더기를 걸치고
핸드폰을 걸치고
구르는 차바퀴처럼 속세로 향하니
나는 몸도 마음도 새로 태어난 여인

꽃망울

그대는 막 붕긋붕긋 터지려 해
꽃의 입 벌림처럼 툭툭 불거진 그대는
너무도 부끄러워
그 터져오름을 안으로 안으로 감싸쥐며
꽃으로 피어나기를 애써 누르고 있네

모두 보여지면 이젠 매력 없어
모두 열려지면 금방 버림 당해

그대의 그 모습
꽃보다 더 수줍은 꽃

마치 첫사랑 연인에게
처음으로 가슴 열어
애써 조금씩 보여주는
숫처녀의 분홍빛 젓꼭지 같구나

순천댁 밍키

언제나 꼬리를 흔드는 순천댁 밍키
예쁜 옷과 신발, 머리뿔도 꽂은 밍키
희고 얼룩 점배기 털이 고운 밍키
푹신한 소파에서 주인에게 안겨 잠자는 밍키

그러나 가차없이 욕설과 얻어맞기도 하는 밍키
오줌을 지리는 밍키
눈치를 보며 눈자위를 하얗게 파는 밍키
도망칠까 생각도 했어 한탄도 했어
떨구었던 고개를 들어 파란하늘을 올려다보는 밍키

오늘도 주인에게 꼬리를 흔들며 반기는
우리의 순천댁 밍키밍키밍키!!!

그림자 놀이

조인숙

당신 나한테 왜 이러는거야 해를 향해 소리치니
그림자는 민망해서 뒤로 숨는다

피이 대꾸도 안해주네 빠져서 돌아서니
그림자가 먼저 반긴다

사는게 어지럽다 주저 앉으니
그림자도 나와 함께 주저앉아 시무룩하다

이러면 안되지 벌떡 일어서니
그림자도 따라서 일어난다
어디를 가든지 같이 해주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고

그래 너는 내가 믿는다
너를 두고 내가 왜 슬퍼하지
너를 두고 내가 왜 외로워하지
터덜터덜 걸어가니 그림자도 흔들린다
작은 내 안의 그림자도 출렁인다

|| 동시 ||

발자국 外 1편

조무호

강가에 사는
꼬마물떼새는 참 좋겠다

엄마 없이
나들이 가도 걱정 없겠어

집에 올 때
모래톱에 꼭 꼭 찍은 화살표
따라오면 되잖아

산새는 어떡하느냐고?

그건, 잘 모르겠어
아직 길 못 찾았다는 얘기
들은 적 없거든

염소

한 날 한 배에서
나온 놈끼리
원수도 아니면서
토닥토닥 치고받는다.
팔려가는 시장까지 나와서
치고받는다.
그래야, 훗날
외나무다리에서 다시 만나도
뿔 한 번 툭 치면 단박
알아본다고
어미는 물끄러미 보고만 있다.

< 약력 >

부산아동문학 신인상(동시)
어린이동산 중편동화 당선(동화)
문예지발표 우수작품상 받음(2007년 3차, 동시)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부 졸업
인제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재학

|| 동시 ||

클로버

조인숙

세 잎 행복이
네 잎 행운이
행운이를 뽑았더니
행복이가 쫓로록
따라올라 왔어요

행운이와 행복이는
한 몸
한 마음
책 갈피에 행운이를 꽃아놓구
책 갈피에 행복이를 꽃아놓구
나 대신 공부시켜요

학생문단 | 소설

정혜련

예외석

소설

명동 주민센터를 찾아가다

정혜련

명동역 삼 번 출구를 올라다본다. 상체를 곧추 세운 계단이 가파르게 걸려 있다. 흙, 계단은 지상에서 내려온 사다리가 아닐까. 허리를 구부린 너는 차양처럼 걸린 출구 끝 하늘을 내다본다. 새삼 마음이 급해 걸음을 서두른다. 계단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몰려온 것이다. 가쁜 숨을 할딱이는 너는 물 속으로 가라앉지 않으려 한사코 자맥질을 하는 것 같다. 명동역 삼 번 출구를 통해 학교를 오가기 시작한 올 봄부터 줄곧 그랬다. 날마다 계단을 오르다 보면 마침내 지상에 발을 디딜 날이 올 것이다. 너는 땅을 딛고 선 그림자가 보고 싶다. 그림자를 획득해야 비로소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너의 소망이자 위안이며 자기 암시다.

마지막 계단을 오르자 성급한 마음 먼저 백 미터 앞 명동 주민센터로 달려간다. 너는 J와 한 집에서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그의 아내가 되어 주민등록등본에 오르고 싶다. 그것은 너의 존재를 증명하는 그림자다. 주민센터를 찾아가 그에게 너를 묶어야 비로소 지상에 발을 붙이게 될 것이다. 그런 날을 고대하며 턱 끝까지 차 오른 숨을 고른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입 안 가득 박하사탕을 문 듯 싸하고 청량한 맛이 빨려든다. 날숨을 쉴 때는 아, 하고 탄성이 터진다. 무사

히 출구를 나섰다는 안도감이 밀려온 것이다. 다시 가슴을 열자 남산골을 타고 온 바람이 폐부로 쏟아진다. 그것은 습기 건조제인 투명한 실리카겔 알갱이 같다. 음습한 구석에서 수분을 빨아내는 그것. 계단 아래를 굽어본다. 콧잔등이 시큰하다. 실리카겔이 필요했던 지난 시간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명동역 삼 번 출구를 나서면서부터다. 서른 해 생의 출구 앞에 선 듯 굳게 입술을 사려 본다.

둘둘 치킨이 있는 왼편 길을 따라 걷는 너는 전에 없이 걸음이 가볍다. 하이트 광장을 돌아서면 명동 주민센터와 관내도, 목멱골 실내 포장마차와 희영 부동산 사무소가 나올 차례다. 그 위 인쇄소에서 학교에 닿는 길 양편에 도열한 가게들까지 눈앞으로 달려온다. 하이트 광장을 돌아선다. 주민센터 앞에는 순찰차가 한 대 서 있다. 경찰관들이 주민센터 출입문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다. 파출소가 있었나 봐. 가방 속의 것이 떠올라 일순, 손뼉이라도 칠 듯 반갑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서나 파출소에 들러야 할 일이 있다. 너는 교통위반사실 통지서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들고 가 네 이름으로 된 고지서를 새로 발급 받아야 한다. 위반사실 통지서는 차량 소유주인 J 앞으로 날아왔지만 운전한 사람은 너다. J의 면허증에 어떤 별점이 오르게 할 수 없다. 잠깐 들러 일을 처리하려 했지만 곧장 지나친다. 벌써 강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너는 고등학교 졸업 십 년 만에 대학에 진학했다. 학생들 나이는 스무 살부터 한두 살 더 먹었거나 많아봤자 스물너덧이다. 막 메이크업을 시작한 화사한 얼굴들이 떠오른다. 입학 후 얼마간 너는 그들 앞에 지친 얼굴을 들이미는 것이 쑥스러웠다. 위아래로 옷매무새를 살핀다. 너는 주름이 선 정장 바지 위에 체크무늬 남방셔츠를 입고 있다. 캐주얼도 반듯한 직장인 냄새도 나지 않는 옷차림이 어색하다. 눈두덩이며 얼굴이 묵직하다. 학교로 들어서며 손가락을 깎지 낀 채 팔을 쪽 뺀어 올린다. 목을 좌우로 돌리다 뒤로 젖히기도 한다. 강의실로 들어설 때는 한결 몸이 가볍다. 자리를 잡자 새삼 대학에 왔다는 감격이 밀려온다. 스무 살부터 시작한 직장 생활은 지루했다. 돈을 모아 대학에 가려면 직장을 그만 둘 수도 없었다. 정작 대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일이었다. 너는 책 위로 오버랩 되는 지난 시간을 반추해 본다.

겨울이 끝날 무렵, 너는 속수무책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신입생 등록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하늘에서 돈이라도 푹 떨어졌으면 좋겠어. 절박한 나머지 J 앞에서 뉘두리를 늘어놓았다. 직접적인 도움 요청은 아니었다. 다음날, 온라인으로 돈을 넣었다는 연락이 왔다. 통장에는 정말 등록금에 해당하는 돈이 입금되어 있었다. 오래 전부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듯 자태가 의젓했다. 너는 숫자 뒤에 줄줄이 따라붙은 동그라미를 헤아리고 또 헤아렸다. 통장을 가슴에 꼭 안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일이 별 것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

기실,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게 아니었다. 돈도 돈이었지만 너에게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줄 관계가 필요했다. 사람들이 얽히고설킨 관계의 틈바구니에서 진저리를 치는 것이 부러웠다. 부모형제가 없는 너는 허허벌판 위의 집 같았다. 조금만 바람이 사나워도 우두둑 벽이 뜯기고 종래, 허술한 서까래까지 쑥 뽑힐 듯 위태로웠다. 집을 에워싸 줄 울타리가 절실했다. 나이 삼십이면 남편에다 어린 자식 한둘은 있을만한 나이였다. 시댁이며 주변으로 뻗어나간 문어발 같은 관계 때문에 두통을 앓을 수 있었다. 때로는 그걸 핑계로 가벼운 탈선도 꿈꿀 수 있는 일이었다. 한번 관계에서 밀려나면 영영 돌이킬 수 없는 법이었다. 너는 스스로의 운명을 진단하는데 익숙했다.

“차라리 날 사라고 광고라도 내고 싶어. 그럼 누가 살까?”

네 말을 농담으로 여겼던지 J가 가볍게 실소했다. 하지만 안쓰러운 나머지 이내 표정이 심각해졌다. 너는 자신을 광고에 내볼까 고민한 적도 있었다. 신문을 읽고 난 뒤부터였다. 결혼 정보 회사에 가입한 회원에 대한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그들 중에는 결혼상대로 카드빚을 해결해주거나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을 찾는 여성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 나이가 많거나 재취 자리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솔깃했다. 너는 평생 끊어지지 않을 관계만 맺을 수 있다면 누구라도 좋다는 글귀를 등에 써 붙이고 싶었다. 그런 과격적인 조건으로 결혼 정보회사에 회원 등록을 할 용의도 있었다. J에게서 연락이 왔다.

“당분간이라도 내 집에 와 있으면 어때?”

J의 집은 단출했다. 방이 셋인 아파트는 둘이 살기에 충분히 넓었다. 너는 이끌리듯 거실 가운데로 갔다. 벽에는 눈을 인 침엽수림이 배경인 사진이 걸려 있었다. J 부부가 남매를 데리고 외국 여행이라도 갔던 모양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어깨와 허리를 껴안고 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너는 작게 움츠러들었다. 광대뼈가 푹 볼거진 J의 아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하지만 집안에는 그들 중 누구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니 묻지 않았다. 궁금해 하지도 않았다. 중요한 것은 현재였다. 너는 곧 사진을 무시했다. 오롯이 방 하나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좋았다. 너는 살던 집의 보증금을 올려주지 못해 당장 집을 비워야 할 형편이었다. 더구나 학교에 다니려면 집의 보증금이라도 쏙쏙 빼먹어야 할 처지였다. 일단 J에게 기생하기로 했다. 너는 변화 없이 지긋지긋하게 살다 이사를 한 것 같았다. 막 집안 배치를 끝낸 주부처럼 기본이 새로웠다.

저녁이면 너는 방에 틀어박혀서 과제를 했다. 일찍 퇴근한 날이면 J는 슬그머니 고개를 들이밀었다. 멧쩍게 웃는 그의 얼굴에는 적적함과 우울한 빛이 어려 있었다. 그런 날이면 함께 술을 마셨다. 취기가 돌기 시작하면 J는 급속도로 눈빛이 풀려 너를 끌어당겼다. 포박을 풀고 나왔지만 곧 돌아가야 하는 사람처럼 몹시 서둘렀다. 그는 난폭하면서도 알뜰도록 부드럽게 몸을 움직였다. 마침내 턱 끝까지 숨이 차오르자 얼굴이 일그러지며 이를 악물었다. 시원으로 거슬러 오르려는 자맥질 끝에 마침내 탄성이 터졌다. 순간, 눈앞이 하얘졌다. 멧었던 호흡이 가까스로 살아난 J가 가쁜 숨을 할딱였다. 숨을 고른 그가 곧 낮게 코를 골기 시작했다. 다시 네 방으로 돌아왔다. 그새 노트북 화면이 까맣게 죽어 있었다. 마우스를 흔들자 창이 살아났다. 그것이 아내를 기다리다 지쳐 똥아떨어졌던 남편처럼 게슴츠레하지만 날카롭게 너를 쏘아보았다. 너는 내일 제출할 소설을 쓰느라 늦은 시간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하나하나 소설 속 인물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동안 가파르게 고통이 몰려왔다 스러지곤 했다.

너는 십 년 전에 대학에 갔어야 했다. 하지만 뒤를 밀어 줄 부모가 없어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 세상을 떠났고 새로 연애를 시작한 엄마는 거울 앞에 앉아 콧노래를 부르기 바빴다. 입

시생인 너보다 귀가가 늦어 야식은 기대조차 할 수 없었다. 대학 이야기를 꺼내자 무슨 이야긴지 모르겠다는 듯 엄마는 마스크라 질게 바른 눈을 깜빡였다. 너는 학비와 밥을 동시에 해결할 자신이 없었다. 우선 몇 년 착실하게 돈을 모으리라 마음먹었다. 그러나 가파르게 치솟는 방 값을 쫓아가느라 늘 숨이 가빴다. 대학에 가려는 계획이 한 해 두 해 밀리기 시작한 게 벌써 여러 해 짜였다. 더는 미룰 수 없어 시험에 응시했지만 앞이 막막했다. 학교에 다니기 위해 직장까지 그만둔 너는 급기야 하늘에서 돈이라도 떨어지기를 바랐다.

지난해 여름이 끝날 무렵, 은행에 갔다 J를 다시 만났다. 송금 하러 왔다는 그가 벌써 오소소 떨고 있었다. 네가 J를 만난 건 첫 직장이었던 중소기업에서였다. 이미 결혼한 걸 알면서도 그에게로 향하는 마음을 멈출 수 없었다. 무모한 짓인 걸 알고 회사를 떠난 몇 해 사이 그가 직접 경영을 맡았다고 했다. 간혹 너는 J의 아내를 선망하던 옛 기억을 손바닥에 올려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달랑 사진 한 장 남겨놓은 그녀를 간단히 잊었다.

강의실에 앉아있는 너의 입가에서 시종 미소가 떠날 줄 몰랐다. 교단에 선 강사가 학생들의 소설을 총평하고 있었다. 결국 소설의 지향점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세상의 관계 탐구에 있습니다. 너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눈물을 참느라 연신 눈을 깜빡였다. 강사의 말이 경전인양 곱다시 가슴에 와 박혔다. 기분이 흐뭇했다. 혼자 엉뚱한 길에서 헤매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안도가 몰려왔다.

Y와 K가 네 팔을 쥘다. 강의가 끝나고 하교하는 길이었다. 그들도 직장에 다니다 대학에 입학했다. 대여섯 살 아래의 두 처녀를 거느리고 걷는 너는 기분이 좋았다. 그럴 때면 어느 길모퉁이에 흘렸는지 모를 지난 시절을 환불받는 것 같았다. 인쇄소와 부동산 사무소와 실내포장마차 아래의 주민센터를 지나 하이트 광장으로 들어섰다.

어차피 나아 간판인데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다른 과로 갈 걸. K가 담배를 꺼내 물었다. 너는 또 K 손가락에서 빛나는 반지에 눈을 빼앗겼다. K는 맞선을 볼 때마다 번번이 학벌이 문제가 되었다고 했다. 대학 진학을 권한 것은 지금 만나는 남자였다. 재학 중인 내년쯤 결혼을 하면 누가 문제 삼겠냐고 했다는 것이다. 학벌이든 집안이든

상대편이 원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심정이 새삼 압정처럼 가슴에 촘촘히 들어와 박혔다. K가 다행스러워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 남자가 주었다는 반지를 보며 엄지손가락으로 빈 약지를 만지작거렸다. 너도 반지를 끼고 싶었다. 싸구려 구리 반지라도 상관없었다.

“애가 없으니까 학교 끝나자마자 금방 달려가는 부담은 없겠다. 근데 언니는 일부러 애 안 가진 거야?”

Y가 눈을 빛냈다. 너는 입 꼬리를 추켜올릴 뿐이었다. Y가 채 비지 않은 너의 잔이 넘도록 술을 따랐다. 공연한 걸 물었다는 난처함 때문이었다. 네가 Y에게 대학에 왜 왔냐고 물었지만 대답 대신 잔을 들었다. 너도 성급하게 잔을 비웠다. 가끔씩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기도 했다. 그러자 Y와 K가 아줌마 표 그만 내라며 핀잔을 주었다. 너는 멧쩍게 웃었다. 정말 아줌마 표 낸 게 미안한 듯 매번 웃음으로 순간을 모면하곤 했다. Y와 K는 술이 들어갈수록 더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다. 바닥이 새는 배에 앉아 끊임없이 물을 퍼내는 노역에 시달리는 것 같았다. 내부의 균형을 유지해 침몰하지 않으려는 필사의 몸부림이었다. 언니, 형부 불러서 같이 마시자. 어떤 분인지 궁금한데 얼굴 한번 보자. 누군가 그런 소리도 했다. 대꾸는 않고 너는 허둥지둥 가방을 찾아 둘러봤다. 가야겠다고, 곧 그 사람 돌아올 시간이라는 너는 몹시 다급해 보였다. 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이트 광장을 빠져 나왔다. Y와 K가 너를 붙잡을 틈도 없었다.

명동역 부근에는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들고 있었다. 명동역 삼 번 출구에서도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너는 팔을 번쩍 들었다. J가 돌아왔을지도 모른다는 초조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가끔은 지하철을 타고 싶지 않았다. 지하철을 타고 있으면 문득 생이 영영 땅속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다. 너는 지상에서 생활하고 싶었다. J의 집은 네게 지상이었다. 너는 그의 집에서 살지만 아직 지상으로 올라서지 못했다. 주민센터를 찾아가야 했다. 그래야 비로소 그림자를 획득할 수 있었다. 가끔은 아습푸레한 잠결에 기척을 느낄 때도 있지만 J는 대부분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술이나 친구뿐 아니라 운동에도 썩 취미가 없었다. 식사는 밖에서 해결하지만 네가 늦은 저녁을 먹고 있으면 맞은편에 앉기도 했다. 그는 소박한 밥상을

신기하게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몇 끼 굶은 사람처럼 손가락을 들고 허겁지겁 달려들었다. 슬기운이 오른 너의 머릿속에 그런 J가 떠올랐다. 택시 요금을 내기 위해 지갑을 꺼냈다. 부피가 두툼했다. J는 지갑이 가벼워질 무렵이면 알아서 용돈을 챙겨주었다. 시간을 쪼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던 각오가 사라진지 오래였다.

J의 집은 침실과 서재와 너의 방으로 용도가 나눠져 있었다. 일찍 퇴근한 J가 좀처럼 서재에서 나올 줄 몰랐다. 너는 서재에는 발을 들이지 않았다. 주로 문이 닫혀 있지만 어쩌다 조금 벌어진 틈 사이로 언뜻 얇은 모니터가 보였다. 그것이 눈을 부릅뜨고 집안을 내다보는 것 같았다. 주의를 받은 적은 없지만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곳은 네가 알지 못하는 세상과 J가 교신하는 곳이었다.

그 사이, 너는 냉장고를 뒤졌다. 감자와 양파를 넣고 된장찌개를 끓일 참이었다. 두부가 있으면 마지막에 송송 썰어 넣는 것도 좋았다. 그것이야말로 네 서른 해 신산한 삶의 진실을 아는 유일한 친구이며 증인이었다. 된장이 떨어져 지갑을 들고 나섰다. 때마침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매번 즐거움과 낯선 기분이 교차했다. 언덕길과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는 그림 하나가 눈앞으로 나섰다. 숨을 할딱이는 모습이 선연했다. J의 집으로 오기 전까지 너는 그 길을 통해 세상을 오갔다. 눈을 감으며 도리질을 했다. 위층에 사는 성실은 여자가 말을 건넸다.

“아저씨 혼자 사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젊고 이쁜 부인이 있었네요. 난 십일 층에 사는데 언제 우리 집에 놀러 와요.”

너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엘리베이터가 아홉 개 층을 내려오는 동안 너는 여자의 질문에 꼬박꼬박 대답했다. 아직 애를 안 낳아서 그런지 처녀라고 해도 믿겠어요. 부러워하면서도 여자는 걱정 또한 숨기지 않았다. 너는 그런 문제로 마음을 다치지 않았으며 위로에 대한 감사 표시로 밝은 표정을 지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여자가 다시 한 번 놀러 오라고 했다. 너는 여자 뒤에 대고 또 고개를 숙였다.

집에 돌아올 때까지 서재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시시각각 시장기가 몰려왔다. 곧 허리가 꺾일 것 같았다. 냄비에서 김이 올랐다. 멸치를 건져내고 준비된 재료를 넣었다. 시장기가 심한 탓인지 된장 냄새

에 속이 울렁거렸다. 냉장고에 있던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찌개를 폈다. 설익은 감자를 먹더라도 하는 수 없었다. 저녁을 먹는 네 앞에 J가 와 앉았다.

“이렇게 먹고 어떻게 공부를 하겠다는 거야.”

몽클 북받치는 덩어리를 누르며 계속 밥을 먹었다. J가 팔을 뻗어 밥과 된장찌개를 떠먹기 시작했다. 변변한 반찬 하나 없이 저녁을 먹는 풍경이 가난한 삶을 꾸리지만 의좋은 부부 같은 생각이 들었다. 웃음이 비어져 나왔다. J 역시 즐거워 보였다. 더 이상 J가 식당을 찾아 전전하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는 식당에서 먹는 것만큼 다양한 반찬을 만들 자신은 없었다. 빈약한 식탁을 준비하더라도 저녁 한 끼 정도는 직접 지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내일부터 저녁 지어 놓을게요.”

그럴 것까지 없다고 하면서도 J는 심긋 웃었다. 너는 고개를 숙였다. 얼굴이 달아올라 그를 똑바로 볼 수 없었다.

그때, 거실과 침실과 서재에서 전화벨이 울었다. J가 서재 문을 닫고 들어갔다. 전화만 오면 그랬다. 꽤념치 않았다. 문을 닫고 통화할 일이라면 의당 그래야 했다. 손가락을 내렸다. 통화는 좀처럼 끝날 줄 몰랐다. 너는 J가 나올 때까지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막상 식탁으로 돌아온 그가 너를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손에 우편물이 들려 있었다.

“참, 사진이 두 장 왔더군.”

너는 무슨 뜻이냐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J는 내가 출장 가고 없을 때 차를 몰고 나갔냐고 물었다. 첫 새벽이라고 마구 달려 과속 방지용 카메라에 찍힌 모양이라고 했다. 위반사실 통지서에는 자동차 번호판이 찍힌 사진과 함께 위반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다. 너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게 좋았다. 네가 운전면허를 딴 건 중소기업을 떠나 새로 얻은 직장에서였다. 어쩌다 술 먹은 동료 대신한 적은 있지만 크게 소용달을 일은 없었다. 그때만 해도 운전의 재미를 알지 못했다. 네가 본격적으로 운전에 재미를 붙인 건 이태 전쯤이었다. 비로소 제대로 된 인연을 만났다고 생각했던 때였다. 주말이면 그와 교대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훌쩍 도시를 빠져나갔다. 그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어엿한 관계로 이어질 무렵, 너는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쳤다. 브레이크가 과열

되어 멈출 수 없는 자동차처럼 속수무책이었다. 그의 집안에서 초라한 집안이며 학벌을 문제 삼아 결혼을 반대하고 나섰다. 너를 얹어놓고 그의 어머니가 오금을 박았다. 내 아들과 결혼은 안 된다고 했다. 감히 그런 꿈을 꾸다니 어이없다며 콧방귀를 끼었다. 꿈지 빠진 닭이 차라리 너보다 낫다고도 했다. 너는 아직도 그때의 쾌감을 잊을 수 없었다. 빠른 속도로 네 삶을 새로운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은 흥분이 떠날 줄 몰랐다. 가끔은 길가에 세워놓은 자동차를 보면 발작을 일으킬 것 같았다. 아무거나 골라 타고 냅다 달리고 싶은 충동이 몸을 들쭉시키기도 했다.

며칠 후 과태료 납부 고지서가 왔다. 위반사실 통지서와 함께 가방에 챙겨 넣고 학교로 가는 길이었다. 지하철 사 호선 명동역 삼 번 출구를 나섰다. 너는 관성에 따라 들들 치킨과 하이트 광장 쪽으로 붙어서 걸었다. 곧 명동 주민센터와 관내도, 그 위로 실내포장마차와 부동산 사무소가 나올 차례였다. 하이트 광장을 돌아서던 너는 순찰차와 경관을 보았다. 파출소에서 봐야 할 용무를 기억했지만 걸음을 재촉했다. 어느새 기말 고사가 다가오고 있었고 소설 두 편을 제출해야 하는 너는 정신을 차리기 어려웠다.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를 붙드는 일에 너는 더욱 집요하게 매달렸다. 부모 자식 간부터 그간 놓쳐버린 관계 하나까지 소상히 따져야 했다. 때로는 증주먹을 들이댔다. 뒷목에서 통증이 끊이지 않았다. 너는 J의 저녁밥을 짓고 강의 시간에 맞춰 학교를 오갔다. 그렇지만 너는 어느 장소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현실의 장소에는 나무 등걸 같은 몸만 남아 있었다. 정신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표표히 떠나고 없었다.

저녁 찬거리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온다. 너는 몸의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 피곤할수록 더욱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다. 저녁밥을 짓기 위해 앞치마부터 차려 입는다. 그것은 네 존재를 증명하는 물건이다. J의 저녁밥을 짓기 시작하면서 아기자기한 꽃무늬가 내려앉은 앞치마를 입었다. 너는 네가 아는 몇 가지의 요리법을 동원해 저녁을 준비한다. 곧 J가 부리나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것이다. 그는 준비가 덜 끝난 걸 보고도 성마른 채근을 하리라. 네 얼굴로 열고 부드러운 웃음

기가 변진다. 반찬 그릇의 크기와 모양을 조화시켜 식탁을 꾸민다. 식사에 곁들일 술도 마련되어 있다. 가파르게 치닫고 타이트하게 조인 호흡을 편안하게 풀어주는 데는 술만큼 요긴한 것도 없다. 아직은 단단히 부여잡은 시간을 놓아도 좋을 때는 아니다. 그래도 느닷없이 그만한 여유를 부려보고 싶다. 소설 공부를 하고 싶어 대학에 입학했지만 너는 점점 힘에 겹다. 너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는다. 밖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전자음이 들린다. 마지막으로 가지런히 수저를 놓고 재빨리 현관으로 달려간다. J가 손잡이를 당기지만 문은 열리지 않는다. 시장기를 못 견뎌 성급해진 게 틀림없다. 네가 안에서 문을 연다.

J는 몹시 지쳐 있다. 네가 근심스러워하자 종일 숨 쉴 틈 없이 바빴다고 한다. 그가 샤워를 하는 사이, 속옷을 챙기러 안방으로 들어간다. 서랍의 속옷은 일정한 모양대로 접혀 흐트러짐이 없다. 그걸 들여다보는 너는 흡족하다. 처음 얼마간 서랍에는 접힌 모양이 다른 속옷이 섞여 있었다. 다행히 J는 그리 고집스러운 사람이 아니었다. 한 사람이 손을 들자 서랍에는 순식간에 평화와 질서가 찾아왔다. 욕실 문이 열리고서야 러닝셔츠와 팬티를 꺼낸다. 정신을 놓고 있던 너는 부리나케 부엌으로 달려간다.

식탁에 와 앉은 J는 유심히 술병을 바라보더니 잔부터 채운다. 변변찮은 반찬에도 달게 밥을 먹던 그가 별일이다. 숟가락은 찌개 냄비로만 들락거린다. J가 전 같지 않지만 너는 입을 열지 않는다.

“당분간 어디 가 있을만한 곳 없겠니? 당분간이면 돼.”

너는 눈을 치켜 나 말인가요, 하고 묻는다. J가 눈을 깜빡이며 그렇다고 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 묻지 않는다. 너에게는 당장 갈 곳이 없다. J는 술만 따라 마신다. 너는 소리 죽여 밥을 먹는다. 술도 좀 마실 생각이었지만 썩 손이 가지 않는다. J가 한 말의 연유를 따질 용기가 없다. 대신 가야한다면 어디로 가야할지 생각하는 게 더 급하다. 너에게는 당분간 신세를 질만한 친구도 없다. 잠깐 엄마를 떠올려 보지만 역시 가 있을 곳은 아니다. 벌써 십여 년 전에 엄마는 새로운 관계를 찾아 떠난 사람이다. 재혼을 하며 곧 품에서 불거져나갈 딸자식에게 배신당하기 싫다고 했다. 너는 엄마가 남겨놓은 게 뭔지 뒤지기 시작한다. 기억 속은 텅 빈 상자처럼 도통 팔려 나오는 게 없다. J의

집으로 들어올 때 어디로 가기에 짐을 맡기냐고 하던 모습만이 또렷하다.

“딱 한 달이야. 한 달이면 돼.”

한 달이라는 말에 J는 힘을 준다. 그는 벌써 그 다음 시간을 내다보고 있다. 그 한 달이 지나면 다시 평화로운 안식처가 제공된다는 뜻일 것이다. 너를 뺀히 들여다보며 안심시키려 애쓴다. 그래도 너는 왜 그래야 하는지 묻지 않는다.

“곧 여름 방학이라서 집사람과 애들이 들어와. 아이들이 캐나다에서 학골 다니고 있거든. 당분간만 어디 가 있어.”

J는 기러기 아빠였구나. 너는 그제야 애초에 당분간이라도 내 집과 있겠냐고 했던 말뜻을 납득한다. J의 말은 거짓 없이 정직한 것이었음도 깨닫는다. 한데도 너는 당분간이란 말을 무시했다. J는 가족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너는 그들의 부재 상황을 묻지 않고 멋대로 해석해버린 것이다. 조금 웃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한다.

“집사람이랑 애들 돌아가고 나면 다시 와. 어차피 너도 집이며 생활비를 해결해야 하잖아.”

네 눈을 붙든 J가 좀처럼 물러서지 않는다. 너는 네게 필요한 것과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비교해 본다. 이제와 보니 그가 내민 계약서의 내용도 모르고 서명부터 했던 걸 깨닫는다. 또다시 계약서를 받아든 너는 비로소 내용을 읽기 시작한다.

전화벨이 운다. 술 타인지 J가 조금 비틀댄다. 통화는 길지 않다. J가 외출 준비를 하고 나선다. 급히 만날 사람이 있다고 한다. 집을 나서려다 말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자지 말라는 그의 눈빛이 촉촉하다. 문 닫히는 소리에 맞춰 너는 거센 물살을 가르며 허적허적 방으로 들어간다. 너는 J의 집에서 그와 함께 살고 싶다. 그렇지만, 그건 딱히 J가 아니어도 좋다. 함께 살 수만 있다면 누구든 상관없다. 우선 노트 북부터 챙긴다. 여행 가방에 옷가지며 책과 몇 가지 화장품을 차곡차곡 넣는다. 너는 고개를 흔들다. J의 한마디에 나자빠져 산산조각 난 꿈이 보이는 듯하다. 사방으로 튕겨나간 파편에 찢린 상처에서는 피가 흐를 것이다. 너는 또 한 번 두 눈 번연히 뜬 채 사람의 관계에서 밀려난 것을 깨닫는다. 가방이 닫히지 않아 내용물을 꺾꺾 누른다. 너는

그 속에 냇두리와 서러움까지 차곡차곡 챙겨 넣는다. 노트북 가방을 어깨에 멘다. 여행 가방을 끌고 방을 나선다.

손도장을 찍듯 길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다. 맨 꼭대기에 있던 엘리베이터가 십일 층에 멈췄다가 네 앞에 당도한다. 안에 있던 여자가 너와 가방을 번갈아 본다.

“부부 싸움을 했거든요.”

여자가 다 안다며 웃는다. 입을 가려도 손가락 사이로 하얀 국수 같은 웃음이 몇 가닥 빠진다. 살다 보면 별 일 다 있다는 위로도 잊지 않는다. 여자가 곧 돌아오라고 할 때는 다시 한 번 절망이 몰려온다. 현기증이 일어 주저앉을 것 같다. 그리고 보면 때로 보이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허황된 것이란 생각을 한다. 네가 믿으려 안간힘 썼던 것들도 다 부질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빈약한 음식으로 식탁을 차리던 순간만큼은 너는 J의 아내였다고 믿고 싶다. 일 층까지 다다르는 건 참 순식간이다. 한 층 한 층 숫자가 바뀔 때마다 매번 딜리트(Delete) 키를 누르듯 J와의 관계를 지워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기억이 말끔해지기를 바란다. 너는 닫힌 엘리베이터 문을 그리운 추억인 듯 돌아본다. 다시 돌아선 너는 무수한 게임 오버에도 불구하고 재실행 명령을 받아 말짱하고 기운찬 얼굴로 스타트 라인에 선 전자게임의 캐릭터 같다. 여행 가방의 바퀴 소리가 투덜거리는 소리처럼 네 뒤를 따른다. 아랑곳하지 않고 또박또박 걷다 뒤돌아본다. 밤하늘을 향해 우람하게 솟은 J의 아파트가 낮설다. 너는 너도 모르게 진저리를 친다. 지난 몇 달간 저곳에서 살긴 살았던 걸까.

기말 시험을 끝내고 강의실에서 나가는 길이다. 오늘도 집에 안 들어가? Y가 목소리를 낮춘다. 너는 Y를 찾아가 신세를 지고 있다. 며칠이라고 했지만 그 며칠이 지나도 너는 돌아갈 곳이 없다. 새삼 모래성처럼 가슴 한 귀퉁이가 뭉텅 허물어진다. J와의 관계를 고정시켜 줄 혈거운 나사못 하나 없다는 생각을 하면 한숨이 난다. 한 달씩 Y에게 신세를 질 수는 없다. 그러니 그 뒤를 상상하기는 더욱 막연하다.

K가 너와 Y에게 둘둘 치킨에 가자고 한다. 풀이 죽어 실컷 맥주나 마시고 싶다는 것이다. 부동산 사무소와 실내포장마차까지 다다른다.

한 학기 동안 오르내리던 길 양편 가게들이 정겨워 주위를 둘러본다. 이제 파출소만 지나면 하이트 광장과 돌돌 치킨이 나올 차례다. 파출소 앞을 지나기 직전, 걸음을 멈춘다. 미뤄두었던 일이 생각난 것이다. 너는 가방을 뒤져 교통위반사실 통지서를 꺼내들고 Y와 K에게 양해를 구한다.

“언니, 파출소가 어디 있다는 거야?”

네가 앞장서서 여남은 개 계단을 뛰어오른다. 다시는 소용 닿지 않을 줄 알았던 운전면허에 벌점이 올라간다는 사실에 잠깐 코가 맵다. 그것이 지난 생의 왕성한 증거 같아서다. 벌금이든 벌점이든 미쁜 마음으로 받을 준비를 한 너는 파출소의 출입문을 민다. 출입문 앞에는 경관이 보이지 않는다. 안에서도 제복은 찾아볼 수 없다. 생소한 파출소 풍경과 맞닥뜨린 너는 고개를 가웃거린다. 와이셔츠 차림의 얼굴들이 각자의 책상 위나 컴퓨터 모니터에 코를 박고 있다. 창구 앞에는 제 증명 발급, 전입신고와 혼인 신고 따위의 팻말이 올라앉아 있다. 들고 있던 것에 눈을 떨어뜨린다. 우뚝 선 채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런 너를 향해 사내가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묻는다. 여기가 파출소 아닌가요? 예, 파출소요? 여긴 명동 주민센터입니다. 사내가 의아해하며 너를 위아래로 훑는다. 머릿속이 멍하다. Y와 K가 황급히 네 팔을 나눠 낀다. 주춤주춤 뒷걸음쳐 밖으로 나온다. 너는 지난 봄날부터의 모든 걸음이 흑, 신기루는 아니었을까 의심하기 시작한다. 주민센터를 파출소라고 믿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주민센터를 찾아가 너를 J에게 묶고 싶었던 소망을 꺼내본다. 그와 주민센터를 찾아가기를 꿈 꿀 때는 행복했다. 너는 그대로 주저앉을 것만 같다. 계단 아래 명동 관내도 앞에 선 너는 비로소 생똥맛았던 기억을 명징하게 회복하고 있다. 또한 그 연유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너는 명동 관내도 앞을 오간다. 우뚝 멈춰서 골똥히 생각에 잠기기도 한다. 너는 굴절되어 눈에 들어온 세상을 고스란히 믿었던 걸 깨닫는다. 단 한 번의 굴절이 완벽하게 실상을 가려놓았다는 사실에 새삼 놀란다. 날마다 명동 관내도 앞을 지나다니면서도 어쩌면 그걸 몰랐던 걸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굴절되어 있었던지 알 수 없다. 또한 그걸 진실이라고 멋대로 믿고 살았을 것이다. 너는 보이는 대로 철

석같이 믿어왔던 네 자신과 삶은 더욱 믿을 수 없다. 시간이 지나자 너에게서는 무너지듯 맥없는 웃음이 터진다. 마른 먼지가 풀썩 일어나는 것 같다.

“잠깐만 기다려 봐.”

너는 좀 전에 내려 온 길로 황급히 뛰어올라간다. Y와 K가 네 뒤를 따른다. 실내포장마차와 부동산 사무소를 거쳐 인쇄소까지 다다른 너는 몸으로 문을 떠민다. 틀림없는 인쇄소인 걸 확인하고 부동산 사무소를 들여다본다. 장기와 바둑으로 시간을 소일하는 늙수그레한 영감들이 앉아있다. 분명 곁에서 보던 모양 그대로다. 음식 준비로 분주한 실내포장마차까지 확인한다.

“언니, 뭐 하는 거야?”

아직 모든 게 확실치 않다고 생각하는 너는 아래로 달려간다. 막상 앞에 다다랐지만 선뜻 안을 들여다볼 용기가 나지 않는다. 너는 네가 알고 있던 둘둘 치킨과 하이트 광장이 표면뿐이면 어쩌나 싶은 염려로 가슴이 조여든다. 이곳에도 우연히 착각의 틈입자가 끼어든 것은 아닐까. 너는 대체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긴장으로 조심스럽게 하이트 광장의 문을 연다. 고개를 뺀 너는 둘둘 치킨도 들여다보지만 주춤주춤 뒤로 물러난다. 막상 발을 들이면 전혀 엉뚱한 세계가 펼쳐질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사실, 네가 들여다본 인쇄소와 부동산 사무소와 실내포장마차도 모두 표면뿐일 수도 있다. 그곳은 전부 네가 교통위반사실 통지서를 들고 들어갔던 주민센터와 다를 게 없을지도 모른다. 너는 길가의 가게만이 아니라 Y와 K의 내부까지도 믿을 수가 없다. 정작, 더욱 믿기 어려운 건 그들이 열어 볼 네 마음의 문인 것도 모르지 않는다.

그만 들어가자. Y가 나선다. 그래도 너는 발을 떼지 못한다. K가 몇 걸음 뒤쳐져 있다. 잠깐만 기다려. K가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손을 들여다본다. 입술을 사려 물고 반지를 돌리기 시작한다. 쉬 빠지지 않는지 인상을 찌푸린다. 마침내 반지를 뺀 K가 와인드업 자세로 힘껏 던진다. 그것이 명동역 삼 번 출구 앞으로 날아간다. 저거 말야, 가짜 더라구. 하도 반짝이길래 진짜 줄 알았지 뭐야. 너는 좀처럼 눈을 거두지 못한다. 세상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었던 출구가 커다랗게 입을

별리고 있다. 누군가도 너처럼 계단을 지상에서 내려온 사다리라고 믿을 것이다. 둘둘 치킨 집 앞으로 다가선다. 여태 잘못 알고 있던 것의 실체를 알아야겠다는 듯 망설이지 않는다. 때마침 등 뒤로 늘어진 긴 그림자가 어깨를 붙잡는다. 너는 아랑곳하지 않고 힘껏 출입문을 당긴다.

<약력>

경남 마산 출생

숭의여대 문창과 및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부 졸업

1996년 단편소설 「연 날리는 아이」로 《월간문학》 신인상 당선

- 작품집 『오피스텔 토마토』 출간

『한국소설베스트선집 3』 선정

고래심줄

예외석

내 이름은 박종팔이다. 주변에서는 박상사로 통한다. 월남에서 돌아온 새카만 김 상사가 아닌 박 상사다. 의리의 사나이 박상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청와대가 발각 뒤집히지 않았다면 큰집 물을 먹을 뻔 했다. 두 번씩이나 청와대 경호실에서 꼴을 했지만 모두 사양하고 다른 동료를 추천해 주었다.

“종팔아, 소 어디 갔다 팔아 묵었노?”

아버지는 초저녁부터 집에 돌아오지 않는 소를 찾아 들로 산으로 쫓아 다니셨다. 캄캄한 밤에 소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종팔이는 아버지로부터 죽지 않을 정도로 매를 맞았다. 소는 집안 재산목록 1호로 가족들만큼 소중한 존재였던 것이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비록 쓰라린 기억만 이어졌던 고향이지만 그 고향 초가집 뒤로 나지막하게 솟아오른 산이며 동네 입구의 작은 개울 그리고 그 개울둑을 따라 파릇파릇 돌아다니던 풀들이 내 마음을 오랫동안 잡고 있었기에 지금껏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같다.

1950년대 소를 키울 당시 고향집 앞 들판 왼쪽으로 제방둑이 있었고 버드나무 뒤편으로 낙동강이 흐르고 그 뒤로 부곡온천이 있었다. 6.25 전쟁이 터지고 갯가 작은 계들처럼 새카맣게 밀려오는 중공군과

북한군에게 밀린 국군은 후퇴를 거듭하여 결국 내가 살던 낙동강에까지 오고 말았다. 낙동강 이남에 위치한 우리 부락에도 “피난 보따리 꾸리고 준비하라”는 동네 이장의 지시가 전달되었다. 철모르는 어린 나이의 나는 신이 나서 이리저리 마을을 쏘다니다 동네 어른들로부터 혼쫓이 나기도 했다.

미숫가루가 든 푸대를 안고 잠을 자다 깨보니 먼동이 흰하게 밝아 오고 있었다. 인민군의 후퇴로 피난가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고 모두 꾸렸던 피난 보따리를 다시 풀고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그 시절엔 누구나 할 것 없이 비슷한 어린 시절 추억이 있다. 지독하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은 상처로 남아 잊혀 지지 않지만 씩씩한 웃음으로 떠오르는 것도 있다.

6.25가 휩쓸고 간 뒤 물자가 궁핍해서 너 나 할 것 없이 변변한 속옷조차 없던 시절이었다. 당시 암시장에 유행하던 것이 대포 조명탄용 낙하산 천으로 만든 속옷이었다. 그것도 화약 냄새가 베여있고 천이 거칠어 피부를 심하게 손상시켜 피부염이 심할 정도였다. 그나마 그것조차 없어 매일 겹옷차림으로만 다니다가 체육시간마다 곤욕을 치루기도 했다.

“야 인마, 난닝구(런닝) 왜 안 입고 나와?”

“난닝구 입고 와, 난닝구.”라며 매를 맞았던 기억이 난다. 선생님이 아무리 매를 때려도 없는 런닝을 만들어서 입고 올 수도 없고, 훔쳐올 수도 없는 일이기에 난감한 일이었다.

그로부터 6년 후, 고등학교 2학년 때 교무실에서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된다.

“공납금 밀린 놈들은 내일 부모님 모시고 온다. 안그라도 매타작 할 거다. 돈도 안 내는 놈들이 공부하는 무신 놈의 공부고?”

“돈 없시모 촌에서 똥지게나 지든지 노가다나 하러 가빠라.”

종팔의 눈에선 닭똥 같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 내렸다. 교복소매로 훔치며 이를 갈았다.

“그래, 이런 놈의 학교 때리 치아뿌자. 고마 돈이나 벌러 가자.”

종팔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는 둘째 동생을 낳다 세상을 떠나셨다. 밤새 하혈을 심하게 했으나 당시 시골에서 병원 갈 엄두도 못

내고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날이 새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싸늘한 시신이 되고 말았다.

그 뒤 아버지는 장날 소를 몰고 읍내에 나가시더니 낯선 여인을 한 명 데리고 왔다. 이복동생이 한 명 생긴 뒤로 종팔은 아버지와 새어머니에게 관심 밖이 되고 말았다. 주변 친척들의 도움으로 중학교를 어렵게 마치고 고등학교 진학은 아예 포기하고 있던 중에 중학교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마산에 있는 공업학교에 시험을 보게 되었다. 합격은 되었으나 등록금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입학수속을 포기하려 했으나 중학교 담임선생님의 도움으로 어렵게 입학할 수 있었다.

그 뒤 낮에 수업을 마치면 식당이나 작은 공장을 전전하며 돈을 벌고 밤에 공부하면서 어렵게 학업을 이어갔으나 그것도 한계가 있었다. 결국 공납금도 두 번이나 밀려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 버텨오던 학교와의 인연을 끝내고 말았다. 종팔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수복이와 가출을 결심했다. 말이 가출이지 이미 어린 나이에 식당이나 공장에서 생활하던 날들이 많았었다. 가출 후 마산과 부산을 오가며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우연히 마산역전 앞 게시판에 붙은 모집공고문을 발견하였다.

- 육군소년기술병 및 하사관 모집 -

“수복아, 우리 저거 시험 한 번 쳐보자. 군대 가서 월급도 받고 나중에 하고 싶은 공부도 실컷 해보자, 어떨노?”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데이, 이왕지 우리들이 공부할 형편이 안되도 군대나 일찍 가서 돈이나 벌어서 오자.”

의기투합이 된 종팔과 수복이는 육군소년기술하사관 시험을 보기로 마음을 굳혔다. 수복이네 집에서 훔쳐낸 돈으로 서울 갈 차비를 마련해서 시험을 볼 수 있었다. 시험 결과 종팔이는 합격했으나 수복은 낙방하고 말았다.

한 달 뒤 합격통지서와 함께 입영통지서가 집으로 도착했다. 종팔은 아버지와 새어머니 몰래 입영통지서를 가지고 집을 나왔다. 고향집이 있는 마을 어귀를 벗어나며 이를 악물었다.

“성공하기 전엔 이놈의 집구석엔 발을 들여 놓지 않겠다.”

“차리엇, 열중 쉬엇, 차렸!”

“지금부터 호명하는 놈들은 오른쪽으로 튀어나와서 줄을 서라!”

1966년 3월 용산역 광장. 아침부터 지루하게 기다리던 종팔의 이름이 불러졌다.

“박종팔, 112969번”

오른쪽 팔목에 종이띠로 만들어진 번호표와 명찰을 달고 열을 지어 호송열차에 몸을 실었다. 용산역을 출발해 달리는 열차는 경부선을 타고 거꾸로 종팔의 고향 쪽을 향해 가는 것이었다. 밤늦게 도착한 곳은 경북 영천의 육군3사관학교였다. 그곳에서 52주간 교육훈련을 받았다. 교육을 수료할 즈음 종팔은 교관으로부터 간부후보생 지원 권유를 받고 지원하게 되었다. 육군소위로 임관된다는 것이었다.

명령대기 상태로 3사관학교 내 시설관리 임무를 부여 받았다. 종팔이 공업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교내 보일러실 담당사관으로 명을 받고 근무를 하면서 교육생을 지도하게 된 것이다. 동기생들 중 하사관들은 임지로 떠났고 간부후보생 지원자들도 인사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종팔과 잔류하게 된 동기생들은 2차 명령이 떨어지면 임지로 떠나게 되어 있었다.

1966년 겨울 어느 날 밤, 박종팔 하사의 인생행로를 바꾼 중대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보일러를 담당하던 기술병의 실수로 압력이 높아진 보일러가 폭발한 것이다. 한 달 후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장교의 길을 가려던 종팔에겐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다. 그날 밤 일직사관은 분명히 김귀동 중사였다. 하지만 시설책임을 맡고 있던 종팔은 연대책임으로 한 달 앞두고 있던 소위 임관이 취소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사고의 책임을 물어 하사관에서 사병으로 강등 조치한다는 인사장교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 그날 일직사관을 하던 김귀동 중사에게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눈이 뒤집힌 종팔은 그날 밤 사복으로 바꿔 입고 사관학교를 도망나오고 말았다. 마산으로 온 종팔은 제일 먼저 친구인 수복에게 연락을 했다. 수복은 시험에 떨어진 뒤 창원공단에 있는 공장에 취직을 해

서 자리를 잡고 야간고등학교에 뒤늦게 편입해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다.

“야 인마, 니 우짤라꼬 탈영했노? 니 미친나?”

“내도 모리겠다, 니미럴 한 달 뒤면 육군소위 계급장 마빡에 달고 폼 나게 군대생활 한 번 해볼라 됐는데 이기 무신 일인고 모리겠다.”

종팔과 수복은 마산 오동동에서 밤새 술을 마셨다. 고향집에는 돌아가지 싫어 당분간 수복이의 자취방에서 지내며 후일을 생각해보기로 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갔다. 헌병대에서 수복이의 자취방에 들이닥쳤다.

“박종팔 하사, 널 체포한다. 반항하지 마라!”

종팔은 헌병대에서 인계된 뒤 사관학교 교장실에 도착하였다. 당시 교장은 유학석 대령이었다. 동기생들보다 장군 진급이 몇 년 뒤쳐져 안달이 나 있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종팔의 탈영사고가 발생해서 눈이 뒤집힌 상태였다.

“니 인마 정신이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어찌자고 탈영을 하나?”

“니 탈영 보고는 두 번씩이나 내가 막아 놓았으니까 상부에 올라가지는 않았다. 마음을 돌리라. 두 눈 딱 감고 명령에 따르거라.”

종팔은 이제 막가는 심정으로 따졌다.

“내가 와 그 고생하고 사병 계급장을 달아야 합니까? 한 달 뒤면 육군 소위로 임관할 사람을 보고 사병이 됩니까, 사병이.”

“아 그거야 니가 사고치고 도망갔으니까 그런 것 아이가?”

“내가 보일러 뿌샷는교? 병사들이 불낸 거 가지고 와 내보고 책임을 묻는교? 그리고 그날 일직사관은 김귀동 중사 아인교? 책임을 물 올라 카머 김 중사가 책임을 지야제 와 내가 책임 지는교?”

김귀동 중사는 2군사령관의 처조카였다. 그래서 교장인 유학석 대령도 인사조치 하기가 난감한 처지였다.

“내보고 자꾸 입 다물고 다 뒤집어써라 카머 내도 가만히 안 있을 기요. 확 다 까발릴 테니까 고마 알아서 해 주이소.”

유학석 대령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사관후보생 육군 하사에게 막말을 듣자 심기가 단단히 틀어졌다.

“정 그라모, 니가 원하는 기 뭐꼬? 한 번 들어보자.”

“인자 육군 소위는 물 건너갔으니 지금 있는 계급 그대로 유지해주고 다른 데로 보내 주이소. 안 그라모 김귀동 중사를 물고 늘어질기요 고마.”

결국 유학석 대령은 종팔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하고 김귀동 중사를 살리는 쪽으로 결정했다.

*

종팔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다. 어느 날 그가 다니고 있던 학급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 이른바 ‘금고털이’ 사건이었다. 학급에서 아이들이 용돈을 아껴 남는 동전들을 조그만 소형금고에다 모아서 가득 차면 좋은 곳에 쓰기로 하고 관리하던 금고였다. 그 금고의 비밀번호는 금고를 학급에 기증한 아이 밖에는 모른다. 그 아이는 매일 아침마다 고급승용차를 타고 등교를 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양조장을 운영하면서 지역에서 유지행세를 하는 사람이었다.

금고가 제법 묵직하게 느껴질 때, 학급의 아이들은 모두가 한 번씩 들고 흔들며 대면서 흡족하게 생각했다. 그 때마다 금고의 원래 주인이었던 아이는 화를 내었다.

“누가 내 금고에다 손대는 거야? 아무도 장난치지 마, 알았어?”

아직도 그 아이는 학급에 기증한 그 금고를 자기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른 한 아이가 소리 쳤다.

“웃기지 마, 예전에 그 금고가 네 것이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학급 전체의 것이야. 네 권리는 이제 없어 알겠어?”

그러나 금고를 기증한 그 아이는 거만하게 말했다.

“흥, 어디 두고 보자. 그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 금고와 나랑은 아무 상관도 없다 이거지. 너희들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마라.”

그 금고가 어느 날 썰렁하게 가벼워졌고 동전 몇 개만 딸랑거리는 사건이 생겼다. 학급 전체가 발각 뒤흔어졌다. 아무리 추적을 해도 범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모두들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없어 금고

를 기증한 아이에게 무슨 말도 하지 못했다. 담임선생님은 조회시간에 일주일 기한을 줄 테니 범인 스스로 찾아와서 자수를 하고 잘못을 빌면 용서해 주겠다고 했다.

호기심 많은 한 아이가 있었다. 금고가 학급 전체의 것이라고 말하던 종팔이었다. 그는 다들 겁이 나서 만지지도 않는 금고를 달랑 들고서 이리 저리 흔들며 보았다.

“땡그랑 땡그랑”

동전 몇 개의 소리만 들렸다.

“웁지, 이 안에 있는 동전은 분명히 세 개다.”

계속 조금씩 흔들며 금고에 귀를 가까이 갖다 대었다. 그러더니

“이 안에 있는 동전은 십 원짜리 두 개와 오십 원짜리 하나다.”

하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모여 금고를 열어 보기로 했다. 금고 안의 동전은 정말 십 원짜리 두 개와 오십 원짜리 하나였다. 그 순간 주변 아이들과 원래의 금고 주인이었던 아이가 눈빛이 이상해지며 종팔을 범인으로 몰았다. 종팔은 그만 꼼짝없이 범인이 되고 말았다.

담임선생님이 주신 일주일 기한 중 벌써 이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초조해진 아이들은 범인을 찾기 위해 수선을 피워댔다. 그러나 범인은 나타나지 않고 결국 누군가는 범인이 되어야만 했다. 일종의 마녀사냥을 시작한 것이었다. 희생양을 만들어 선생님께 제물을 바친 후 자신들은 그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다. 희생양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결국 금고 속의 동전 세 개를 밝혀낸 종팔이 제물이 되고 말았다. 주변 아이들은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밀어내기 게임이었다.

“네가 범인이지? 네가 범인이기 때문에 금고 속의 십 원짜리 두개와 오십 원짜리 하나가 있는 것을 알지.”

종팔은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몸부림쳤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 오히려 발버둥칠수록 주변 아이들로부터 놀림감만 되었다.

어느새 누군가 담임선생님께 범인을 찾아내었다고 말해버렸다. 조회시간에 담임선생님은 재차 범인이 자수해오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했

다.

“최근에 범인으로 드러난 사람이 있는데 자신이 한 짓이 얼마나 큰 잘못인줄도 모르고 아직 버티고 있다는데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자수할 때는 우리 학급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처리하겠지만, 끝까지 버티고 나올 땐 그놈을 학교에 고발해서 퇴학시켜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라.”

아이들은 점점 더 집요하게 괴롭히기 시작했다.

“너 이제 큰일 났다. 학교도 퇴학당하고 이제 동남아치 돼야 한다. 벌써 학교 전체에 소문이 다 났다.”

너무나 억울하고 절망감이 들어 종팔은 울고 말았다.

“내가 아니란 말이야, 내가 범인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나 그 누구도 아이의 말을 믿어 주지 않았다. 아이는 결심했다.

“그래 내가 범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범인이 되어야 해.”

비가 몹시 내렸다. 엄청난 장대비가 쏟아졌다.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오후라 학교는 쓸렁하였다. 운동장 구석 그네 위에 한 아이가 비를 맞으며 앉아 있었다. 몰아치는 비바람이 아이의 가슴속을 험하게 만들었다.

“선생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종팔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선생님도 기다리고 있었다. 할 말이 있겠지?”

담임선생님은 마치 아이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답답하게 말했다.

“제가 금고 안의 돈을 훔쳤어요.”

그 뒤로 담임선생님과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기억이 없다. 한참이나 선생님이 종팔의 몸을 흔들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듯 했으나 아이는 들을 수 없었다. 겨우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말은

“내일 어머니께 학교에 오시라고 분명히 꼭 전해라.”

담임선생님 앞에 선 어머니는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했다. 그저

“죄송합니다.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절대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도대체 뭘 용서하란 말인지 종팔은 이해할 수 없었다. 평생 동안 잊

혀지지 않을 선생님의 말이 있었다.

“제가 하는 말을 똑바로 들으십시오. 이 아이는 앞으로 교육을 똑바로 시키지 않으면 큰일 낼 아이입니다. 남에게 큰 해악을 끼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좋은 일을 하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일겁니다. 앞으로 교육 똑바로 시키지 않으면 큰일납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종팔은 어머니에게 심하게 매를 맞았다. 어머니는 몸부림을 치면서 아이를 때렸다.

“난 절대 범인이 아니야!”

아이는 같은 소리만 되풀이 하였다.

“네가 범인이 아니라면 왜 선생님께 내가 돈을 훔쳤다고 말했니? 너 바보야? 앞으로 학교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다닐래?”

어머니는 가슴을 치면서 절규하였다.

“내가 못산다.”

종팔은 매를 맞아도 아픈 줄도 모르고 이를 악물었다.

“오늘 일은 평생 잊지 않을 거야.”

종팔은 그 후 말이 없어졌다. 누가 말을 걸어와도 그저 씩 웃을 뿐이었다. 선생님도 그 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냈다. 그 때부터 종팔을 제일 심하게 괴롭혔던 금고를 기증한 아이와 주변 친구들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도망을 다녔다. 어쩌다 마주치면 마치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슬금슬금 피하는 것이었다. 종팔은 그저 씩 웃기만 할 뿐이었다.

“저 녀석들이 왜 저래? 나에게 무슨 죄 지은 것 있나?”

종팔은 그 뒤로부터 학교에서 ‘짱’ 이 되었다. 그 누구도 종팔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치르며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근성과 두둑한 배짱도 그 때부터 이미 단단하게 다져진 것이다.

*

1967년 봄, 유학석 대령은 준장 진급을 하고 육군본부 병기감으로 인사명령이 나서 서울로 영전을 해 갔다. 종팔은 유학석 준장의 자기

직속 휘하에 명령을 내린다는 약속을 믿고 2군사령부 본부대로 명령지를 가져갔다. 그러나 정작 인사명령을 받은 곳은 27사단 병기중대였다. 열이 뺀 종팔은 그날로 육군본부 유학석 준장을 찾아갔다.

“내 육군소위 계급장을 내 놓든지 아니면 약속 지키소.”

“니가 참말로 지정신인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 오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탈영을 하다니 니 돌았나?”

“하모, 내 돌았소. 내도 이판사판이요 고마. 유 장군님 누구 때문에 장군 됐는교? 내가 입 다물고 하사 생활하는 동안 김귀동이 놨은 벌써 상사 계급장 달고 안 있는교?”

유학석 준장이 육군본부로 인사명령을 받을 때 김귀동 중사도 상사로 진급시켜 함께 육군본부로 오게 된 사실을 종팔이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라도 내 따라서 월남으로 가자. 내가 먼저 가 있을 거니까 뒤 따라 오너라.”

“월남 갔다 오면 뭐가 달라 지는교?”

“월남 갔다 오면 니가 장교 못된 것을 다 보상해주마.”

그렇게 유학석 준장과 종팔은 월남 파견 결정을 내렸다. 유학석 준장은 월남 에 잠시 머물다 오면 곧 소장으로 진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종팔은 부대 복귀 후 일주일이 지나 전격 월남 파견 특명이 내려왔다.

1967년 5월, 부산항 제3부두,

“무사히 돌아오라!”

“사랑해요, 꼭 살아오세요!”

애타는 절규의 목소리들이 적힌 피켓을 들고 울부짖는 사람들로 부두전체가 흔들거렸다. 1만5천 톤 급의 미군수송선 갑판에서 병사들 속에 섞여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종팔의 마음은 착잡했다. 육군 소위를 눈앞에 두고 벌어진 사고와 어린 시절 가난해서 겪었던 학교생활의 어려움이 주마등처럼 떠올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군복 소매로 닦아 내어도 쉴 새 없이 타고 내리는 눈물은 그칠 줄 몰랐다.

옆에서는 펄쩍펄쩍 뛰며 목이 터져라 가족과 애인의 이름을 부르는

병사들을 보면 가슴에 웅한 바람이 일고 목이 메었다. 종팔은 누구 한 사람 전송 나온 가족이 없었기 때문이다. 고향집에도 월남 전선으로 떠난다는 연락을 하지 않고 슬그머니 도망치듯 왔다.

“부웅!” 하는 뱃고동 소리와 함께 군 수송선과 부두와의 간격이 조금씩 벌어지는 순간 아예 선착장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선상에 있는 장병들도 하나 둘씩 왕주먹같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월남 전선으로 떠나는 장병들은 한결같이 이런저런 사연들이 많은 이들이었다. 종팔은 차츰 멀어져가는 고국 땅을 갑판 위에서 멍하니 바라보았다.

월남 전선으로 가는 수송선에서의 생활은 국내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최상급 호텔 수준이었다. 침대엔 하얀 시트가 깔려있고 식사시간이면 쟁반가득 각종 고기와 야채, 과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고급 잔에 가득 따라주는 원두커피는 현기증이 날 정도로 호사스러웠다. 가끔씩 거친 파도에 ‘롤링’ 과 ‘피칭’ 때문에 배멀미를 하거나 식사시간에 커피나 음식이 쏟아지는 소동이 있었지만 끼니때마다 배식되는 각종 육류들은 목숨 걸고 사지로 떠나는 장병들에겐 마지막으로 제공되는 최후의 만찬 같았다.

드디어 사이공 임지에 헬기를 타고 도착했다. 상사 3명, 중사 3명, 나이가 지긋한 늙다리 하사 2명이 사단사령부 대기막사에 도착했다. 도착한 첫 날부터 정신이 속 빠질 것 같은 적들의 포사격이 시작되었다. 전 부대원들은 이미 지하 벙크로 대피해버린 뒤였다.

“야, 이거 우리레 도착 첫날부터 신고식이레 걸게 치루누만 썩! 적들이 우리레 온 걸 아는 모양이구만.”

이복사투리가 진한 황상사가 푸념을 늘어놓았다.

임지로 도착한 일행만 남겨두고 부대원들 모두 지하 벙크로 대피하는 바람에 벌써 두 끼나 식사를 건너뛰어 배가 몹시 고팠다. 종팔과 하사 2명이 나서서 부식창고를 뒤져보니 한국에서는 구경도 못하던 진귀한 부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 그중에서 간단한 씨레이션 박스 몇 개를 가져왔다. 박스를 개봉하니 온갖 진귀한 것들이 들어있었다. 햄, 과일통조림 그리고 커피봉지와 껌, 초콜릿, 비스킷 등 국내에서는 구경하기 힘든 음식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밖에서는 포성이

진동하는데 모두 한 자리에 모여 배가 뽕뽕하도록 실컷 먹고 즐겼다.

“야, 이거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데 우리레 회식 한번 실컷 하누만 썩! 이거레 앞으로 복귀할 때까지 매일 먹을 것들 아니가”

포사격이 그치고 다음날 부대원들이 지상으로 올라왔다. 부대정비가 끝난 후 대기막사에 웬 험상궂은 사복차림의 사내가 들이닥쳤다.

“어떤 새끼야? 부식창고 텀 놔?”

“너, 이 새끼들 쥐새끼들이야 뭐야?”

다짜고짜 종팔을 비롯한 하사관(부사관)들을 걷어차고 따귀를 올려 붙였다. 엉겁결에 따귀를 두 대나 얻어맞은 종팔은 속에서 불이 올라왔다.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노 이거, 목숨 내놓고 죽으러 온 우리 보고 뭐 쥐새끼? 너, 이 새끼 오늘 한 번 죽어봐라.”

종팔이 그 사내의 배를 전투화발로 걷어차고 주먹을 턱에 올려붙였다.

“억, 너 이 새끼 내가 누군 줄 알고?”

“니가 누군 줄은 알 필요 없고, 배가 고파서 밥 묵은 우리가 와 욕을 얻어 묵어야 돼노?”

일행은 우르르 달려들어 그 사내를 걷어차고 짓밟았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사내는 해병 중령으로서 감사실 감찰참모인 권 중령이라고 했다. 그러나 권 중령은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부하들에게 일체 함구령을 내렸다. 종팔은 한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막사 안을 돌아다녔다. 일주일 뒤 종팔은 병기중대 인사계로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종팔은 또다시 유학석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부대 내 장병들은 유학석의 소식을 알지 못했다. 월남으로 온 것은 알 것 같은데 도무지 행적을 찾지 못하고 3개월이 흘러갔다.

*

월남의 기후는 ‘스콜’ 이라고 부르는 소나기가 잠깐씩 스쳐갈 뿐 일 년 내내 강렬한 햇볕만 지독하게 내리쬐어 숨이 턱턱 막혔다. 한낮의 태양에 바짝 달구어진 대포나 장비에 무심코 손이라도 짚었다간

그 몸체에 손바닥이 찍! 하고 달라붙는 바람에 기겁을 하고 물러선다. 땀별에 달궈진 철모에 계란을 깨트려 넣고 5분만 기다리면 계란프라이가 만들어질 정도였다.

그런 건기철의 어느 날, 계속된 무더위로 숨이 막히던 중 반가운 스콜이 한바탕 소나기를 뿌리고 지나가자 그 시원함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도 받아든 아이들처럼 한바탕 신이 났다. 그것도 잠시, 다들 슬금 슬금 막사로 들어가 으스스한 추위로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벌벌 떨었다. 고국에 있을 때도 여름에 지긋지긋하게 끈적거리는 더위를 느꼈었다. 지금의 기온도 그때처럼 섭씨 30도였다. 월남의 평균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엄청난 고열의 더위에 서서히 길들여가기 시작하다 보니 섭씨 30도에도 추위를 느끼는 것이었다.

종팔은 그렇게 찾아 헤매던 유학석 준장을 우연히 사이공 시내에서 만났다. 중사로 진급한 종팔이 모처럼 외출을 나왔다. 사복차림으로 사이공 시내를 어슬렁거리다가 골목길에서 어린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는 걸 목격했다.

“이놈의 새끼들이 대가리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어른 앞에서 담배를 피워?” 두 녀석을 불러 세워 뺨을 한 대씩 올려붙였다. 잠시 후 골목 저쪽에서 주민들이 몰려와 박 중사에게 항의를 하는 것이었다.

궁지에 몰린 박 중사는 도망치다가 골목 앞을 막 지나가던 지프차에 반힐 뻔 했다. ‘끼익’ 하고 지프차가 급정거하고 뒤라고 욕을 해대는데 한국말이었다.

“이 새끼, 죽으려고 환장했나? 너, 이 새끼 어디 소속이야?”

정신을 차리고 지프차 안을 보니 뒷좌석에 유학석 준장이 딱 앉아 있는 것이었다.

“충성! 하이고 장군님, 여기서 만나네요.”

유학석 준장이 눈을 뚱그랗게 뜨고 자세히 보니 그 찰거머리 같은 박종팔 중사가 느물거리고 있는 것이었다.

“너, 이놈의 자식 여기 어떤 일이나? 그리고 그 옷차림은?”

“아하, 이 옷은 오늘 그냥 외출 나온 겁니다. 그라고 월남 온지 육개월 됐습니다. 유 장군님 만나러 왔다 아인교?”

“너, 일단 여기 타라.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된다.”

차에 올라타고 가는 도중 유학석 준장은 박 중사에게 월남에 관한 현지 사정을 자세히 설명해주었다. 월남에서는 어린아이 때부터 담배를 피우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어릴 때부터 담배골초가 되면서 어른이 되면 이가 대부분 시커멓게 된다는 것이다. 민간인들 중에서도 베트남인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총을 맞을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박 중사는 다시 유학석 장군에게 역지를 부려 사단 직할대 차량중대 선임하사로 명령을 받아내었다. 유학석은 종팔이 하고는 참으로 짙긴 인연이라고 생각하며 껄껄 웃었다.

고국에서의 병영생활도 그랬지만 월남에서의 군 생활 중에도 매일 해질녘이면 국기하강식이 거행되었다. 월남 닭의 “귀꿀! 귀꿀!” 하는 울음소리를 제외하면 일체 잡음이 정지된 채 엄숙하게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조국을 떠나면 모두가 다 애국자가 된다고 했던가. 머나먼 월남 땅에서 애국가를 들으며 태극기를 바라보니 가슴이 찢혀왔다. 객지에서는 고향 까마귀만 봐도 반갑다더니 조국의 소중함과 애뜻한 마음에 몸이 ‘부르르’ 떨리는 전율을 느꼈다.

1969년 6월, 박 중사는 월남 파병 2년의 계약을 마치고 고향으로 귀국하는 미군 수송선에 몸을 실었다. 원래 기간이 1년이었지만 추가로 연장해서 2년을 채우고 복귀하는 셈이다. 유학석 준장은 6개월 전에 소장으로 진급해서 먼저 귀국한 뒤였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수송선에는 장병들이 포탄궤짝으로 만든 각자의 사물함을 한 두 개씩 챙겨 실었다. 초가집 안방 문짝만한 크기의 박스 안에는 배고픈 나라의 군인답게 미군용 씨레이션(야전식량)을 차곡차곡 모아둔 것도 있었다. 미제 런닝셔츠, 비누, 일제라디오, 카메라 등 고가품을 챙겨 넣은 것도 있었다. 가난한 고학생들은 그때 챙겨온 시계나 라디오, 카메라를 하나씩 팔아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한 병사도 있었다. 그만큼 한국에 물자가 귀한 시절이었다.

주월 미군이나 한국군 주둔지의 철조망 바깥에 산더미처럼 쌓인 빈통조림 강통더미를 보며 돈을 눈앞에 보고도 가져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느낀 병사들도 많았다. 박 중사는 차량중대의 노련한 선임하사답게 포탄박스 나무로 만든 상자 두 개 가득 차량용 엔진부품을 짹짹 채워서 실었다. 수송선은 ‘퀴논’ 항을 출발한 지 5일 만에 일본 오끼

나와 부근 해역을 지나가고 있었다. 병사들이 소지한 라디오에서 ‘치이익’ 하는 잡음 속에 고국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간혹 들려오기 시작했다. 기쁨에 들뜬 병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얼싸안기도 했다.

월남에서 돌아온 새카만 얼굴의 박 중사는 또 한 번 유학석의 배려로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2군사령부 병참부대로 발령이 났다. 당시 박정희 장군이 2군사령부에 근무를 했었고 훗날 경호실장이 된 차지철이 병참부대에서 박 중사의 직속상관으로 있었다. 이때 박 중사와 많이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다. 성질이 더러운 차지철을 월남에서 돌아온 노련한 박 중사가 군기를 잡은 것이었다. 동료 중사 한 명과 함께 차지철을 산 위로 끌고 간 박 중사는 한 시간이나 넘게 두들겨 패 주었다. 하지만 워낙 맏집이 좋던 무식한 차지철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두들겨 패다 지친 박 중사가 오히려 화해를 청하고 그때부터 차지철과 형님, 동생 하는 사이가 되었다. 영내에서는 박중사가 부하가 되지만 사석에서는 형님이 되었다. 이곳에서의 군 생활을 마지막으로 박 중사는 결국 옷을 벗게 된다.

차량정비 담당관이었던 박 중사는 전임자였던 김 상사가 차량수리장비를 여러 곳에다 외상거래를 해 놓고 그 대금을 착복한 후 장부를 없애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김 상사는 벌써 월남 과병을 자원해서 가버린 뒤였고 그 뒷수습은 고스란히 박 중사가 뒤집어써버렸다. 박 중사는 해운대에서 전역 신청을 했으나 상급부대에서는 1년 동안 애를 먹이다가 전역명령을 내려주었다. 그동안 월남에서 가져온 차량 엔진 부품을 야금야금 팔아서 김 상사가 저질러놓은 부도를 말끔히 처리해놓은 다음에야 전역을 할 수 있었다. 결국 박 중사는 빈 손 탈탈 털고 다시 사회로 나왔다. 고래심줄처럼 모질게 견뎌온 보람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것이다.

*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온 종팔은 고향집에서 다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통적인 벼농사에서 벗어나 단감농사를 한 번 시도해보기로 했다. 주변에서는 모두들 미쳤다고 손가락질 했으나 종팔은 눈

딱 감고 밀어붙였다. 두 해에 걸쳐 황무지를 개간해 감나무를 심고 겨울엔 비닐하우스로 수박농사를 지었다. 결국 단감나무에서 과실이 열리기 시작했고 종팔은 농사에 재미를 붙이게 되었다.

군에서 전역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진해에 있던 군대동료 양 상사가 찾아왔다. 그 친구 역시 월남에 갔다 온 후 2군사령부에서 종팔과 함께 근무 했었다. 전역하고 사업을 하다 사기를 당해 쫓딱 말아 먹고 거지꼴로 나타난 것이다. 종팔은 양 상사를 시장으로 데리고 가서 구두 한 켤레와 양복을 사 입히고 청와대로 올려 보냈다. 청와대엔 차지철이 있었다. 그는 5.16혁명의 주체가 되어 군복을 벗고 박정희의 최측근 경호실장이 되어 있었다.

차지철의 주선으로 양 상사는 청와대 경비반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채 1년도 못 채우고 박정희의 사망으로 옷을 벗게 되고 말았다.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끌려가서 대통령이 그 지경이 되도록 경비반장은 뭐하고 있었느냐는 죄목으로 고문을 받고 두들겨 맞아 염라대왕 앞에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왔다. 종팔은 시골 농장에서 라디오 방송으로 대통령의 총격 사망 사건을 접하고 양 상사가 걱정이 되었다.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손을 써서 겨우 양 상사를 데려올 수 있었다. 월남에서 돌아온 양 상사는 그렇게 모진 목숨을 건지고 골병이 들어 고향으로 내려왔다.

당시에 종팔은 차지철로부터 청와대로 올라오라는 권유를 여러 차례 받았으나 계속 사양했었다. 그때 청와대로 올라갔으면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종팔은 월남에서도 살아 돌아왔고 염라대왕 앞에까지 갈 위기도 피해갔다. 그리고 결혼 후 손자, 손녀들까지 보게 되었으니 이만하면 고래심줄처럼 질기게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벌써 나이 칠십이니 인생의 화살이 참 빠름을 느꼈다.

“그래도 그때가 참 좋았지.”

종팔은 월남에서 돌아오던 당시를 회상해 보았다.

미군이 수 년 간에 걸쳐 천문학적 전쟁비용을 쏟아 붓고 연일 비행기와 대포로 포탄을 퍼부어가며 베트남을 밀어붙여도 중화기래야 박격포 몇 문에다 소총과 죽창이 고작인 그들에게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상한 전쟁이었다. 100년 가까운 열강의 지배로 인해 오랜 전쟁에

시달려온 터에 동족끼리의 이념싸움에 휘말려 전쟁이 그칠 날 없는 그들의 삶도 참 기구한 운명이었다. 그러나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사랑의 씨앗은 마르지 않았으니 오늘날 월남이 있게 된 것이다.

종팔에게도 아자수 밑에서 사랑을 나누던 처녀가 있었다. 지금은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월체에 몸의 의지한 채 종팔은 서산에 기우는 저녁노을을 바라본다. 아오자이가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때가 참 좋았지……”

종팔은 얼마 전에 우연히 TV에서 베트남의 어느 마을에 있는 공중 화장실을 보고 옛날 생각이 떠올랐다. 길가 양쪽으로 길게 파놓은 구덩이에 온 동네 주민들이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엉덩이를 내놓고 백주대낮에 노상에서 볼일을 보는 것이다. 잠시 후에 돼지 떼들을 몰고 오면 돼지들이 그 인분을 먹는 것이다. 그것을 보고 예전에 한국에도 있었던 제주도 똥돼지 생각이 났다. 그러나 벌건 대낮에 떼 지어 엉덩이를 드러내놓고 일을 치르는 행위는 어쩐지 우리의 정서와는 너무 동떨어져 해괴하게만 느껴진다. 종팔이 당시에 그 장면을 보고 혀를 찬 적이 있었다.

월남 화장실을 보면서 종팔은 군대시절 초기에 겪었던 일이 생각났다. 전방부대 화장실엔 ‘똥탑’이라는 것이 있었다. 전방부대의 흑한 기에는 보통 영하 25도를 오르내린다. 그래서 겨울 내내 화장실 오물을 퍼내지 못하고 썩썩 열린 채 내버려 두게 된다. 서너 달 인분이 쌓이면 그 위에 배설을 하고 밤새 얼어붙으면 그 위에 또 볼일을 봐서 층을 이루게 된다. 탑처럼 차곡차곡 쌓인 것을 이른바 ‘똥탑’이라고 불렀다. 더 이상 볼일을 보지 못할 정도로 탑이 쌓이면 작대기를 하나 장만해놓고 똥탑을 툭툭 쳐서 한 층을 제거한 후 거사(?)를 치른다. 그런 수고도 하지 않은 채 볼일을 보려면 엉덩이에 차갑고 불쾌한 것이 와 닿는다. 어쩐지 종팔은 자신의 처지가 그 똥친 작대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도 녹슨 태극무공훈장을 바라보며 그 시절을 회상해본다.

종팔은 6.25 한국전쟁과 월남전을 직접 체험한 세대로서 세월의 무상함을 느꼈다. 남북 화해의 물결이 흐르면서 북한이 고향인 한 기업가가 소떼를 몰고 고향방문을 하면서 개성지역에 크고 작은 기업들이 공단을 조성하게 되었다. 일반인들에게도 금강산과 개성관광의 기회가 열려 종팔과 지인들도 함께 관광길을 나서게 되었지만 최근에 다시 6자회담이 결렬되어 금강산 관광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다.

금강산을 향해 출발할 때는 여러 가지 상상과 함께 설렘으로 잠을 설기도 했다. 종팔은 금강산에 다녀 온 후의 마음이 새롭게 달라진 것 같다. 지금까지 정말 별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제 잘난 멋에 살아온 삶이 부끄럽게 느껴지고, 새삼 마음 안에 겸손이 자리 잡으며 빈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계기를 갖게 된 것이다.

첫째 날, 아직도 차 창밖은 캄캄한 밤, 코리안 타임 없이 정시인 5시에 1호차, 2호차로 나뉘어서 출발을 하였다. 아침 일찍 출발이라 피곤도 할 텐데, 여겨 저기 소곤거리는 소리들이 들리는 것을 보면 여행의 즐거움과 기대가 잔뜩 느껴지는 듯하다. 참전전우회에서 직접 준비한 김밥과 우거지 국으로 아침을 든든히 먹고 동해안의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진 해안을 따라 버스는 북으로 향했다.

남측 출입국사무소에 도착하여 간단한 수속을 마친 후 민통선을 통과하였다. 앙상한 나무 말뚝 하나가 남측과 북측을 가르는 경계라 하니 참 묘한 기분이 들었다. 사진이나 자료를 통해서만 접해 보았지만, 까무잡잡한 얼굴의 실제 북측 군인의 모습을 보니 조금은 긴장이 되었다. 종팔이 예전에 근무하던 60년대 시절 병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질 않았다.

드디어 목적지인 ‘온정각’에 도착하여 문화회관에서 펼쳐진 멋진 교예공연을 보고, 밤이 되자 외금강호텔 바로 앞에 북한식 포장마차인 ‘온정리 봉사소’에 마실(밤나들이)을 갔다. 종팔과 연배가 비슷한 봉사소를 관리하는 책임자와 이런저런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상대는 주변의 눈치를 많이 살피는 것이었다.

종팔은 접대원들과의 대화에서도 우리네와 전혀 다를 바 없는 형제,

자매들임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늦은 시간 속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만치서 자전거를 끌며 지나가는 한 여성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게 고을 수가 없었다. 북측 여성들의 아름다운 목소리 비결이 따로 있을까? 아마도 오염되지 않은 물과 공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둘째 날은 전날 밤 술이 좀 과했는지 새벽부터 목이 땀다. 금강산 샘물 한 병을 다 비우고 찬바람을 쐬러 바깥에 나가니, 어디선가 우렁찬 군가 소리가 들린다. 목소리는 힘이 넘치지만, 한결같이 옛돼 보이는 북측 군인들이다. 종팔은 예전 소년병 시절이 생각나 가슴이 짠해왔다.

산책 나온 한 회원을 만나, 6자회담이 결렬되고 북핵 관련하여 분위기가 냉각되었다고 안타까워하였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지금까지 지나온 일련의 사건들을 종합해보면 북측도 마지막 남은 강다구 하나로 살려고 몸부림친 것 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북측에서 마지막 남은 그것마저 없다면 아마도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리라.

이미 오래 전에 내린 눈들이 얼어붙어 겨울 산의 운치를 더해주는 구룡연 코스는, 얼음 사이에도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고 힘차게 쏟아지는 폭포를 보니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구룡연 바위에 새겨진 글들을 자세히 보니 궁서와 해서체를 섞어놓은 듯한 아주 특별한 글씨체였다.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힘차게 붓을 놀린 것을 보니 종필도 힘이 솟구치는 기분이 들었다. 내려오는 길에 현재 한창 불사를 진행 중인 신계사에 들러서 삼배를 올렸다. ‘문필봉’을 향하여 기와불사의 정성도 올리고 주지 스님의 배웅을 받으며 다음 코스로 향했다.

신라시대 신선들이 뱃놀이를 하다가 절경에 매료되어 3일 동안 돌아갈 것을 잊었다는 곳 ‘삼일포’를 거쳐 야외 온천이 있는 ‘금강산 온천’에서 하루 동안의 피곤함을 말끔히 씻어낸 후 종팔은 다시 ‘온정리 봉사소’를 찾았다. 마지막 금강산에서의 밤을 밀양아리랑에서부터 진도아리랑을 거쳐 정선아리랑까지... 그렇게 온정각의 밤은 아리랑 합창으로 저물어 갔다.

셋째 날, 일요일인지 월요일인지 시간의 흐름조차 망각한 채 마지막 날 눈을 떴다. 금강산 여행의 절정이라고 하는 만물상의 기암절벽은

가 본 사람만이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처음인데도 북측 주민들과 군인들이 전혀 낯설지 않았고, 또 기회가 되면 계절별로 다시 오고 싶어졌다.

종팔은 남북이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아직은 개통하지 않았지만 철도가 개통되어 좀 더 편안한 여행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많은 이들이 북측을 제대로 아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왕래를 해야 할 것이다. 처음엔 금강산에 간다는 기대감 보다 오고 가는데 걸리는 버스 안에서의 장시간 괴로움에 도저히 엄두가 나질 않았다. 그러나 걱정과는 달리 금강산 답사가 끝난 지금, “갔다 오길 정말 잘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3일 간의 짧은 일정에서 종팔은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 단순히 아무 의미도 없는 금강산 관광으로만 끝내고 말 것인가? 이번 여행을 계기로 느낀 것은 남한 사회에도 북한의 실상에 대하여 제대로 알 수 있는 장을 열어갔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후 정권이 바뀌고 남북관계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 급속히 냉각되어버렸다. 금강산과 개성관광길도 차단되었다. 종팔은 그 짧았던 금강산 관광이 꿈 속에서 갔다 온 것만 같았다.

“내가 행복한 꿈을 꾸었나?”

학생문단 | 수필

유영희

김형출

전종수

윤경희

이순선

이후남

최해자

隨筆

나비야 나비야

유영희

“오빠! 여기도 나비 있다.”

상복을 입은 사내아이는 예닐곱 살이나 되었을까? 검정 원피스를 입은 계집아이는 아마도 어린 상주의 동생인 듯싶다. 둘은 장례식장 옆에 꾸며진 공원을 누비며 나비를 쫓아다니느라 정신이 없다. 흐드러지게 핀 싸리 꽃을 파고드는 나비를 향해 다가가지만 선뜻 손을 내밀지는 못하고 있다. 양 날개를 접었다 폈다하며 꿀을 빨던 나비가 펄럭 펄럭 공중으로 날아간다. “까르르! 까르르!” 두 어린 상주의 맑은 웃음소리가 나비의 날개 짓을 따라 4월의 하늘로 날아간다.

차고 있는 완장을 보니 그 집안의 만상제이다. 검은 개량 한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밖으로 나와 주차장이며 공원을 두리번거린다. 그러곤 이내 두 아이를 향해 목소리를 높인다.

“**야! 어서 들어 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서른 중반이나 되었을까? 쉴 대로 쉬어버린 목소리는 그녀가 힘겹게 견디고 있는 슬픔을 대변해 주고 있었다. 제 어미의 목소리를 듣고도 녀석들은 힐끗 바라만 볼 뿐 여전히 나비를 쫓아다니느라 여념이 없다.

눈이 퉁퉁 붓고 얼굴마저도 부석부석한 여인은 아이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걸음을 옮긴다. 어미에게 손목을 틀어 잡힌 아이는 장례식장 안으로 억지로 끌려가고 있다. 오빠가 어미에게 이끌려 가자 계집아이는 오빠의 뒤를 따른다. 손목을 붙잡힌 채 끌려가면서도 녀석은 연신 뒤를 돌아보며 공중을 날고 있는 나비에게서 눈을 떼질 못한다.

“오빠! 이따가 다시 와서 나비 잡아 줘.”

미련을 못 버린 제 동생의 말에 어린 상주는 고개를 끄덕인다.

도무지 상복이 어울리지 않는 어린 남매와 슬픔으로 점철된 젊은 여인의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생긴 젊은 남자가 어린 남매와 젊은 부인을 두고 세상을 떠났을까? 방문해야 할 집의 문상은 이미 끝나버린 뒤이지만 다시 걸음을 돌려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다. 1호실, 2호실……. 좀 전에 보았던 어린 상주를 찾아 장례식장 안의 모든 방을 살펴보았다. 지하로 내려가자 곧바로 어린 상주를 찾을 수 있었다.

영정 사진에는 서른 중반도 안 되어 보이는, 젊다 못해 옛되어 보이는 남자의 얼굴이 있다. 문상객이 절을 하자 어린 상주는 짹짹 입을 틀어막고 무릎을 꿇어 절을 한다. 문상객은 아직 허리도 들지 않았건만 녀석은 그새 절을 마치고 서서 제 녀석에게 절을 올리는 어른을 멀뚱히 바라보고 있다. 한 쪽 구석에는 검은 원피스를 입은 계집아이가 드러누워 발을 벽에다 댄 채 노래를 부르는지 혼자 웅얼거리고 있다. 힐끗 제 오빠 쪽을 바라보는 품이 언제쯤 오빠의 일이 끝나는지를 살피는 것 같다. 어미나 혹은 다른 어른들이 문상객이 상주에게 절을 하면 같이 절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음이 분명하다. 아무리 살펴봐도 어린 두 남매의 표정엔 제 아버지의 죽음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듯하다.

녀석은 잠시 서 있다가 절을 마친 문상객이 앉자 풀썩 주저앉는다.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어린 아이가 상주의 책임을 알 리가 없다. 곁에서 푸석한 얼굴의 젊은 여인이 망상제를 대신하여 문상객의 인사에 대꾸를 하고 있다. 그 틈에도 녀석은 제 여동생과 눈빛을 교환하며 코

를 후비고 있다. 죽어 간 젊은 남자에게는 상주 노릇을 해줄 동생 하나도 없었던 것일까? 어린 상주가 팔목에 차고 있는 완장이, 마치 녀석이 평생 아버 없이 살아야 하는 설움의 굴레처럼 보인다. 죽음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상주 자리를 지키라고 강요한 것이 잔인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인식하지 못했던 아버의 죽음이 생을 알아 갈수록 두 아이의 가슴에 얼마나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는지……. 세월의 흐름을 따라 성장의 과정을 밟아가며, 싸리 꽃이 만발한 봄날 영영 저들 곁을 떠나버린 젊은 아버를 떠올릴 때, 남매는 장례식장 옆 공원의 나비를 생각할 지도 모른다. 아버의 빈자리로 삶이 힘들어질 때 즐거움으로 쫓으며 불렀던 나비를 눈물로 부를지도 모른다. 마치 진즉 떠나버린 아버의 혼을 부르듯…….

“나비야! 나비야!”

계단을 올라 공원 옆 의자에 앉았다. 다가오지 않은 어린 상주들의 미래일진대 산다는 건 슬픔이라고 짐작하는 것은 너무 앞선 생각임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남매와 젊은 어미의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 눈에서 떠나지를 않는다. 싸리 꽃에는 여전히 몇 마리의 나비가 공중을 날다가 내려앉기를 반복하고 있다. 두 마리의 나비가 서로의 몸을 비비듯 날고 있다. 그 몸에 맞는 상복은 어디서 구했을까?

“나비야! 나비야!”

아이의 목소리를 흉내 내어 나비를 불러 본다. 아이가 인식하지 못했던 슬픔이 내게로 전이가 되었나? 멍텅이 설움이 한숨으로 흘러나온다.

< 약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부 졸업

2004년 대한민국 장애인문학상 수필 부문 대상

2004년 시흥문학상 수필부문 금상

2009년 대한민국 장애인근로자 문화제 수필 부문 은상

수필집 남편의 외박을 준비하는 여자(2005), 자장면과 짬뽕사이(2008) 출간

금속 사랑

김형출

1

금속장사, 금속이야기

금속(Material)과 함께 한지도 벌써 20년이 흘렀다. 30대 중반쯤에 전역하고 사회의 첫 직장이 금속과 관련된 무역회사였다. 주로 니켈 및 니켈합금, 티타늄 및 티타늄합금 등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은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 여러 업체에 공급하는 것이다. 그런 인연으로 금속과 나는 현재까지도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다.

불과 금속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인류문명은 암흑이 되었을 것이다. 인간은 드디어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자연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인간은 불을 운반하기 쉽도록 정착생활을 시작했으며 불을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했다. 그 후 돌에서 광석을 채취하여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 그리고 철기시대를 걸쳐 로제타석시대를 맞으면서 금속활자가 이용되었고 그 후 페니키아인들에 의해 보다 발달한 상형문자인 알파벳을 고안해 편리하게 사용하였다.

금속을 다루는 기술과 새로운 금속의 발견으로 오늘날 금속은 인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 몸에서부터 거대한 공장까지 금속 부치가 끼어 있지 않은 곳이 없다. 수많은 금속 중에서도

인류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은 청동과 철이었다. 이것은 인류 시대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로 나누어진다는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3000년 경부터 시작되었고 철기 시대는 기원전 500년 경부터 시작되었다. 20세기 이후에 플라스틱이나 세라믹과 같은 신소재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철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다.

청동기 시대를 통하여 인류는 처음으로 금속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금속을 생산하려면 독립적인 전문가가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청동기 시대에는 장인 계층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청동은 희귀한 금속이었기 때문에 청동의 용도와 사용자는 매우 국한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 철은 매장량이 풍부하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매우 폭넓게 사용되었다. 철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귀족이나 장인을 넘어 평범한 농부도 금속으로 된 도구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철기 시대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여기에 있다.

2

금속의 미스터리(mystery)

이십여 년 금속과 함께하면서 이런 황당한 일은 처음이다. “금속은 거짓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 올 초 거래처로부터 원자재 가공품(Forged Ring)을 주문받고 미국 Forged Ring 공장(A사 및 S사)에 주문(Order made)을 하고, 약 12주 후인 지난주 A사에서 생산한 원자재를 항공편으로 선적하였다.

거래처에서 방문해 달라는 긴급 호출이 왔다. 이유인즉, 통관하여 반입한 원자재 90%가 육안으로도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금(Crack)이 심해 현재 회사 분위기는 말이 아니란다. 나는 깜짝 놀라 거래처에 달려갔다. 아뵐싸,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전체를 LOT 불량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눈앞에 닥쳤다.

직접 반입된 원자재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상대에게 메일로

보냈다. 미국 생산 공장에서도 깜짝 놀란다. 출하하기 전에 검사도 꼼꼼하게 이루어졌고 이상이 없었는데 표면 및 내면에 크고 작은 금이 간 불량품이기 때문이다. 공급처에서도 원인 규명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지만 2주가 지난 현재까지 금이 발생한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생산완료까지 12주 걸린 물건을 3주 만에 재생산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공급받은 측에서는 불안하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항공편으로 선적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저쪽에서는 금이 간 원인을 항공 선적한 데서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공급처에서 주장하는 것은 원자재 특성상 냉각된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고도의 비행에서 금속의 특성상 금이 갔다는 애매모호한 논리였다. 다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선박(Vessel)으로 선적할 수밖에 없다는 미스터리 같은 이야기만 늘어놓으니 답답할 뿐이다.

제조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는지 아니면 공급처 주장대로 항공편으로 이동 중에 급랭의 온도 차이 때문에 영향을 받았는지 현재로서는 원인을 알 수 없다. 무역중개자로서 참 난감하기 그지없다. 오죽 급했으면 무게가 적지 않은 물량을 항공편으로 추진했겠는가, 이른 시일 내에 원인이 규명되고 쌍방 협의하여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한 번 꼬인 일이 잘 해결되기란 쉽지 않다. 쌍방의 견해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 중재하는 것이 나의 임무이기도 하다. 금속은 사람을 속이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금속을 믿는다.

3

요즘 쇳덩어리가 금값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부동산)보다 더 치솟은 니켈(Nickel) 가격 상승으로 모든 쇳덩어리는 금값이 되었다. 이삼 년 전보다 100% 이상 상승하다 보니 쇳덩어리를 사용하는 회사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 일반 철 구조물, 배전시설, 맨홀뚜껑, 소화전 밸브, 전선 교통 이정표시판 등 일반생활에 필요한 쇳덩이까지 몰래 훔쳐갔다는 뉴스를 접하고 세상 참 고약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죽했으면 이런 것까지 훔쳐갈 생각을 했을까, 텔레비전을 보다가 껄껄 웃고 말았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쇳덩어리도 공급량이 부족하여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수입하는데 애로가 많다. 환율은 내려갔지만, 원자재 가격은 오히려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거래처에서도 원가절감차원에서 여러 오퍼상에게서 복수로 견적을 받아보고 나서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 일수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돌아오는 이익도 점점 줄어들어 챙길 것이 없다.

우리나라도 세계적 철강생산국이라며 철강이 경제성장에 일조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특수 비철금속은 전혀 생산이 되지 않은 실태이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달러를 지급하고 수입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유수의 철강회사는 생산능력이 없어서 생산하지 않는다고는 보지 않는다. 단지 수요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돈이 되지 않아 생산을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언제까지 생산을 주저할 것인지 답답할 노릇이다. 몇 주 전에 반도체업체에서 LCD용 원자재인 인코넬(Inconel 600)*판 및 봉재를 공급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요구하는 규격이 까다로워 일반 판이나 봉으로는 사용용도에 적용할 수가 없어 다시 단조(Forged)품을 만들어야 했다.

* 인코넬600(Inconel 600)은 Inco Alloy International (현 Special Metals)의 등록상표로써 니켈(72%), 크롬(15.5%)이 다량 함유되어 내산화성, 내환원성이 뛰어나다. 특히 고온 내식성이 요구될 때 사용된다. 사용 용도는 로머플, 열처리설비, 전자부품, 반도체부품, 화학 및 식품관련설비, 핵발전소, 스틸재 너레이터튜브 등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단조품으로 수입 시에는 단가가 매우 높다. 원가절감 차원에서 일반 봉을 수입하여 국내 단조공장에서 단조품으로 만들면 된다. 몇 군데 단조공장을 수배하여 원하는 규격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상담을 했다. 우선 원자재에 대한 특성을 알려주고 가격과 납기를 요구했다. 단조 비용은 그다지 비싸지는 않지만 큰 문제가 있다.

만약에 단조품을 만들다가 실수로 ‘크랙’이 간다든지 갈라진다든지 하여 불량품이 발생하면 그 책임한계가 없다는 것이다. 단조공장 사장은 한 개에 몇 백만 원 하는 원자재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답변이다. 단조공장 사장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책임을 지지 못한다는 말에 화가 났다. 단조공장에서는 이런 논리였다. “단조비용, 십 몇 만원 받겠다고 실수로 불량이 발생했을 때 원자재 대금을 환불하려면 단조품을 만들 수 없다.” 라는 완강한 답변이다. 소개받은 또 다른 단조공장에서도 똑같은 답변이다. 그럼 단조공장에서는 실수해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인데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면서 떳떳하게 고객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날이 언제 쯤 올 것인지 답답할 뿐이다. 단조공장을 믿고 실수가 없기를 바라는 것 외는 다른 방도가 없는가, 아니면 다시 수정하여 외국에서 비싼 비용을 지급하고 단조품을 만들어 다시 수입을 해야 한단 말인가,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생겨났다.

4

쇠불이에게 물어볼까

쇠불이만큼 입 무겁고 인내심 많고 충직한 벗은 아직껏 보지 못했다. 수천 도의 용광로에서 성찰하는 자세는 태양보다 가혹하고 생명보다 진지하다. 나의 가족을 먹여주고 재워주는 보석 같은 참 보석인 벗이 예뻐 죽겠다. 말하고 듣고 보지는 못하지만 벗은 사람처럼 주민등록증을 지니고 있다. 주민등록증에는 온통 수치로 채워져 있다. 눈곱만큼도 가릴 것이 없는 지혜를 쇠불이에서 배운다. 쇠불이만큼 아름다운 벗은 이 세상에 없다. 벗은 화가 난 용광로에서 먹을 감고 변질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을 때, 반반한 쇠불이 하나가 손을 번쩍 들고 벗에게 질문하였다. 쇠불이가 무엇이래요? 쇠불이는 우리 선생님! 가마솥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옛 고향이 가물가물 걸어 나온다. 은전 한 닢, 백 동 한 닢 기웃기웃 티끌 모아 태산이란다. 쇠불이는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깎죽대는 법은 없다. 그래도 쇠불이는 우리에게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다.

요즈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내수경기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미국의 금융위기설은 세계의 경기 흐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 영향권 안에 있다. 그 여파로 공공요금은 물론이거니와 생활필수품까지 가격이 뛰었다. 환율상승에 내수 침체는 검정 비명을 토하며 불안하다.

며칠 전 거래처로부터 원자재 공급에 대한 문의가 있었는데, 물론 국내에서는 생산하지 않은 Cobalt Alloy인 L605란 금속이다. 중요한 제품 생산라인에 당장 사용해야 할 급한 물건이란단. 주문조건에는 가격 경쟁력, 품질도 좋아야 하지만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납기였다. 액수와 물량에 관계없이 점점 수주경쟁이 치열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주문을 받아내야만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었다. 주문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납기를 맞춰줄 수 없는데도 주문을 받는다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설블리 주문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루만 기다려 달라.” 라는 말에 거래처 사장은 다음 주까지 납품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납기만 보장한다면 지금 바로 주문을 하겠다는 것이다. 요구하는 납품일이 8일이다. 원자재 재고가 있을 때를 가정하더라도 국내에 들여오려면 최소한 2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원자재를 픽업하고, 검사하고, 선적서류 작성하고, Air카고 잡고 그리고 통관해서 납품하여 검사까지 완료되어 이상이 없을 때 마음을 놓을 수 있다. 가끔 재수가 없으면 통관 무작위 검사품목에 걸려 통관이 지연되기도 한다.

“그렇습니까?” 오늘 밤 미국 파트너에게 확인을 받아 내일 아침에 공급 여부를 알려 드리겠다며 좀 기다려달라고 하였다. 지정쯤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나 보니 새벽 02시였다. 미국 공급처에 전화를 걸었다. 사정 이야기를 하고 주문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Supplier 측 답변은 오늘 중으로 주문을 넣으면 다음 주 중에 선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희망적인 답변이었다. 촉박한 시간 다툼에 눈치코치도 없이 거래처 사장께 휴대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참 들리고 나서 잠에 취한 남자목소리가 나직하게 들려왔다.

“사장님! 밤늦게 송구합니다.” “지금 발주를 하시면 원하는 납기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주문 내시고 내일 다시 통화합시다.” “네, 안녕히 주무십시오.”

다시 미국 공급처에 우선 구두로 발주를 내리고 내일 아침 ‘Offer Sheet’ 는 메일로 보내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다. 불황에 어찌거나 한 건 했다. 무심결에 벽에 걸린 시계를 힐끔 훑쳐보았다. 새벽 03시였다. 아무리 주문도 좋지만, 새벽에 전화를 건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상대방에게 결례였다. 그래도 어찌하랴 주문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노라고 능청스럽게 변명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결례였는지 다시 한 번 쇠붙이한테 물어볼 요량이다. 원자재는 벌써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통관 중이다.

5

이제는 희망만 이야기하자

매스컴에서는 연일 실물경제가 나쁘다면서 불안과 공포를 마구 쏟아내고 있다. 제목도 불안 심리를 가중시키는 선정적인 용어들이다. “무너지는 자영업 비상구가 없다” “희망이 무너진다.” “폐업 속출…。 눈물의 땡처리 붓물” “자영업자 2개월 새 42만 명 도산·폐업” 등 불안과 좌절감만 보이는 듯한, 자극적인 발언이 경제회복에 과연 도움이 될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처한 딱한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숨만 쉬고 두 손을 놓고만 있을 수 없지 않은가? 경기는 저절로 살아나지 않는 법, 돌과구를 찾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이 고비를 잘 버텨내 살아남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작금의 세계 경제는 위기인 것만은 틀림없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시작한 미국발 금융 위기가 전 세계로 확대된 양상이다. 지금의 세계적 경제 위기는 1930년대 초 발생한 세계 대공황 못지않은 대위기이다. 그 위기가 한국에까지 상륙했다. 한국은 수출입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이다. 내수시장이 얼어붙어 소비가 발생하지 않고 수출이 감소하면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한

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수출과 내수가 급락세가 확대되면서 경기 침체가 본격화 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세계경제도 선진국의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동유럽,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기도 악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경기가 급락한 모습이라고도 분석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전망치를 마이너스 2~3%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온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한다면 한국경제는 올 하반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면서 내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한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플러스로 내다봤다. 그 근거로는 한국 경제는 내실이 튼튼하고 세계적인 일류 기업, 일류 상품이 산업 전반에 넓게 포진해 있고 경제주체들의 위기극복 의지가 높다는 것이다. 즉, IT산업, 조선 산업, 철강 산업, 자동차 산업 등은 경쟁력이 잠재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경제 위기를 빨리 벗어날 수 있다고 내다 봤다.

경제 위기 속에서도 희망적인 소식이라 매우 고무적이 아닐 수 없다. “위기는 곧 기회다.” 라는 말이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 성공하는 국가들, 위기를 극복한 국가들 뒤에는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 부지런한 사람들의 힘이 컸다. 이들은 매사에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사람들이다. 남 탓보다는 내 탓으로 성찰하는 사람들, 불만보다는 포용과 이해를 선택하는 사람들, 이들이 진정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다.

경제 회복을 위한답시고 말로만 나불거린다거나 남의 발목을 잡는 행위, 집단위기적인 행동, 분열을 획책하고 선동하는 행위 등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라가 분열되고 힘이 분산되면 경제 극복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일부정치권에서는 경제 극복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 다툼에만 골몰하고 있다. 눈살 찌푸리는 우리의 국회를 보면 과연 백성을 위한 민의의 정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상생의 정치는 실종되고 백성을 실망시키는 행위는 경제회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행동이 과연 무엇인지, 모를 리 없는 이기적인 정치인은 백성의 대변자가 될 수 없다.

경제 극복에는 여와 야, 좌·우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만 한다. 우선 위기를 극복하고자하는 의지와 실천하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진정한 용기 그리고 남을 위한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이 뒤따를 때 우리의 경제위기는 반드시 극복될 것이다. 아무리 어둡고 긴 터널도 반드시 끝이 있는 법, 캄캄한 긴 터널만 빠져나오면 햇살이 눈부시게 내려쬐는 따뜻한 봄날이 펼쳐질 것이다. 고통과 아픔이 눈앞에 있다 해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인내와 용기를 잃지 않을 때에 반드시 희망은 찾아온다.

세계 각국에는 우리보다 더 고통받고 신음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행운이 아닐 수 없다. 때로는 “역경도 행복이다.” 라는 말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나라는 과거 외환위기를 국민이 온 힘을 모아 단기간에 극복한 바가 있다. 그 저력은 모두 국민이 피나는 노력의 결과였지만 내외적인 환경 호조에 힘입은 바도 컸었다. 이제는 돌과구를 안에서 먼저 찾아야 한다. 우선 정쟁이 사라지고 규제개혁, 감세, 성장 동력, 일자리 창출 등, 살을 깎는 자구책 노력을 통해 공급 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책과 조치들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해줄 것이다. 우리가 모두 온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또한, 세계적 추세인 ‘저탄소 녹색 성장’ 의 국가전략 가치를 실현해 녹색경제성장을 달성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류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 약력 >

경상남도 함양 출생

육군3사관학교 및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부 졸업

제5회 대한민국 경제올림픽아드 경제신춘문에 수필 대상(2010)

창조문학신문 신춘문에 시 당선(2009)

제1회 방촌문학상(2009)

중국 장가계의 와~와 관광

전종수

장가계(張家界 JIANG JIA JIE)는 중국 호남성 서북부에 위치해 있고 국가삼림공원과 삭계곡(索溪谷), 천자산자연보호구와 양가계 풍치 지구를 포함하여 장가계라 하는데 관광지의 면적은 390km²로서 우리시(36.38km²)의 11배나 된다.

흔히 장가계와 원가계는 별개의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경기도 군포시라고 하는 것처럼 장가계는 경기도에 해당하고 원가계는 장가계에 속해있는 지명을 말한다. 장가계는 황석채와 천문산, 천자산, 어필봉, 하룡공원을 비롯하여 미혼대와 백룡엘리베이터, 원가계, 천하제일교, 백장협, 용왕동(龍王洞)과 보봉호, 십리화랑 등 수많은 관광거리를 갖고 있어 세계인의 이목을 받고 있는 곳이다. 특히 2008년에는 북경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장가계에서는 조정경기가 개최될 뿐만 아니라 2010년에는 세계EXPO가 열리는 관계로 상해와 중국의 관광지는 자연스레 홍보가 되게 되어있고 하루가 다르게 개발과 정비를 서두르고 있어 변화를 실감케 하는 곳이다.



얼마 전 뉴질랜드의 퀸스타운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밀포드사운드를 다녀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장가계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은 토요일무와 특별휴가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중국은 경비가 비교적 저렴하고 거리도 가까워 여행하는데 큰 부담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언젠가 중국여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실천에 옮긴 것뿐이었다.

장가계 관광을 단적으로 말하자면 와~와 관광이라고 한다. 처음엔 무슨 뜻인가 했는데 자연의 신출귀몰함이 그렇게도 아름다울 수가 있는지 보는 이로 하여금 와~하고 감탄사를 연발하는 것이 유래되어 와~와 관광이라고 한다.

인천공항에서 상해포동공항까지는 두 시간 거리인데 중국이 한국보다 한 시간 늦어 일정표에는 3시간 차이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시간 거리이고 한국보다 1시간이 늦다. 상해에 도착하여 장가계까지는 국내선 비행기로 이동하여야 하는데 상해에 도착하여 시간이 남아있는 관계로 이런 저런 관광거리를 찾다보니 상해임시정부청사가 떠오른다.



상해 임시정부청사는 삼일운동이 일어나던 해인 1919년 정식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독립운동가들이 임시로 수립한 정부를 말하는데 3.1운동이 전민족운동으로 확산될 때 독립정신을 집약하여 우리민족이 주권국민이라는 뜻을 표현

하고 독립운동을 능동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조직되었는데 광복이 되던 1945년 8.15일까지 27년간 상해를 비롯한 중국 각처에서 우리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투쟁해 왔다. 국제법상으로 정부라고 했을 때는 통치권이 미치는 영토가 있어야 하고 국민이 있어야 하는데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관계로 일반 정부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3.1운동을 전후하여 국내외 7개의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상해를 거점으로 1919년 9월에 개헌형식으로 통합되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탄생하였지만 미국과 중국, 소련 등 열강의 냉대와 비협조로 독립운동은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1932년 4월에는 윤봉길 의사의 활거로 일본제국의 침탈이 극에 달하게 되자 임시정부는 상해를 떠나게 되었고 1937년에 발생한 중일 전쟁으로 중국 각처를 옮겨 다니는 수

난을 겪다가 1939년에 치장으로 옮긴 후 광복 때까지 운영하게 된다.

“양자강 깊은 물에 낚시 드리고 독립의 시절 낚던 애국지사들, 한숨과 피눈물로 물들인 타향, 아침 꽃 저녁달이 몇 번 이드나. 가슴에 맺힌 한을 풀길이 없어 산 설고 물선 땅에 수십 년 세월, 목숨이 시들어서 진토가 된들 배달민족 품은 뜻을 버릴까 보나. 의분과 인내 속에 강은 더 흘러 내일의 기쁜 날을 맞이하려는 자유와 독립의 힘찬 종소리, 무궁한 삼천리에 울려 퍼지리.” 독립군가 가운데 애국지사의 노래 가사가 가슴을 찡하게 한다.

임정청사 주변은 50년대를 방불케 하는 낙후된 주택들이 있고 가정에서 걸어놓은 빨래가 관광객을 환영하고 있는데 열악한 환경을 직감할 수 있었다. 임시정부청사에 들어서자 10분 간의 녹화테이프 시청을 한 다음 홍보자료실에 마련된 독립운동가의 흉상 앞에 묵념을 하고 임정청사를 둘러본다. 숙연한 마음이 절로 나는 순간이다. 2층의 집무실과 주방과 회의실을 둘러보고 3층의 자료전시실을 둘러 나오는 시간은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공식 명칭이며 줄여서 중국이라고 하는데 3천 년 전 서주시대 때부터 사용돼온 것이라 한다. 2007년 6월 현재 인구는 13억 9천명으로서 수도는 북경(베이징)이다. 중국의 「중」은 중앙 또는 가운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의미로서 PRC(People's Republic of China)로 표기한다. 중국의 면적은 957만2천㎢로서 세계에서 세 번째가 되고 인구는 첫 번째가 되는데 화북(華北)지역과 화남(華南), 동북(東北), 서북(西北), 서남(西南)지역으로 나뉘고 화북지역에는 산동성과 내몽고가 있고 화남지역에는 광주와 계림, 동북지역에는 길림성과 하얼빈, 심양이 해당되고 서북지역에는 실크로드를 포함한 당나라의 수도였던 서안이 해당된다. 특히 중국은 국토가 넓어 지역에 따라 기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40℃를 오르내릴 정도로 무더운 반면 겨울에는

영하 10℃ 이상으로 떨어지는 등 기온변화가 크기도 하다. 장가계는 위도상 일본 큐슈의 가고시마 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어 우리나라보다 5℃가 높고 겨울에는 최저기온이 영하5℃ 정도로서 비교적 온화한 날 씨지만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종교는 불교와 도교 이슬람교가 있지만 누구나 종교를 믿을 수 있고 공무원과 교사는 종교를 가질 수 없다. 특이할 것은 길거리나 어디 서든 자신의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하거나 홍보할 수 없고 타인에게 종교를 강요했을 때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게 법으로 되어 있다.

3~5세까지는 유아원을 다니고, 6세부터 11세까지 6년간 초등학교를 다니며, 12세부터 17세까지 중등교육을 받게 되는데 중학교과정인 보통중학 과정과 고등학교 3년 과정이 포함되어 있고 고등교육은 대학교와 단과대학, 전문대학이 있다.

요즘은 중국도 개방화 추세에 있어 모든 한자를 간자(약자)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인사말 정도만 기억해 두자. 고맙습니다(씨에 씨에 닌), 미안합니다. 당신께 폐를 끼쳤습니다.(뿌이 부 치. 게이 닌 티엔 마 판 러), 여기서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쩨 쉰 키 초우이엔 마), 여기서 사진 찍어도 됩니까?(쩨 쉰 키 짜오 썹 마?), 이것은 얼마입니까?(쩨쓰 두 어샤오 치엔?). 발음조차 쉽지 않다.

주의할 사항은 사진촬영이 금지된 박물관이나 유적, 사찰등지에서 사진촬영은 절대 금물이다. 공항이나 군사지역, 일부교량, 기차역이나 비행기 안에서 밖을 보며 촬영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는데 공항에서 비행기를 배경으로 찍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진촬영을 금지하는 이유는 플래시의 불빛으로 인해 보안에 문제가 되거나 유물손상이 되기 때문인데 황용동굴에 들어가도 조명이 거의 되어있지 않은 이유가 이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술로 인한 실수는 용납되지 않고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수 있고 성희롱을 하면 봉변을 당하게 된다. 굳이 사진을 찍고 싶거나 특정 인물을 찍을 때에는 일단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전압은 220V를 사용하지만 전기코드는 우리나라의 110V코드인데 어댑터를 미리 준비해 가면 편리하게 가전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 상품구입은 국영상점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는데 정찰제로 운영되고 있

어 가격흥정은 되지 않지만 홍삼이나 한방관련제품, 차(茶), 비단 등은 좋다. 백화점에서도 정찰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일반 시중에서는 품질을 인정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은 얼마든지 흥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도자기 잔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살 의사가 있는 것처럼 덤비면 구입하고 나서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최소한 절반쯤은 깎을 수 있지만 만원짜리가 5천원이 되고 다시 3천원으로 내려가다가 마지막에는 천원 내지 2천원이면 거래가 이루어진다.

장가계에서 매표소(무릉원)를 지나 버스로 조금 이동하면 보봉폭포가 나타나는데 웅장하리만치 큰 바위틈에서 엄청난 폭포가 쏟아지고 있다. 보봉폭포는 바로 뒤에 커다란 호수를 끼고 있는데 댐을 쌓아서 만든 인공호수로 예전까지는 수력발전과 양어장으로 사용하다가 말레이시아 상인이 투자를 하면서 관광지로 개발하게 되었다 한다. 호수는 해발 430m높이에 있는 산정호수로서 평균 수심은 72m인데 최고수심은 119m를 넘고 있다. 호수의 폭은 150m로서 주변에는 선녀바위와 두꺼비바위, 공작새바위 등 사람모양과 새모양의 크고 작은 바위들이 줄을 서 있고 깊이를 알 수 없게 물 속에 발을 담구고 있다. 호수의 수문은 폭이 5m도 되지 않는 곳을 막아 댐을 만들었는데 자그마치 깊이가 190m란다. 유람선을 타고 한 바퀴 도는데 한시간정도 소요되지만 유람선을 타고 지나가다보면 호수에 떠있는 조각배에서 아가씨들이 나와 노래를 불러주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노래자랑도 벌여진다.



보봉호의 수문 쪽에서 내려 하산을 하다보면 아랫도리가 흔들릴 정도로 까마득한 절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난간을 부여잡고도 섬 짓한 생각이 줄을 잇는다. 호수에서 폭포 아래로 내려오면 민속공연장이 나타나고 폭포를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구름다리도 놓여져 있다. 흐린 날씨 탓에 촬영기술이 요구되지만 카메라 삼각대를 세우고 기념사진을 담아본다.

다음 행선지는 천자산의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하룡공원을 거쳐 천하제일문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가을단풍이 아직은 이른 듯한데

정상에는 곱게 물들고 있었다.

천자산은 면적이 65km²나 되고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데 깎아지른 절벽사이로 설치되어 있는 케이블카를 타고 해발 1,250m까지 올라가면 시야에 펼쳐지는 경관이 장관을 이룬다. 케이블카 틈사이로 내려다보면 발아래 서있는 기암괴석과 돌 틈 사이에서 자라고 있는 소나무가 흠 한줌 없이 살아가고 있어 신비함을 더하고 절벽과 계곡의 깊이는 소름이 느껴진다. 케이블카에는 한 칸에 6명씩 탈수 있고 홍콩에서 투자를 하고 시설은 스위스에서 만들었는데 이동거리는 10분 정도 소요된다. 정상에서 내리면 무릉원의 산과 계곡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오염되지 않은 생태계 그대로 보존되어 오고 있는데 장가계가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중국 최초의 국가급 삼림공원인 장가계는 1982년에 국가삼림공원으로 지정이 되었고 1988년에 국가급 풍경구로 지정되었다가 1992년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되면서 알려지게 되었으나 현재까지 한국인들만 관광을 하고 있어 어디를 가나 한국인을 위한 간판과 식단이 마련되어있고 일본이나 외국인은 눈에 띄지 않는다.

장가계 여행은 자연관광이다. 천자산 정상에서 5분쯤 차량으로 이동하면 하룡공원이 나오는데 중국의 10대 원수 중 한명인 하룡장군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공원으로 하룡장군의 동상이 커다랗게 세워져 있다. 높이는 6.5m이고 무게는 9톤에 이르는데 1995년에 강택민 주석이 직접 썼다는 현판도 보인다. 무엇보다 하룡공원에서 내려다보면 천하 절경이라는 어필봉이 보이고 가을 단풍에 물들어 있는 어필봉은 아름답기 그지없다.

어필봉은 3개의 봉우리가 솟아있는데 모양이나 크기가 제각각이고 뾰족하게 솟아오른 바위에 흠 한점 없이 소나무가 자라고 있어 더욱 신기함을 느끼게 한다. 마치 붓을 거구로 세워놓은 것 같은데 전해지는 전설이 있다. 전쟁에서 진 황제가 천자를 향해 쓰던 붓을 던졌다고 해서 어필봉이라고 전해 온다. 하룡공원과 어필봉을 구경하고 이동한 곳은 원가계인데 장가계의 삼림공원 안에 있고 장가계의 절경가운데 하나인 천하제



일교와 미혼대, 백룡엘리베이터가 원가계에 있다.

장가계의 경치를 감상하다보면 천하제일 문을 비롯하여 계단을 오르내리는 손잡이와 안전휀스에 엄청 많은 열쇠가 매달려 있는데 젊은 연인들이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면서 변치말자는 의미로 열쇠를 매달거나 잠귀 놓은 열쇠를 절벽 아래로 던지는 풍습이 있다한다. 열쇠가 열리는 것은 헤어짐과 이별을 상징한다는 데 계곡이 깊은 곳일수록 열쇠는 많이 매달려 있다.



천하제일교는 높이 300m의 커다란 두개의 바위가 붙어 있는데 넓이는 2m정도이고 길이는 20m의 천연석교(石橋)로 되어있는데 아래로 내려다보는데도 여간 강심장이 아니고선 힘들다. 미혼대(迷魂臺)는 정신을 잃을 만큼 경치가 아름답다 해서 미혼대라고 한다. 하산하는 길목에 백룡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하산하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병풍처럼 펼쳐진 원가계의 풍경에 빠져 든다. 엘리베이터의 높이는 335m인데 상단부의 172m는 절벽에 붙어 있고 하단부 163m는 동굴을 파서 만든 관광전용 엘리베이터로 3대가 운영되고 있다. 아래에 도착하면 신선계곡으로 불리는 금편계곡을 배경으로 사진을 담으면 병풍속을 거니는 신선이 된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산책을 하면서 원시림 속에 묻혀 산림욕을 해보는 것도 좋을 일이다.

어디를 가나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장가계는 여행의 기분을 최고조로 만들어 주는데 충분할 뿐만 아니라 여행자의 마음을 흥분시켜준다.

장가계의 또 하나 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 십리화랑은 경치가 마치 산수화를 펼친 것과 같다하여 십리화랑이라고 하는데 모노레일이 운영되고 있다. 왕복 20달러인데 바퀴가 없는 꼬마기차로 전기로 움직이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올라갈 때에는 모노레일을 이용하고 내려올 때는 걸어서 내려오는 것도 경치를 구경하는데 좋은 방법이다.

장가계 관광을 위해서 매표소인 무릉원을 통과하게 되는데 3대 풍경구라는 식계육풍경구와 국가삼림공원을 비롯하여 천자산 자연보호구를 들어서는 관문으로서 입구에서 매표를 하면 신용카드 모양의 입

장권을 받게 되는데 카드를 인식하면서 지문도 인식하고 있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리관광이 허용되지 않도록 되어있고 개찰구는 우리나라의 지하철 출입구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던가? 풍경구를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보니 어느 듯 식사시간이 되었다. 북측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라는데 점심메뉴는 불고기란다. 상추와 야채가 담겨 나오고 60도가 넘는 북경 소주가 구미를 북돋운다. 식당의 바로 옆에는 북측상품을 판매하는 상점이 있었는데 상황버섯과 개성인삼을 비롯하여 녹용과 차가버섯을 판매하고 있었다. 어느 여행지를 가더라도 쇼핑은 필수지만 중국에서의 물품구입이란 꺼림칙한 게 사실이다.

점심을 먹고 이동한 곳은 황용동(黃龍洞)인데 모든 관광자료에는 용왕동으로 표기하고 있고 입구의 간판은 황용동으로 되어있어 헷갈리게 만든다. 용왕동은 천연동굴인데 무릉원 관광구 동쪽 17Km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전형적인 카르스트지형의 동굴로서 형성연도는 3억8천만 년 전이고 중국에서 가장 크고 원시적인 동굴 가운데 하나로써 동굴속의 평균기온은 15~20도를 가리킨다. 동굴의 길이는 30여Km나 되는데 동굴내부의 높이는 50m 쯤 되고 현재 3.5Km밖에 개발하지 못했다는데 총 길이의 9분지 1 쯤 되는 셈이다. 관고아시간은 약 2시간 쯤 걸리고 동굴면적은 10만km²로서 동굴 속에 동굴이 있고 하늘 속에 하늘이 있다. 개찰구를 지나면 입구가 두 개 나오는데 사람의 키 높이 정도이고 좌측은 장수문(長壽門)이고 우측은 행복문(幸福門)이란단다.



동굴입구에서 조금 들어가면 동굴내부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2Km 쯤 들어가는데 폭과 수심이 10m나 되고 실내조명이 겨우 보행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천정에서 떨어지는 낙수 물 소리가 생생하다.

보트에서 내리면 종류석의 장관이 펼쳐지는데 동화의 세계에 온 듯한 느낌과 함께 황홀한 풍경에 매료된다. 내부의 석순은 총 1,705근이 있고 3m이상의 석순만 516개나 된다. 정해신칭이라는 석순은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높이만도 40m가 넘고 천정과 6m떨어져

있는데 석순이 1년에 0.1mm씩 자라고 있어 6만년이 지나면 동굴 꼭 대기에 닿는단다. 석순의 모양은 제각각이어서 원숭이 모양, 닭 모양, 로켓모양, 사랑을 나누는 형상, 이별장면, 후궁의 모습, 천정에 매달려 자라고 있는 산삼모양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 형상 등 인간세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동굴에는 조명이 최소한만 되어 있는데 석순이 자라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 한다.

오후 일정으로 장가계의 최고봉이라는 천문산(1,528m)으로 이동하였는데 장가계역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까지 이동하였다가 중간지점으로 다시 내려와서 중간지점에서 버스로 천문산을 오르게 되는데 케이블카의 길이는 편도 7,455m이고 높이는 1,277m로서 아시아 최장의 로프인데 정상에 올라서서 내려다보면 까마득한 절벽이 아름답기 그지 없다. 천문산에는 해발 1,000m쯤에 커다란 돌구멍이 있는데 높이가



131.5m나 되고 넓이가 57m로 동굴의 이름을 천문동이라 하고 1999년에 열린 세계 곡예비행에서 동굴을 통과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천문동을 오르면 99개의 고개를 돌고 999개의 계단을 올라야 천문동에 이른다.

수려한 관광코스만큼이나 힘든 일정을 보내고 저녁식사 장소로 이동하는 길목에 토가풍정원을 들러 토가족의 생활모습을 둘러보고 쇠고기 주물럭 반찬에 상치 찜으로 저녁을 맞는다.

오후 일정을 마무리하고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중국전통의 마사지를 받는데 발 마사지는 20달러면 되고 전신마사지는 25달러란다. 여행의 피로도 풀 겸 호텔에서 마사지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으니 필수코스다. 다음날은 전용버스로 강소성에 위치한 소주로이동해서 즐정원과 한산사, 호구탐을 관람하기로 하였다.

즐정원은 중국의 4대명원 중 가장 큰 정원으로서 수로와 정원이 잘 되어 있어 동양의 베니스라고 하는데 명나라 때의 어사였던 왕헌신이 관직에서 추방당하자 소주로 내려와 은둔하며 살게 되었는데 10년이 넘도록 정원 밖을 나와 보지 않고 정원을 가꾸며 사는 것을 보고 즐부(狝富)의 정원이라 하여 즐정원이라 한다. 즐정원은 북경의 이화원과 승덕의 피서산장, 소주의 유원등과 함께 중국의 4대정원으로 꼽히



는데 면적은 약 5만km²로서 내부에는 분재원과 호수를 만들어 놓고 유희를 즐길 수 있도록 되어있다. 졸정원은 원래 당나라의 시인이었던 육귀몽의 집이었다가 원대에 대광사로 바뀌었던 것을 명나라 때 왕헌신이 중앙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자 고향으로 내려와 칩거하면서 개축하였다 한다.

한산사는 당대의 고승이었던 한산스님이 주지로 있으면서 스님의 이름을 따서 한사사라 하였고 당나라의 시인이었던 장계(張繼)라는 사람이 과거시험에 떨어져 고향을 내려가다가 한산사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마침 종소리가 자신의 처지(울분)를 한탄하며 울부짖는 것 같아 “풍교야박”이라는 시를 읊게 되었는데 “고소성 밖의 한산사 종소리 야밤의 객선에 들리누나.” 라는 불후의 시를 남겨 더욱 알려지게 되었다 한다. 해마다 설달 그림날이면 한산사에서 타종행사를 갖는데 관광객들은 108차례의 종소리에 액운을 날려 보내고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새해를 맞이한다 한다. 예나 지금이나 부정과 비리는 독버섯처럼 도사리고 있었는지 장계라는 사람은 머리 좋고 영리하며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으나 뇌물을 바쳐야 과거에 합격이 될 수 있었다 하니 가난한 선비의 처지가 어떠했겠는가? 한산사에서 조금만 이동하면 호구탑이 있는데 현존하는 중국 최고의 벽돌 탑으로서 중국의 “피사탑”이라 한다. 호구라는 이름은 춘추시대 오나라의 왕이었던 “합려”의 묘지에서 장례를 치른지 3일째 되던 날 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능을 지켰다는 전설에서 유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또 다른 전설은 호구 전체의 모습이 호랑이를 닮아 붙여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호구탑이 있는 곳은 높이 40m의 언덕으로 소주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알려져 있고 탑의 높이는 47.5m인데 약간 기울어져 있다. 입구에서 조금 들어가면 갈라진 바위 하나가 있는데 오 왕 “합려”가 검을 시험하기 위해 내리친 것이라 한다. 다음 여행지는 2010년 세계 엑스포가 열리는 상해로 이동했다.

상해(상하이)는 1842년 남경조약으로 개항을 하면서 경제, 무역, 기술, 문화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고 북경, 천진과 함께 중국의 3대



직할시로 되어있다. 상해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기밖에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업의 도시다. 중국의 근대화를 상징하듯 빌딩 숲을 이루고 있지만 한 쪽에는

1950년대의 한국을 방불케 하는 주택들도 공존하고 있다.

상해의 관광지는 동방명주와 남경로와 상해서커스, 황포유람선관광을 비롯하여 자기부상열차관광을 들 수 있는데 자기부상열차는 중국에서 자체개발한 것으로 바퀴의 회전 없이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첨단 고속열차인데 상해의 푸둥 국제공항에서 용양로(龍陽路)역까지 30Km구간만 개통되어 운행되고 있는데 세계 최초의 자기부상 열차이고 최고시속은 431Km로서 운행시간은 7분 20초가 걸린다 한다.

상해의 인구는 경기도와 비슷한데 1,200만 명을 넘었고 우리나라도 거주인구 5,008만 명을 넘어섰다. 상해의 상징은 무엇보다 외탄지역의 현대식 건축물이다. 건축법상 건물모양을 같게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건축물과 조명으로 건축박물관을 보는 것 같다.

야간에는 모든 건축물에 조명이 들어오는데 저녁6시부터 11시까지는 의무적으로 조명을 하여야 하고 전기료의 절반은 정부에서 부담하게 된다. 동방명주는 남산에 있는 서울탑과 같은데 상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로서 야간이 되면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더욱 아름답게 빛난다. 상해의 중심부를 지나는 황포강에는 야경을 관람할 수 있도록 유람선이 운행되고 있는데 1시간이 소요된다. 상해의 한강이라는 황포강의 배를 타고 유람하면서 시원한 맥주를 꺼내들면 부러울게 무엇이겠는가?

여행의 마지막 날이다. 쇼핑도 할 겸 남경로거리를 나갔다. 중국 최대의 변화가로 알려져 있는데 현지에서는 난징루라고 한다. 서울의 인사동이나 명동 거리를 연상하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상해는 멋지고 화려하다는 것을 여기서 느낄 수 있다. 총길이는 5Km인데 각 양각색의 상점과 거리공연이 이어지고



줄지어 서있는 백화점에서 벌떼와 같은 인구가 몰려다닌다. 일반차량은 다니지는 않는데 경찰차와 미니열차가 쇼핑객들을 태우고 다닌다. 중간 중간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의자가 설치되어 있어 청춘남녀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남경로를 휴식처로 이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을 여행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말하자면 아시아권에서 가장 발전 잠재력이 있는 나라이다. 부존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가장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행 중에 물은 사서 먹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호텔에서나 밖에서 수돗물을 그냥 마시면 설사나 복통을 일으키게 되므로 판매하고 있는 물을 마셔야 한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호텔은 외국인이 머물 수 있는 호텔은 정부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반점<飯店>, 주점<酒店>, 빈관<賓館>이라고 쓰인 곳만 이용할 수 있고 여사<旅社>, 여관<旅館>, 초대소<招待所>라고 되어있는 곳은 중국인 전용으로서 외국인이 머물 수 없다.

여행지를 돌아다니다 보면 교통신호를 만나게 되는데 누구나 차량이던 보행자든 신호를 무시하고 다니기 때문에 교통신호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기 때문에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건너야 한다.

식당을 찬청<餐廳>이라고 부르는데 반점<飯店>, 주루<酒樓>, 채관<菜館>, 주가<酒家>라고 하고 분식집은 소결점<小屹店>이라 하고 길거리 음식은 옥대<屋臺>라 한다. 전통차를 마시는 곳을 다관<茶館>이라 하고 식당의 간판에 정종<正宗>이라고 되어있는 곳은 우리나라처럼 「원조집」이라는 뜻이다.

어디를 가나 안전을 강조하는데 휴대용 가방은 앞으로 매는 것이 좋고 옆으로 달고 다니거나 뒤로 매면 남의 것이 된다.

술은 백주라고 하는 「빼갈」을 중국인들은 최고로 치는데 알콜도수가 같다고 하여 술값이 같지는 않고 천차만별인데다 53도에서 도수가 떨어지면 가격도 내려갈 뿐만 아니라 술맛도 떨어진다. 식당에서는 그릇의 이가 떨어진 접시를 받으면 복이 온다는 속담이 있으니 오해하지 않아야 하며 오랫동안 손님을 맞이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한 번쯤 틈을 내어 여행을 떠나보자 !

의학전문대학원의 쏠림현상에서 본 이공계 위기와 그 타개책

윤경희

미국식 교육의 ‘벤치마킹’의 산물인 의학전문대학원이 초기의 설립취지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도출했다. 상위권 5개 대학의 학생들로 편중된 것은 물론이고 공대와 생물, 화학 등 기초과학분야의 학과출신들이 합격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을 유치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당초의 목표는 빗바래졌다. 이대로는 결국 동일한 학생들이 기존의 6년제 의대를 4년의 학부 생활 뒤에, 다시 4년 동안 전문대학원 진학을 해서 2년 돌러가는 형식으로 바뀐 것과 진배없다. 지금도 대학가에서는 등록금을 인하하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빗발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기에 이는 시간적,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이거니와 그렇지 않아도 지친 이시대의 젊은이들을 더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또한 여기에 국내의 우수한 이공계 인력들의 누출현상도 빼놓을 수 없다. 의학전문대학원의 합격생의 반 이상이 이공계 출신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기서 의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이 잘못 되었다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암담한 미래를 본다. 젊은이는 좀 더 진취적이고 도전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똑똑하고 혈기 방장한 20대 청년들이 불치병을 치료

하기 위한 신약개발이나 인간의 유전자적 새로운 기질 발견이라든가 하는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 병원을 차려놓고 감기 환자를 보는 일들을 하기 위해 그 6년의 시간을 인내하고 또 전문의가 되려고 수없이 많은 힘겨운 날을 견디는 것에 대해 나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안정된 생활의 대가로서 20대부터 30대까지 그 빛나는 청춘을 고스란히 반납해야 하는 더 없이 슬픈 일인 것이다. 물론 청년실업의 어두운 그림자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게다가 지금은 세계적인 경기의 침체로 더더욱 취업난이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이공계인력의 누출현상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특별공무원의 하나로 이공계 연구원을 채용해서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 주최의 프로젝트에 투입시켜서 국가적인 신기술개발이나 소재발견에 힘을 쓰게 하면 환상적일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유의미한 연구 실적이 나왔을 적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에 이를 홍보하고 연계하여 추가적인 일 자리를 창출하고 그 기술들을 적용하여 신상품 개발이나 상용화시키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사회 분위기도 적잖이 문제가 있다. 기초과학자가 직업이라고 말하면 누구라도 그 사람은 부유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이 발전하려면 기초과학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학자라는 직업을 가졌다고 말한다면 저 사람은 참 먹고 살 일은 걱정이 없겠구나 하고 생각해야만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의 대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참담한 현실만 있는 것은 아니다. 희망의 징조도 찾아보면 꽤 있다. BK21이라던가 삼성장학생을 이공계중심으로 뽑는다면 하는 것들은 꽤나 고무적인 것들이다. 우리가 미국의 교육제도를 벤치마킹하면서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을 들여왔는데 정작 그 교육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는 과학자가 굉장히 대우받는다는 뒤바뀐 현실을 잘 곱씹어 봐야 한다. 선진국의 교육제도를 가지고 더 후진국으로 갈 수도 있다는 뼈아픈 통찰을 해야 할 때다.

이 지점에서 우린 대만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만 정부는 세계적 학회에 출품한 논문이 비록 채택되지 않

더라도 해당 연구팀에게 1,000달러를 지원한다. 대학 연구팀에게 필요한 반도체 칩 등을 위한 별도의 컨소시엄이나 펀드들도 많다. 일례로 대만의 반도체 기업인 TSMC는 연구가 활발한 대학교에 최신 반도체 생산라인을 직접 만들어 주는 등 학계의 연구개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식 교육제도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 또한 함께 들여왔어야 했던 것이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고령의 과학자들이 평생 연구를 지속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그래서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일본에서 자주 나온다고도 한다.

직업평론가인 김준성 연세대 생활관 차장이 했던 말처럼, ‘국가 고경력 과학자 은행’을 만들어도 좋고 아니면 고소득의 공무원 연구직을 개설해도 좋겠다.

하물며 중국은 또 어떠한가 중국 정부는 매년 2명의 과학발전과 산업에 공로가 큰 사람을 뽑아 국가주석이 상을 수여한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분야에서 공로가 큰 2,500명의 과학자에게도 상을 수여한다. 원자바오 총리는 과학기술분야 발전이 국가최고의 정책분야라고 언급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한데는 대학 이공계 출신의 엘리트그룹인 경제 발전주체의 힘이 컸다. 이 바탕에는 유능한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주택제공과 자금지원 등 든든한 지원책이 존재한다. 후진타오 국가주석,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 등 중국 국가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 9명이 모두 이공계 출신이라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 정부는 2005년에만 중국 전역에서 40만 건의 각종 과학 관련 행사를 주최했고, 17만 9천회의 과학기술강의와 6만 1천개의 과학기술전시회를 개최했다.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진작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우리도 이처럼 시스템적이고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보고 국가의 정책대안을 세워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도 당파싸움과 서로의 이해문제로 국회에서 소모적인 논쟁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발전적인 문제들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해결하는 것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에는 당파도 이념도 없다. 온전히 나라를 위한 일이지 않은가. 모름지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이처럼

인재양성은 국가와 사회발전의 근본적 초석이기에 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인데 모두가 팔을 걷어붙여야 마땅하다.

< 참고기사 및 자료 >

“한국 반도체학계, 대만 앞에선 기죽어”

- 이데일리 9월 10일자 류의성 기자의 해외 리포트

“중국, 이공계 출신에 각별한 대우” - 위계출(주중국홍보공사)

- 한국 재경신문 9월 9일 칼럼 [김준성의 직업 평론]

시장, 거기엔 그리운 사람이 있다

이순선

어느 곳을 가든 나는 시장을 들른다. 딱히 살 것도 없는 데도 시간을 내어 시장가기를 좋아한다. 오늘도 시장에 왔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야채 썩는 냄새와 상인들의 땀 냄새가 뒤범벅이 되어 구리텃텃하다. 구릿한 냄새가 내 몸 마디, 마디에 퍼지며 지나간다.

어디를 가나 시장 입구엔 작은 행상들이 길을 만든다. 시장의 길이 진열된 좌판과 좌판들로 뻗어 나가고 있다. 거무튀튀하고 때가 꼬깃꼬깃 끼어 있는 손으로 채소를 다듬고 있는 늙은 할머니가 쪼그리고 앉아 있다. 옆 집 건어물 아줌마는 때늦은 식사를 한다. 구정물과 오물들이 한데 어울려 구릿한 냄새를 풍겨도 나는 인상 쓰지 않는다. 이젠 떡 집을 지날 때 모여 있는 과리 떼를 보고도 나는 놀라지 않는다. 구정물과 섞여 막 튀겨낸 닭날개가 수북이 쌓여 있는 닭 집에서 나는 오히려 입맛을 다시며 시장모퉁이를 돈다.

이것이 시장이다. 시장은 시장다워야 한다. 시장이 시장다운 건 깨끗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시장은 빈 집같이 조용하다. 아니 폐허같이 적막하다. 세상은 변하는 데 시장

만은 변하지 않는다. 시장은 모든 이를 기꺼이 맞고 미련 없이 보낸다. 변심한 애인의 바지 자락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그런 짓은 안 한다. 시장은 가는 이를 보낼 줄 아는 것이다. 시장이 조용한 까닭은 숨 죽여 울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떠나는 이들이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소리 없이 울고 있는 것 같기만 하다. 모든 이들을 그렇게 보내고 시장은 빈 젓가슴이다. 젓가슴이 축 늘어진 내 어머니처럼 시장은 이제 쇠락하다. 시장은 가난을 알고 부자를 안다. 시장은 부자로 만들어 주고 가난을 처절하게 일깨워 준다. 시장은 부지런하다. 시장은 소멸하지 않는다. 시장은 영원하다. 시장은 그런 존재다.

썩 고구마와 옥수수 익는 냄새가 코끝을 두드렸다. 나는 바지 옆 호주머니 속에 구겨둔 지폐 몇 장을 꺼내며 딱끈한 옥수수를 집었다. 작은 돈을 두 손으로 받는 순박한 아줌마의 손길은 언제나 정겹다. 뜨거운 옥수수를 한 번 더 검은 봉지에 싸 준다. 검은 봉지를 한쪽 손으로 들고 다른 한 손에 옥수수를 들고 한 입 가득 베어 물고 나는 시장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

깔끔히 정리되고 밝은 조명이 켜져 있는 대형마트에서는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 삶은 옥수수를 먹고 싶을 때 대형마트는 시장과 사는 절차부터가 다르다. 우선 식품코너에 깨끗하게 포장된 옥수수는 보기 좋게 미리 포장되어 있다. 딱끈한 기운은 다 타버린 불씨처럼 식은 지 오래다. 그곳에서 순박한 아줌마의 인심이나 웃음은 만날 수 없다. 게다가 그것을 들고 계산대로 가져가 값을 치려야 살 수 있다. 이렇듯 대형 마트에서 따뜻한 옥수수를 먹기란 정말로 힘들다. 또 행렬 속에 떠밀려 장을 보는 대형마트와 시장은 차원이 다르다. 화려한 광고 문구에 흘러 정작 사려던 물건은 못 사오고 엉뚱한 물건을 사오는 일은 언제부터가 신물이 났다. 또 계산대 앞에 즐비하게 서서 차를 기다린다는 건 짜증스럽고 귀찮다. 사지 못해 조바심치고 내 형편을 한탄하게 만드는 대형 마트와 시장은 이렇게 다르다. 시장은 여유가 있다. 시장은 넉넉한 인심이 있다. 시장은 모든 이를 품는다. 그래서 나는 시장이 좋다.

시장 한 복판으로 들어오니 만물상이 보인다. 늘 그랬듯 그곳에서 나는 한참을 서성인다. 무표정한 만물상아저씨의 얼굴을 무연히 바라 보았다. 그 얼굴 속에서 나는 한 사람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다.

70년대 초반이었다.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전역한 뒤 집 안의 생계는 어머니의 몫이 되었다. 고향의 전답을 팔아 부자가 되겠다고 서울로 상경하신 아버지는 하룻밤을 묵었던 여관방에서 돈을 잃어버린 뒤 일어서질 못하고 계셨다. 양말 안쪽에 넣어 두었던 돈이 한 방을 묵었던 어떤 사내에게 그만 먹이가 되고 말았으니 아버지로선 엄청난 사건이었다. 그 일이 곧 무능한 아버지를 만들게 되었고 그로 인해 먹지도 못했던 술로 사십의 고개를 넘기고 계셨다. 아버지는 술이 없으면 견딜 수 없었다. 칼국수나 술이 아니면 술에 찌들어 자고 있는 모습이 아버지의 전부였다. 그런 일이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아버지는 썩은 나무처럼 방 안에서 칙칙하게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난 어느 추운 겨울,

스케이트장에 가고 싶다는 나를 무작정 데리고 아버지는 옆 동네로 갔다. 그곳은 소위 잘 사는 사람이 산다는 아파트가 있는 곳이었다. 언젠가 고추 파동이 있을 때 동사무소에 가서 줄을 섰던 곳이기도 했다. 아파트 입구를 중심으로 작은 상가가 이어져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다. 영문도 모르고 따라온 나는 스케이트장에 데리고 가지 않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울었다. 하염없이 울고 있는 나를 시장 입구 떡볶이 파는 아줌마에게 데리고 가더니 이내 아버지는 나를 홀로 두고 어디론가 가 버리셨다. 울고 있는 내게 아줌마는 오뎅 한 꼬치를 주며 이름이 뭔지를 물어 보셨다. 얼마가 지나 아버지는 리어 카 하나를 끌고 나타났다. 아버지는 평상시 모습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천막을 걷어내니 거기엔 만물상이 가득했다. 숟가락, 젓가락, 빗자루, 못, 수세미, 국자, 때수건, 행주, 술, 주걱, 바가지, 쓰레받기. 모양이 가지가지인 만물이 내 눈 앞에서 너울댔다.

칙칙하고 축은하고 촉촉한 아버지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빛이 일었다. 그것을 뻔히 들여다보는 내게 아버지는 떡볶이를 사 주시며, 꼭 스케이트장에 데리고 가겠노라고 약속하셨다. 나는 맛있는 떡볶이 때문에 속상한 줄 몰랐다. 아니, 아버지의 새로운 모습에 스케이트장 일은 다 잊어버렸다.

그 날도 구리텃텃한 냄새가 시장 안 깊숙이에서 흘러 나왔다. 아버지가 자리하고 있는 곳은 시장에서 인적이 뜸한 것 같았다. 왜냐하면 이미 물건을 샀거나 사려는 사람은 여러 갈래 시장 입구 중에서 유독 이 곳은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이 적은 한산한 곳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그 날 아버지 하루 종일 때타올 2장과 면장갑 10개, 옆집 아줌마가 외상으로 가지고 간 고무장갑 외에는 그 이상 팔지 못했다. 손님이라곤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겨울 해는 너무나 짧았다. 물건을 판 시간보다 물건을 정리한 시간이 더 길었을 정도로 나는 추운 시장 바닥에서 떨고 앉아 있었다. 어둑한 시장 통 골목에서 아버지는 이미 취해 있었다. 아버지의 코끝은 추운 날씨와 취기로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나는 비틀대는 아버지를 또다시 보았다. 그 모습은 비상을 꿈꾸는 어린 새보다도 더 처연한 몸부림처럼 내 가슴을 비벼댔다.

그렇게 아버지의 서울 살이는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 오래지 않아 아버지는 집안에 틀어 박혀 죽은 사람처럼 계셨다. 스케이트장은 커녕 아버지와 외출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버렸다. 아버지의 볼은 더욱 움푹 패여 갔고, 눈은 점점 초점을 잃어 갔다. 결국 아버지는 십 이년 전 위암으로 돌아 가셨다.

만물상 앞에 나는 쪼그리고 앉아 진열된 물건을 본다. 손가락, 젓가락, 빗자루, 못, 수세미, 국자, 때수건, 행주, 숯, 주걱, 바가지, 쓰레받기. 그 물건들 사이로 아버지가 보인다. 나는 매번 구릿한 냄새가 온 몸을 돌아 내 심장을 비집고 들어와서는 심하게 요동쳤다. 늘 그랬다. 이 알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은 시장을 들어서면 솟구쳐 올랐다.

자식들을 키우고 부모가 되어보니 이제야 아주 조금 철이 들었다. 철이 들어 아버지를 생각하니 우리 아버지야말로 시대의 불운아란 생각이 들었다. 경제 공황이 있던 그 시절 나의 아버지뿐 아니라 그 시절 아버지의 모습은 대부분 그랬다. 일할 곳이 없었고, 일해 봤자 막 일이었다. 두 집 건너 집에는 아버지가 동네 화투 방 모여 앉아 시간을 밀어 내고 있었던 그 시절이었다. 우리는 다행히도 좋은 시대에 태어나 부모 세대가 일궈낸 삶의 터전에서 잘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아버지보다 행운아였던 것이다. 푹푹하고 잘나서 세상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세대의 고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 세대야말로 일제 식민지 시대와 6.25사변을 겪은 불운의 세대이지 않은가. 가난과 질곡의 격변기를 겪으며 살아야 했던 우리들의 아버지가 있었기에 지금이 있는 것이다. 그 시절 우리들의 아버지들의 꿈, 그 꿈이 있었기에…

그런데도 나는 또 얼마나 어리석었던 가? 현실과 타협하지 못하고 부적응하며 무능력한 아버지에게 많이 원망을 했었다. 술주정뱅이라고 부끄러워했던 지난 기억들이 떠올라 나는 더 이상 그 앞에 있을 수 없었다. 나는 때 수건과 면장갑 10개를 얼른 집는다. 쾅한 눈으로 힘없이 손을 내미는 만물상에게 거스름돈을 받지 않고 돌아섰다.

시장에 가면, 난 그 시절 아버지를 만나듯 서글픔과 연민의 감정이 들고 아버지의 꿈을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다. 솔직히 말하면 대형마트를 외면하고 시장을 가는 것도 다 이런 이유가 더 컸던 것 같다. 또다시 한번만 그 시절로 돌아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면 난 그 때의 일을 얘기하고 싶다. 아버지를 이해하노라고, 세상을 아노라고 말이다. 이제 나도 아버지와 같은 불혹의 나이인 것을 아버지에게 말해주고 싶다.

시장에 가면, 난 한참을 만물상에서 머뭇거린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시장 어느 한구석에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는 만물상의 물건들을 펼쳐 놓고 꿈을 꾸고 있던 바로 그 사람.

그리움으로 만물상에서 집어 든 물건을 들고 나오면 한 소쿠리 가득 이름도 모르는 나물을 반나절 기다려도 팔지 못한 할머니가 보인다. 나는 그 앞으로 다가가 나물을 모두 산다. 한 손에 옥수수 다른 한 손에 나물을 들고 나는 생각한다. 꿈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꾸는 것이라고. 비록 작은 꿈일지라도 꾸는 동안은 행복한 것이라고 나 혼자 곱씹으며 걷는다.

나는 소멸하는 시장의 전등 불빛들을 뒤로 한 채 세상으로 나아간다. 몇 일간의 식량을 비축한 사람처럼 오늘도 난 시장과 작별한다.

시장에 가면

이후남

우리 동네에는 시장이 없다. 택지개발로 만들어진 네모반듯한 아파트 단지 사이사이에 대형마트와 대형슈퍼마켓들이 들어서 있다. 그곳에 가면 깨끗하게 포장된 제품마다 가격표가 붙어 있고 여름에는 시원하며 겨울에는 덥기까지 하다. 내 주위의 젊은 사람들은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은 재래시장에 잘 가지 않는다. 나는 일 년에 한 두 번 짬을 타고 삼십 분 정도 가야 하는 시장에 간다. 딱히 살 것도 없지만 구경삼아 한 바퀴 훑 둘러보곤 한다. 기껏해야 호떡이나 찜빵 같은 주전부리 몇 가지를 사가지고 돌아온다. 그리고 나면 나도 모르게 궁금증이 해소된 듯 마음이 편안해 진다. 이런 현상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몇 해 전 친정아버지가 우리집에 오신 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집안에 계시기가 답답하셨던지 나에게 시장이 어디냐고 물으셨다. 아버지는 생전 처음 오신 도시에서 혼자 버스를 타고 시장에 다녀오셨다. 아버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져 있지 않았다.

아버지는 시장에서 삼십 년 가까이 생선 가게를 하셨다. 나는 어린 시절을 시장에서 보냈다. 가게 안쪽에 딸린 단칸방에서 부모님과 고등학생 언니와 갓난아기였던 막내 동생이 함께 잠을 자고 밥을 먹었다.

시장에 사는 아이들은 이름이 따로 없었다. 과일집 아들, 정육점 딸이 아이들의 이름이다. 나는 어물전 이씨네 셋째 딸이었다. 우리의 놀이터는 시장바닥이었다. 각자의 가게에서 몰래 가져온 먹을거리를 펼쳐 놓고 어두워질 때 까지 소꿉놀이를 하며 놀았다. 목소리 높여 부르지 않아도 아이들은 저녁시간이 되면 단칸방 작은 밥상에 둘러앉았다. 어머니는 그날 팔다 남은 생선 한 마리를 지져서 아이들의 배를 채웠다. 그렇게 딸들은 자라서 말만한 처녀가 되었고 아버지는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 되었다. 십 수 년 전부터 대형마트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재래 시장의 경기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아버지의 생선가게도 문을 닫게 되었고 우리가족은 시장을 떠나게 되었다. 부모님께 남은 것은 작은 집 한 채와 관절염과 동상후유증이였다.

다섯 명의 딸들은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면서 차례로 고향을 떠났다. 잔병치레를 하던 어머니도 몇 해 전 세상을 뜨고, 이제 고향집에는 아버지 혼자 살고 계신다. 자기 자식들 거뉘 먹이기도 바쁜 딸들은 가끔씩 얼굴을 내밀 뿐이다. 나 역시 겨우 일 년에 몇 번 고향에 내려간다. 그때 마다 아버지의 반찬거리를 사기 위해 시장에 들렀다. 몇몇 아는 얼굴이 보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주인이 바뀌었다. 내가 아는 얼굴들은 나의 부모님보다 나이가 많거나 비슷할 것이다. 해가 갈수록 아는 얼굴들이 사라지더니 몇 해 전부터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애써 설명하지 않는 이상 시장사람들은 나를 모를 것이다. 이제 나는 편한 마음으로 시장을 구경한다. 물건값을 깎지 않는 너그러운 손님 노릇도 한다.

지난 여름에는 딸아이를 데리고 시장에 갔었다. 대부분의 시장이 그렇듯이 입구에는 양말, 과일 같은 비교적 깨끗한 가게들이 있고 안쪽으로 들어 갈수록 채소, 생선, 정육점 같은 냄새나는 가게가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아이에게 여기가 엄마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이다, 할아버지 가게는 저기였다, 설명하면서 눈으로는 찬거리를 찾고 있었다. 아버지는 장사하면서 지겹도록 먹었을 생선을 여전히 좋아하신다. 나는 생선 가게가 몰려있는 골목으로 들어섰다. 아주머니들이 바닥에 스

티로폼박스과 고무다라이를 늘어 놓은 좌판이 이어졌다. 나는 싱싱한 갈치와 오징어와 동태를 모두 갖추고 있는 가게를 찾느라 두리번거렸다. 그 때 뽀글뽀글 과마 머리를 한 나이든 아주머니 한 분이 눈에 들어왔다. 좌판에 놓인 생선을 쳐다보고 나서 고개를 들자 아주머니와 나는 눈이 마주쳤다. 새댁, 싸게 줄테니 사가지고 가요. 스티로폼박스에 담긴 오징어는 불그죽죽하니 한눈에 봐도 그리 싱싱해 보이지 않았다. 다른 생선들도 마찬가지였다. 얼음은 다 녹아내렸고 더위에 지친 파리는 느리게 날아다녔다. 나는 아주머니의 눈을 외면하고 좌판을 지나쳤다.

나는 그 아주머니가 누군지 기억한다. 그녀는 이십여 년 전 시장에서 어머니와 꽤 친하게 지내던 아주머니였다. 그 때도 그녀는 고무다라이 몇 개를 시장바닥에 늘어놓고 장사를 했었다. 많이 늙었지만 예전 그 얼굴이 남아 있었다. 아주머니는 나를 못 알아보는 눈치였다. 나는 발걸음을 옮기면서 잠시 망설였다. 내가 누군지 설명하고 아주머니의 싱싱하지 않은 생선을 살까. 저기 조명이 화려한 가게에 있는 싱싱해 보이는 생선을 살까. 나는 생선은 사지도 못하고 시장을 빙빙 돌고 있었다. 모른 척하며 다시 돌아가 아주머니의 생선을 살까. 아직도 좌판에서 저러고 있는걸 보니 사는 형편이 어려운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팔아 준다고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물건도 시원찮아 보이던데. 나는 조명이 반짝거리고 생선 위에 얼음이 수북이 쌓여있는 가게로 갔다. 나는 검지 손가락으로 몇 가지 생선을 가리켰고, 젊은 주인은 서둘러 생선을 토막내고 다듬어 비닐봉지에 담았다. 나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들고 그 아주머니의 좌판을 피해 다른 길로 돌아서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께 그 아주머니 이야기를 했다. 뭐하느라 아직도 좌판을 벗어나지 못했대요. 나는 나도 모르게 아주머니와 아주머니의 가족들에게 화를 내고 있었다. 아버지는 한참 후에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셨다. 그 아줌마는 그렇게 살고 싶었겠냐. 이십여 년이 흘러도 궁핍한 삶을 벗어나지 못한 그 아주머니를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에 우리 가족은 그래도 괜찮게 살고 있다는 안도감이 자리를 잡았다.

내가 왜 그 순간 아주머니를 모른 척 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 나는 어쩌면 지난날의 궁핍을 외면했는지도 모르겠다. 나도 그 아주머니와 똑같은 어머니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를 마주치자 가난했던 시절의 어머니를 만난 것처럼 놀라서 나도 모르게 그 자리를 피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면 내가 가끔씩 시장구경을 가는 것은 그곳이 그리거나 특별한 추억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가게에 딸린 단칸방에서 일곱 식구가 가로세로로 누워 잠을 자던 그 궁핍함 속에서 벗어났음을, 지금은 시장의 그 사람들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가는 것은 아닐까. 이번 추석에 고향에 내려가면 아버지께도 물어 봐야겠다. 아버지는 왜 시장에 가세요?

난전의 좌판할머니

최해자

우리집에서 가까운 시장은 큰길 이면도로를 끼고 3블럭을 지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 보행자만이 다니는 인도를 노점상들이 점거한 채 거리단속반도 손 놔버린지 오래된 골목시장이자. 인도라고 해봐야 기껏 사람 둘이서 어깨를 맞대고 걸을 정도의 좁은 노퍽인데다 그나마 가로수로 서있는 은행나무 밑둥이 붙어져 있어 보도블럭이 울퉁불퉁 불편한 노면임에도, 장사꾼들은 차도갓길과 인도를 반반씩 걸쳐서 좌판을 벌여 놓고 있다. 더군다나 명절대목이라도 되면 물건 북데기들이 커져서 발 딛고 다니기가 심히 거북할 지경인데, 그럼에도 장판이 더 커지는 것을 보면 동네사람들의 인심이 어지간한가 보다는 생각이다. 요즘같이 집단 이기가 판을 치는 세상에도 아무 시시비비없이 생계를 이어가는 작업에 지장이 없으니 말이다.

어쨌건 시장가는 길은 사통팔달이다. 단지 내의 어린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나 쌍둥이처럼 서있는 우체국과 파출소, 학원이나 어린이집이 들어서 있는 큰 길 상가를 중심으로 농협을 비롯한 시중 은행도 버티고 서있고, 저마다 다른 전문성을 내건 개인병원들 사이로, 교회의 십자가도 높이 매달려서 ‘서로 사랑하라.’고 밝은 빛을 비춰주고 있지

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기가 팍팍한 걸음으로 이동식 테이블에 둘러앉아 생활고를 마시고 있다. 소주나 막걸리를 들이키며 분출되는 하소연을 머금고 노점좌판은 그렇게 늘어만 가고, 애초에 좌판을 벌였던 토박이 할머니들의 좌판지대는 좁아져 간다. 차량을 이용한 새로운 장사꾼들의 침입으로 도로는 한 차선을 먹히고서 부화가 나왔다. 매번 거리질서 단속반의 엄포에도 놀라지 않는 짐차 주인들의 두둑한 뺏장 역시 자주 만나는 익숙한 장면이다. 그러나 그들의 난감한 표정에서 소박한 내일을 빚어가는 꿈을 읽으며, 쾌적한 대형마트를 재껴두고 노점시장을 찾는 이유가 된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직 ‘덤’을 얹어주는 인심이 남아 있기도 하다. 옛날 재래시장에서나 통용되었던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풍토이며, 눈대중으로 가늠하며 집어주더라도 싫지 않은 것은 우리만이 갖는 독특한 상거래 질서중의 미덕일 것이다. 그러나 ‘덤’이 갖는 매력은 소소한 채소나부랭이나 파는 할머니들의 독과점이나 마찬가지로여서, 한 참을 더 걸어가 토박이 할머니들의 좌판지대에 이른다.

12년 전 처음 이 곳으로 이사 왔을 때는 시장 형성이 안 된 상태여서 할머니들이 가지고 나온 텃밭 채소들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그렇게 낮이 익은 할머니들이 반허리를 푸시며 “뭘 주까?” 하신다. 아침마다 벌레를 잡아주고 살살 달래서 키운 채소들을 막 채집해와 한 움큼씩 떨어내 놓고 비닐봉지를 챙기신다. 할머니의 땀이 영근 텃밭야채들은 볼품은 없지만, 노지재배라는 특성상 유기농식품으로써 인기도가 그만이다. 막 뽑아온 열무라던가 알이 듬성듬성 박힌 옥수수라거나, 구부러진 가지와 윤기 도는 애호박 등은 탐을 내는 사람들의 식탁으로 잽싸게 팔려 나간다. 과연 언젠가는 그것들을 채취하고 다듬고 운반하고 이득이 될까 싶어 여쭙보면, 받아다 파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대로 별이가 된다는 것이다. 다행한 일이지만 농사짓는 일이 얼마나 힘겨운 중노동인가 싶어 나는 여태껏 “좀 더 주세요.” 그 말을 못해봤다. 하지만 할머니는 항상 찾아오는 손님에게 그 ‘덤’을 잊지 않으신다. 할머니가 살기 좋은 형편이라면 저런 노구를 이끌며 길거리 좌판을 지키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터인데, 국민소득 어찌고

저찌고 하는 말이 맹랑하게만 들린다. 무겁게 끌리는 다리심으로 발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하시는 할머니의 속사정을 외면 할 수가 없다

“할머니 다리가 많이 아프세요?”

“아파요. 무릎관절이 거자 절단났다네요.”

남은 채소 몇 가지를 추가해서 샀다. 할머니는 넓은 장우산 하나에 난장바람을 피해 앉아 연일 파를 다듬고 마늘을 까는 것이지만, 손톱 끝에 번진 푸른 물자국 만큼이나 억센 의지로, 시장판의 질서까지도 다듬으셨을 후덕한 인품을 보게 된다. “만나게 해먹어요...” 비닐봉지를 건네주시는 할머니 머리 위에 먼저 물든 노란 은행잎 하나가 사르르 내려와 앉는다.

학생문단 | 동화

조무호

童話

낮잠 자는 나무

조무호

“한숨도 못 잤어!”

코코가 하품을 하면서 짜증을 냈어. 해가 등실 떠올라 그림자가 제 키보다 짧아졌는데도 말이야. 얼마나 입을 커다랗게 벌렸던지 눈물까지 찔끔 나왔어.

코코는 지난 겨울 한솔아파트 경비실 앞으로 이사 온 매화나무야. 사실은 이사 온 게 아니라 경비실 할아버지가 데려온 거지. 뒷산 약수터 옆 할아버지네 텃밭에 있던 홍매화인데, 지난봄에 처음 붉은 꽃을 피웠을 때 향기가 얼마나 멀리 퍼졌던지 말도 못했지.

“쫄매난 나무가 어찌면 꽃이 저렇게 이빠.”

“우리 집 꽃밭에 심으면 좋겠다.”

약수터 오가는 사람들이 모두 한 마디씩 했어. 할아버지는 사람들이 코를 벌름거리며 향기를 맡아본다고 ‘코코’ 라고 이름 지었어.

할아버지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무렵, 크리스마스트리로 쓸 나무를 찾다가 돈 들여 살게 뭐 있나 하면서 코코를 데려온 거야.

“코코야, 내가 니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제? 니를 이 텃밭에 뒀다가 누가 뽑아가 뿌리면 우짜겠노. 니는 보통매화가 아니제, 홍매야 홍매. 다음 봄에도 동네 사람들이 입을 댈 거구먼. 암, 그렇고 말고.”

할아버지는 삼질을 하면서 말했어.

“코코야, 이 할아버지 따라가면 아주 뼈까뻣쩍하게 바뀔 게야. 암, 그렇고 말고.”

“에게게, 이게 뭐야,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영 판판이잖아. 그래도 벗짚으로라도 감싸주는 줄 알았어. 뼈까뻣쩍이란 게 꼬마전구로 치렁치렁 휘감아주는 거야? 그리고 이 플라스틱 물통에 심을 줄은 정말 몰랐어!”

코코는 한껏 들떠서 따라왔는데 그게 아니어서 날이 갈수록 불멘소리가 커졌어.

“정말, 지겨워 죽겠어! 도대체 이 동네 크리스마스는 언제 끝나는 거야. 꼬마전구 불빛은 이젠 꼴도 보기 싫어. 캐럴이 나오는 멜로디단추는 동네 꼬마가 떠나서 그나마 멋있지만, 귀에 못이 박인지 오래야. 이사 온 지 벌써 한 달이 훨씬 지났어. 내일이면 2월이야. 곧 봄이 올 텐데 이러다 꽃 한 송이도 못 피우겠어.”

코코는 할아버지가 아파트 둘레를 돌아보러 간 사이 까치밭로 벽에 걸린 달력을 보며 혼자 말했어.

‘지금쯤 텃밭 친구들은 뭐할까. 벌써 물감을 많이 만들었을 거야.’

코코는 텃밭 친구들이 보고 싶고 부러웠어.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얼라들은 호랭이가 물어가요. 암, 그렇고 말고.”

경비실로 돌아오는 할아버지는 무슨 신나는 일이라도 있었는지, 노랫말까지 바뀌가며 귀에 못이 박인 캐럴을 판소리 가락으로 불렀어.

“치, 호랑이가 어디 있다고 만날 호랑이 타령이야. 호랑이가 있으면 제발 나 좀 물고 가라고 해. 아주 깊은 산골에 물어다주면 좋겠어. 잠이나 실컷 좀 자게. 뭘, 울면 안 되기는 안 된다는 거야. 평평 울고 싶어. 한 삼일 밤낮 울고 싶어. 말끝마다 붙이는, 저, ‘암, 그렇고 말고’ 하는 소리도 이젠 진짜 진짜 싫어!”

코코는 이제 약이 오를 대로 올라서 할아버지가 하는 말은 모조리 거슬리나 봐.

“곧 봄이 올 텐데 올해도 꽃을 많이 피워서 통통한 매실 듬뿍 달아

다오. 암, 그렇고 말고.”

어느 날, 할아버지가 먹다 남은 보리차를 코코에게 쏟으면서 말했어.

“꿈도 꾸지 마세요, 호랑말코 할아버지.”

겉핥히면 호랑이 타령에다 말끝마다 ‘암, 그렇고 말고’ 를 붙여서 코코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말을 뱉은 거지.

“이제 제 이름은 잠만 자는 ‘잠탱이’ 코코라는 걸 모르세요?”

코코는 할아버지에게 마구 퍼부었어.

“코코야, 아직 자나? 까딱까딱.”

할아버지가 들어가자, 어디서 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코코를 깨웠어.

“아니, 누군데 내 이름까지 불러.”

코코는 누가 부르는 소리에 그만 뜻잡이 깨고 말았어.

“아니, 넌 딱새잖아. 내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

텃밭에서 자주 보았던 딱새였어.

“야, 내 이름이 괜히 딱새야? 뭐든지 딱딱 다 안다고 딱새잖아. 까딱까딱.”

그러면서 꿈지를 까딱까딱 흔들고는 머릿도 몇 번 까딱거렸어. 마치 ‘내 말이 맞지?’ 하는 시늉으로 말이야.

딱새라는 이름은 꿈지를 까딱거리고 부리로 ‘딱딱’ 소리를 낸다고 사람들이 붙여준 거지. 그런데 딱새는 그 이름이 맘에 안 드는지 만나자마자 수다를 늘어놓은 거야. 텃밭에 있었으면 코코도 딱새 말꼬리를 잡았겠지만, 오늘은 졸려서 말하는 것조차 귀찮아 그냥 넘어갔어.

“미안, 난 지금 낮잠을 꼭 자야만 해. 그러니까 오후 세 시 넘어서 놀러 와, 그때 재미난 이야기 많이 해, 텃밭이야기도 들려주고, 알았지.”

코코는 딱새를 오랜만에 만났지만, 얼른 돌려보냈어. 그리고 나서 곧 잠들었어.

“꼴이 이게 뭐야, 이 치렁치렁한 꼬마전구는 뭐고, 이 물통은 또 뭐야. 까딱까딱.”

경비실 벽에 코코 그림자가 반쯤 걸렸을 때 딱새가 왔어. 벽에는 까딱거리는 딱새 그림자까지 비쳐서 마치 그림자놀이를 하는 것 같았지.

“요즘은 크리스마스트리를 살아있는 나무로는 잘 안 만들어, 나무들이 잠 못 잔다고 말이야. 까딱까딱.”

딱새도 까딱거리는 제 그림자를 보며 말했어.

“그래 말이야. 우리 꽃나무는 겨울에 잠만 자는 게 아니야. 나뭇가지는 햇빛을 모아서 뿌리 쪽으로 내려 보내. 뿌리 밑에 물감공장이 있거든. 뿌리는 줄기를 타고 내려온 햇빛을 이웃끼리 골고루 나누지. 그 햇빛으로 개나리는 노란 물감, 목련은 하얀 물감, 나는 빨간 물감을 만들지. 만든 물감은 창고에 모아뒀다가 꽃이 필 때 꽃잎을 물들이는 거야. 딱새 너한테 물감공장을 보여줄 수 없어서 진짜 안타까워.”

“햇빛은 그냥 눈만 부시잖아, 그런데 무슨 빛깔이 그렇게 많아. 까딱까딱.”

“얘는, 무지개 봤지?”

“그래. 까딱까딱.”

“나무뿌리는 햇빛에서 무지개처럼 색깔을 골라내는 기술이 있어.”

“하, 억수로 궁금하네. 까딱까딱.”

“아까는 뭐, 딱딱 다 안다고 딱새라더니.”

“하하, 아까는 땅 위에 이야기였잖아. 까딱까딱.”

“하긴, 두더지도 아닌 새를 땅속으로 데려갈 수도 없고-, 우리 꽃나무가 봄에 한 번도 꽃을 안 피우고 그냥 넘어가는 것 봤어?”

“음-, 못 봤지. 까딱까딱.”

“그러니 내 말 그냥 믿어.”

“그래, 좋아. 그런데 이렇게 낮잠만 자면 어떡해. 까딱까딱.”

“그러게 말이야. 지금 내 가지에 맺힌 꽃망을 보이지.”

코코는 밤새 보채다 겨우 잠든 꽃눈을 가리켰어. 발그레 부푸는 꽃눈도 아이들 젖니 돈을 때 잇몸처럼 간질거리나 봐. 딱새도 새끼를 길러봐서 애처로운 마음으로 꽃눈을 바라보았어.

“그런데 무슨 걱정거리가 또 있는 거야? 낮빛이 영 아니네. 까딱까딱.”

“요 꼬마전구 불빛 때문에 꽃눈까지 보채니까 나도 사로잡박에 못

자. 잠을 푹 잔 나무들은 모두 물감 만든다고 바쁜데, 나는 이게 뭐야. 낮잠이나 자고. 그리고 나를 어디에 심어놨는지 봐봐. 이건 땅도 아니고 플라스틱 물통이야. 이 물통에 고이는 햇빛으로는 내 꽃을 물들일 만큼 물감을 만들기엔 턱없이 모자라.”

코코는 낮빛이 더 어두워졌어.

“그래, 듣고 보니 너 처지가 정말 딱하네. 할아버지한테 한 번 말해보지 그래. 까딱까딱.”

“할아버지는 내 말은 들을 수도 없어. 오직 매실을 따서 술을 담글 생각 뿐이야. 경비실 안을 봐봐. 술병 보이지? 저것도 다 우리한테서 따간 열매로 담근 거야.

“그럼, 어찌면 좋아. 까딱까딱.”

“우리가 하는 말은 딱새 너처럼 영혼이 맑은 무리는 들을 수 있지. 인간들 중에서도 아직 말을 배우지 않은 어린 아이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 그러다가 말을 배우면 우리말은 쉬 잊어버리지. 그래도 드문 일이지만, 그런 아이들 중에 커서 우리를 잘 이해하는 인간이 나오기는 한다고 할아버지나무들이 말했어. 하지만 저 할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

“그렇구나. 어쨌든 꽃을 피우려면 이 꼬마전구를 빨리 벗겨야겠네. 내가 벗겨볼까. 까딱까딱.”

“고마운 말이지만 어려울 거야. 너무 칭칭 감아서 너 혼자서는 어림없어.”

딱새는 전깃줄을 물고 힘껏 당겨보았지만 코코 말대로 턱도 없었지.

“아, 진짜 안 되네. 나 혼자 안 되겠어. 까딱까딱.”

딱새는 발가락으로 아픈 부리를 문지르며 겨우 말하고는 날아갔어.

“영차, 영차.”

딱새는 데려온 친구와 둘이서 전깃줄을 물고, 당기고, 날아도 보았지만, 전깃줄은 꼼짝도 안 했어. 코코도 용을 쓰는지 작은 가지가 휘청거렸어.

“어흐, 잘 잤다.”

기지개를 켜는 할아버지 목이 자라목처럼 점퍼 깃 속으로 쑥 들어

갔어.

“어디보자, 세월이 유수처럼 잘도 가는구나. 오늘이 벌써 말일이구만, 올해는 입춘이 언제냐.”

할아버지는 1월 달 달력을 ‘부욱’ 찢었어.

“음, 2월 4일이구먼. 옮겨올은 큰 추위도 없었으니 봄이 빨리 올 게야. 암, 그렇고말고.”

할아버지는 돋보기를 벗고 창밖을 내다보았어. 코코와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눈이 마주쳤어. 코코는 딱새가 애쓰는 걸 보고 할아버지가 꼬마전구를 벗겨주는 줄 알았어.

“원, 명칭한 새들 봤나. 꼬마전구까지 따묵을라고……”

“그럼, 그렇지. 호랑말코 할아버지.”

코코는 할아버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불쑥 말을 뺐었어. 딱새도 할아버지 말을 듣고는 힘이 쭉욱 빠졌어.

어느덧 벽에 걸렸던 코코와 딱새 그림자도 어스름에 사라지고 꼬마전구는 다시 반짝거렸어.

< 약력 >

부산아동문학 신인상(동시)

어린이동산 중편동화 당선(동화)

문예지발표 우수작품상 받음(2007년 3차, 동시)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부 졸업

인제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재학

제4회 사이버문학상

이언주

안진영

심사평

당선소감

장미숙

안성진

심사평

당선소감

제4회 서울디지털대학교 사이버문학상이 막을 내렸다. 심사위원인 임현영 문학평론가, 유성호 문학평론가, 이재무 시인, 김형수 소설가, 노정숙 수필가 그리고 예심위원인 문예창작학부 교수 이명랑 소설가는 시 당선작으로 이언주의 <발바닥>외 4편을, 가작으로 안진영의 <문>외 4편을 선정했다. 또한 생활기록문 부분의 당선작으로는 장미숙의 <아버지의 자전거>, 가작으로는 안성진의 <밤에는 모든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를 뽑았다. 2010년 제4회 서울디지털대학교 사이버문학상은 시 응모자가 613명, 응모작품은 4,500여 편에 달했다. 생활기록문은 응모자가 475명, 응모작품은 1,000여 편에 달했다. 이는 서울권 일간지 신문의 신춘문예나 유명 문예지의 응모수를 뛰어넘는 수치이다. 또한 2009년의 총 응모자 수인 551명(시)과 208명(생활기록문)에 비해서도 증가된 수치이다. 뜨거운 관심에 감사드린다. 당선자들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아울러 당선자에게는 계간 문예 '시작' 과 월간 '에세이플러스'에 작품이 실릴 뿐 아니라 등단 작가로도 인정받는 특전이 주어지게 된다. 시상식은 2월 26일(금) 오후 5시 서울디지털대학교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심사위원장 : 임현영 문학평론가(한국문학평론가협회 회장)

시 부문 심사위원 :

이재무(시인), 유성호(문학평론가, 한양대 교수)

생활기록문 부문 심사위원 :

임현영(문학평론가), 김형수(소설가, 문학평론가),

노정숙(수필가, 예심) 이명랑(소설가, 예심)

[시 당선작 - 이언주 '발바닥'외 4편]

[시 가작 - 안진영 '문'외 4편]

[생활기록문 당선작 - 장미숙 '아버지의 자전거']

[생활기록문 가작 - 안성진 '밤에는 모든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

발바닥 外 4편

이언주

전복을 씻는다
칼등이 스칠 적마다 움찔거리는 발바닥
겹겹 늘어붙은 찌든 때가 밀려나온다
파도를 등에 지고 거친 바위를 걸었을
단단한 바닥 하얗게 드러난다
군데군데 부비트랩 숨어 있던 아버지의 길은
언제나 가슴 졸여야 했고
피딱지 엉겨 붙은 물집 잡힌 발바닥엔
뜨거운 슬픔이 고여 있었다
늦은 밤 고단한 아버지 몸이 앓는 소리에
단칸방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곤 했다
있는 힘을 다해 껌질에 몸 붙인 전복
예리한 칼끝이 멍든 핏줄기를 건드렸는지
푸른 내장 주르르 흐른다
전복 등껍질 벗겨내자
때 짙은 거뭇한 패각 안쪽에
아버지의 한 생애 아롱져 있다

여자만汝自灣

빨배 탄 아마조네스 꼬막껍질을 밟고
태고적 자궁 속으로
밀립 같은 아득한 세월 달려 나온다
여자만의 사내들은 빨 밖에서 불을 쪼거나
꼬막을 구워 소주를 마신다
세상의 문 닫는 시간 안개주렴 발을 내린다
나문재 꽃무늬 속치마 축축이 젖어온다
바람도 없는 바다호수 밤새 물의 허리 껴안고
아랫도리 빠근해지도록 자맥질하는 바다
구멍마다 드러누운 파도 호흡이 거칠다
움트는 꽃잎, 검은 자궁 들썩인다
달이 여문다
여명의 문고리 잡고 몸 푸는 만삭의 여자만
양수 터진 갯벌은 질편한 해산을 하고
태를 자른다

딱딱한 껍질 열고 젓꼭지 찾는 여린 혀바닥들
스멀스멀 뒷걸음질 치는 바다
첫국밥 들인 여자만에
해미가 빠진다

충만한 밤을 지낸
여자만 여자들
빨배를 타고 또 하루 문을 연다

꽃 없는 포구 花浦에 흐드러지게 참꽃 핀다

빨래경전

어머니
지겹지 않으세요
아침마다 손으로 읽는
그 페이지
오늘은 세탁기에서 읽어요
비누거품 풍선 불면
얼룩 팡팡 터져요
통들이 난타 두드려요
온 가족 윙윙 부비부비 춤 춰봐요
우주로 밥상 날린 아버지 외박한 오빠
다 함께 차차차,
어깨를 흔들어요
온 가족 신나게 트위스트
늘어진 브래지어 고리 물고 림보 해봐요
막내 새까만 발바닥 요리조리 헤엄쳐요
벨 울려도 허리 굽히지 마세요
스텝 꼬인 빨래 쓱쓱 뽑아
비행기를 날려요

한 장 더 넘기면
어머니, 햇살 눈부셔요

하관

별 좋은 선산밭치
가묘 건어낸 네 귀 반듯한 방에
아버지를 모신다
하관 밧줄 내리자
흰 국화 꽃송이 가슴에 엮고
상두꾼 올리는 흙밥 받으신다
달구질로 꺾꺾 눌러 쌓아올린 고봉
어머니 자분자분 어루만지니
아버지 두 다리 쪽 퍼신다
새로 지은 봉분에 향 피워 흰백 부르고
메 올려 잔 친다
형제들 차례로 줄지어 엎드린다
크고 작은 등 산맥처럼 이어지는
한 家系 그윽하게 읽고 계시는 아버지
고향동네 내려 보이는 금당 산마루
양지바른 푸른 집에 언제든 다녀가라
갈참나무 가지 흔들어 눈짓 하시고
청솔 누비는 시원한 바람소리에
밝은 잠 드신다

미로 찾기

길을 잃었다
환한 통로에서 길과 엉켜버린 발
오르던 계단을 돌아서 내려가자
지하의 동굴이 迷路인지
좀 전 플랫폼이 건너편이다
빛 속으로 달려 나온 전동차는
멀미처럼 @@골뱅이를 쏟아놓는다
컴퓨터 화면을 누비던 핏발들이 몰려나와
지루한 반복 음으로 바닥을 두드린다
사방으로 뿜린 迷路에서
사람들은 未路 속으로 떠밀려간다
길은 어두운 나는
낮설고도 익숙한 경계에서
아직도 두리번거리고
벽에 걸린 지도는 명쾌하다

길을 잃는다는 것은
길을 찾는다는 것
지하철 진동이 무겁게 달았다
또 떠나고
몰려오는 발자국 소리들
미로를 빠져나간다

문 外 4편

안진영

가끔씩 열리는 문이 있다
열린 문 뒤로 다가가 가만 들여다보면
웃음 속살 같은 쌀알들이 껍질을 벗고 있었다
미끈하고 반질반질하게 태어난 알맹이들
열어젖힌 정미소 문 앞에 차르르르
마술처럼 쏟아졌다
혈떡거리며 돌아가는 거친 기계음과
깊고 어둑한 그늘을 등지고
아버지 당신의 노동은 흥얼흥얼 사다리를 오르내렸다
밥과 응석과 꿈을 받아 삼키며
나의 한나절은 뱅뱅 맴을 돌다 가끔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쌀알을 밀어내고 껍질을 벗은 노란 쌀겨들이
정미소 앞마당을 꽃가루처럼 날아오르는 순간
당신의 현기증은 허공을 딛고 나의 놀이도 멈추었다
기계의 발톱에 물린 사나운 시간들
다시는 그 마당에 가지 못했다

굳게 갇힌 문안에서 그 어떤 소리만 새어나와도
멀리 달아났다
어느 날 늙은 기계들이 밧줄에 묶여 끌려 나갈 때까지
나는 그 문을 마주하지 못했다

고향식당 정씨

사내, 한때 푸른 등을 넘어 과도를 꺾었다
부챗살 같은 굵은 가시를 펴고
사방을 헤엄치던 그 사내의 어깨가
오늘은 변두리 개천에서 꿈틀 거린다
오늘 따라 성가신 지느러미를 달래며
새벽 장을 보러 나간다
펼떡거리는 날비린내와
개흙처럼 미끈거리는 길바닥에서
일없이 담배를 피워 문 사내의 손이 타들어 간다
꼬막을 퍼 담는 할머니와
고등어 토막 내는 청년의 눈빛이 힐끔 거린다
오늘은 떨이 물건 없수다
달고 쓴 손님 척척 발라내는 고수들의 칼끝
푸르고 깊은 한 가운데
나자빠진 활어 한 마리 낚지 못하고
퍼덕이는 지느러미를 몰고 새벽시장을 빠져 나온다

마리화나를 위하여

흐린 눈 껌벽이며 먹이를 삼키는 먹구렁이
깊고 검은 입 반 쯤 벌린 채 멀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다시 번들거리는 배를 끌고 조금씩 다가오는 그를 만나러 갑니다
빙빙 다른 길을 맴돕니다
멀리 서둘러 달려온 출발점도 되 돌아봅니다
어느 곳으로도 도망칠 수 없는 돌아서면 다시 앞을 가로막는 칭칭 먹구렁이
다 큰 개망초 언덕마다 부시게 피고 움츠린 몸이 천천히 먹힙니다
더듬더듬 검은 입 속으로 들어갑니다
발밑에 어둠이 파리를 틀고 미끄러운 비탈 오르고 내리다 영킨 몸이 풀립니다
마침내 취한 해가 둥둥 떠다닙니다

박하사탕

출출한 빈 그릇이 식탁마다 둘러앉은
다 저녁 밥집에 털퍼덕 주저앉았다
육개장을 기다리며 자꾸 부어오르는 허벅지를
문지른다 이걸 어찌
다섯 시간은 더 버텨야 할 두 기둥을
달란다 달래다 일없이
휴대폰 1번을 꼭 누른다 혼자
라면을 끓이던 아이가
숙제 다 했구요 준비물도 다 챙겼어요
뒷말 이르기도 전에 아이는 전화기를 내려놓는다
야, 야 췌아쭈마 잔소리로 볶아 내온 밥상이 차려지고
별건 고추기름을 건어낸 세상은 여전히 맵다
육개장에 다시 밥을 만다 이번엔 휴대폰이 울린다
안사장 내일 세시쫄 갈게
벌써 한 달, 건물주가 과일을 씹으며 통보를 한다
입안이 화끈거리고 삶이 부어 오른다
췌아쭈마 내미는 박하사탕 받아들고
차가운 외투 부스럭부스럭 사탕 한 알 쥐어주고 돌아서던
아버지의 등 뒤를 오늘은 내가 따라 간다

나팔꽃

창신동 외판 섬
빨래가 펄럭인다 곳곳에
버려진 살림살이와
급한 걸음이 남긴 신발 한 짝
절반이 넘는 짐을 덜어 내고도
제 무게조차 견디지 못하는 철거민 아파트

담벼락에 나팔꽃 징하게 펄럭인다

심사평

(시)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와 계간 『시작』에서 주관하는 2010년 서울디지털대학교 사이버문학상에는, 모두 613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응모해주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사이버문학상의 위상을 실감하는 숫자라고 생각한다. 대체적인 작품 경향은, 최근 세대에 민감하게 편승하기보다 각자의 경험적 구체성을 바탕으로 언어 미학의 완성을 꾀하려는 의욕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할 만하다. 하지만 작품의 완성도나 미적 충실성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아 앞으로 더욱 정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 가운데 심사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당선작과 가작을 결정하였다.

심사위원의 이목을 끈 시편은, 응모자의 이름을 가나다순으로 밝히면 박은영, 안진영, 이언주, 이필은, 최정 씨의 작품이었다. 이분들의 작품이 마지막까지 심사위원의 선택을 주저하게끔 하였다. 이분들의 시편은 유려한 언어와 함께 안정된 시상을 보여주어 여러 모로 긍정적 반응을 얻어내었다. 말을 이끌어가는 힘과 이미지 조형에서도 만만찮은 역량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더러는 작품들 사이의 균질성이 떨어지고, 더러는 아직 완결성에서 미흡하였고, 더러는 신인으로서 패기가 모자라 다음 기회를 기다리기로 합의하였다.

당선작으로 뽑힌 이언주 씨는, 단정한 언어 감각과 삶을 바라보는 짙은 페이스스가 결합되어 있는 안정된 시세계를 보여주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구체적 삶과 감각이 잘 녹아 있어서 미더웠다. 시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능력도 탄탄한 훈련 과정을 입증해 보여주었다. 응모작 전체를 관철하는 균질성이 시적 능력을 신뢰하게끔 하였다. 가작으로 뽑힌 안진영 씨는, 일상 속에서 가장 구체적 삶의 모습을 노래하는 지향이 매우 반가웠다. 그리고 경험적 구체성 속에 심미적 감각을 활달하게 살려 재생하고 배열하는 언어적 힘이 관찰되었다는 점을 부기하고 싶다.

당선하신 분들에게 축하를, 마지막까지 논의된 분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린다. 앞으로 더욱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많이 나와, 서울 디지털대학교 사이버문학상의 위상을 점점 더 높여가기를 힘껏 지원해본다.

심사위원 : 이재무(시인), 유성호(문학평론가, 한양대 교수)

당선

■ 당선 - 이연주

어느 날 詩가 내게로 왔다. 손 내밀면 금방이라도 닿을 것 같은데, 한 뼘 모자라는 곳에 서서 더 이상 거리를 좁혀주지 않았다. 시인이 되고 싶었다. 잡히지 않는 갈망으로 신열을 앓았던 시간들. 이제껏 한 가지 일에 매여 이렇게 몸서리친 적이 있었던가.

가끔씩 어떻게 글을 쓰게 되었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문학소녀 시절, 행여 삼류소설이나 쓰고 있을 미래의 자신을 상상하기 싫어 문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공을 택했다. 그러나 유목민으로 낯선 곳을 떠돌던 한 때, 지평선 끝까지 펼쳐진 푸른 초원 위에 화살처럼 쏟아져 내리는 햇살 때문에 글을 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지나온 곳마다 국적 잃은 향수병을 발자국으로 찍고 다녔다.

내게 시는 ‘기쁨 두 배, 고통 네 배’이다. 수염뿌리를 허공으로 내밀어 가쁜 숨을 몰아쉬던 열대도시 가로수처럼 공기 속으로 생각의 뿌리를 내리고 연명하기엔 언제나 목이 말랐다. 다가가면 저 만치 달아나는 시를 잡기 위해 새 해가 되면서 두 권의 공책을 준비하였다. 우연이었을까. 한 권은 표제가 ‘詩作’이고, 다른 한 권은 始作이란 뜻의 ‘카이스’라고 붙였다.

이제 정말 시작이다!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게 용기를 준 쪽방동지 정하린, 오정순 씨 정말 감사하고, 당선과 함께 친정을 만들어주신 심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가작 - 안진영

폭설이 내리는 별관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미안하다고, 이미 무릎까지 덮으시고도 미안하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종일 눈이 내렸고 나는 아버지를 오래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움이 열고 다시 녹아 시가 될 때까지 매번 시에 기대고 시에게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내 서성이는 모퉁이에 문을 열어 빛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측은한 눈으로 시를 살면서 시를 쓰겠습니다.

아버지의 자전거

장미숙

들담 옆에 세워둔 자전거가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다. 지금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오래된 자전거다. 몸체는 녹이 슬고 칠은 벗겨져 있다. 핸들은 물론 짐받이 바퀴살까지 슬어버린 녹 때문에 자전거는 고철덩어리처럼 보인다. 그러나 페달과 바퀴는 아직도 쓸만하다. 안장은 솜바지를 넣고 튼튼한 힘겂으로 덧씌워 놓아 손으로 눌러보니 폭신하다. 어머니의 촘촘한 솜씨다. 짐받이의 끈은 아직 멀쩡하다. 끈은 느슨하게 풀려 반은 바퀴살에 걸려 있다.

자전거 안장을 손으로 쓸어본다. 까칠한 먼지와 함께 아버지의 체취가 묻어난다. 그러나 덩그러니 놓여있는 자전거는 쓸쓸해 보인다. 마치 아버지처럼 노쇠하여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걸 알고 있기라도 한 듯 기운이 없다. 한때는 빗속을, 또는 겨울 눈보라 속을 씩씩 달렸을 자전거다. 거칠 것 없이 달리고 달리며 자유를 꿈꾸었을 자전거가 이제는 풍경이 되어 들 담 옆에 묵직하게 놓여 있다.

바람은 맑고 달다. 하늘은 청명하고 가을빛은 무르익었다. 어디선가 금방이라도 잘 익은 감이 툭툭 떨어질 것 같은 기분 좋은날이다. 자전거귀에도 잘 익은 가을햇살이 앉아 있다. 자전거를 향해 서 있는 내 등 뒤로 아버지의 시선이 느껴진다. 아버지는 뒷마루에 앉아 벽에 등

을 기댄 채 자전거와 날 바라보고 있다. 몇 달 전보다 야윈 얼굴은 무표정하다. 살이 없어 더욱 길어 보이는 다리위로 핏줄이 도드라진 손을 올려놓고 있다. 등이 아파서 똑바로 눕지도 못하는 아버지는 조금이라도 힘을 보전하려는 것인지 벽에 온몸을 의지하고 계신다. 아버지는 자전거를 보며 생각을 더듬는지 간혹 눈을 지그시 감는다.

자전거는 아버지의 두 발이었고 자유였으며 생활이었다. 농사일은 잘하지 못하셨지만 자전거를 닦고 손질하는 건 게을리 하지 않으셨다. 멈춰버린 이성의 활동보다 육체가 더 온전했던 아버지에게 자전거는 세상으로 향하는 통로였다. 환갑 때 병원에서 퇴원하신 후 아버지는 제일 먼저 자전거를 타셨다. 아버지께 자전거를 사드린 건 어머니의 배려였고 아버지의 재활을 위한 우리 가족의 희망이었다. 아버지가 어두웠던 과거를 잊어버리고 묶여있던 정신을 활짝 펼칠 수 있도록 자전거는 아버지에게 날개가 되어 주리라 생각했다.

아무리 바쁜 농사철에도 어머니는 아버지를 위해 자전거 타는 시간을 할애했다. 그럴 때면 아버지는 금방 얼굴이 환해져서는 흙 묻은 옷 그대로 자전거에 올라탔다. 더운 여름날 저수지를 끼고 바람처럼 마을 길을 달려 나가는 아버지는 흡사 이제 막 사춘기에 들어선 소년처럼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쳤다. 굳어 있던 아버지의 등은 자전거위에서 물처럼 부드럽고 자유롭게 유평했다.

그런 아버지의 등을 보며 나는 어린 시절을 생각했다. 단 한 번, 그것도 아주 어렸을 때 나는 따뜻한 아버지의 등을 느낀 적이 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아버지와 엄마를 따라 산밭에 갔다가 배를 잡고 밭에서 구른 적이 있다. 뭘 잘못 먹었는지, 배탈이 났는지 기억나진 않지만 배가 너무 아파 영영 울었을 때 아버지는 내게 등을 내밀었다. 나는 아버지의 넓은 등에 업혀서 산을 내려왔다.

아버지는 집 자전거 뒤에 나를 싣고 이십 리 가까운 흙길을 달려 병원으로 향했다. 그때 나는 아버지의 등을 꼭 붙잡고 가뭇가뭇 잠이 들었다. 아버지의 등에서는 텅텅한 땀 냄새가 났지만 아버지의 등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편안했다. 그건 내가 기억하고 있는 유일한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뒤로 아버지의 따뜻한 등에 업힌 적도, 아니 따뜻한

등을 본 적도 없다. 내가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교를 졸업한 후 공장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참석하지 못한 결혼식장에서 작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을 때에도 내게는 따뜻한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는 쇠창살로 가로막힌 요양소 안에서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세상과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한 때 외항선의 선원이었다.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아버지는 생계를 위해 외항선을 탔다. 그러나 삼 년을 못 채우고 바다에 빠져 머리를 다치는 불행한 사고를 당했다. 그 뒤로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도, 재산도, 자유도, 젊음도 아버지에게 남은 건 치유될 지 장담할 수 없는 병마와의 기나긴 싸움이었다. 내가 중학교 때 아버지는 병세가 악화돼 당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 가족은 그 뒤로 아버지의 고독하고 쓸쓸한 등을 보며 각자 울음을 삼켜야 했다. 아버지가 이십 년 가까이 요양원과 병원에 계시는 동안 우리 스스로 자랐다. 아버지의 넓고 따뜻한 등을 가지지 못한 우리에게 세상은 망망대해처럼 아득했다.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슴 속에 묻어두고 살았지만 아버지라는 이름 앞에서 하염없이 무너졌다. 아버지를 면회하고 오는 날이면 요양원 건물의 회색빛처럼 세상이 온통 칙칙했다.

그립고 소중한 존재가 아닌, 무섭고 원망스런 아버지 때문에 나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까지 이미 마음 속으로 포기하는 연습에 익숙해져 갔다.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린 채 세상과 단절된 공간에 갇혀 있는 아버지의 존재는 우리가족에게 암흑처럼 암담한 현실이었다.

그런 아버지는 환갑이 되어서야 자유로운 세상으로 나오셨다. 하지만 이미 아버지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삼십 대의 젊었던 아버지가 육십 대의 노인으로 우리 앞에 서 있었을 때 아버지의 등은 허물어진 담장처럼 초라했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는 아버지의 뒷까지 일을 하느라 오로지 땅만 보고 살아야했던 어머니는 아버지가 퇴원한 후에도 힘든 생활이 이어졌다. 아버지의 정신은 어린 아이와 다름없었다. 그런 아버지의

생각이 되어주느라 어머니의 주름은 더욱 깊어갔다. 다행인 것은 자전거 위에만 올라타면 아버지는 건강한 사람처럼 생기가 넘친다는 것이었다. 그러다보니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더 많은 심부름을 시켰고 아버지는 자전거 페달을 돌리며 가느다랗지만 세상과의 소통을 이어갔다.

그러던 아버지의 몸에 이상이 생긴 건 지난 봄부터다. 아버지가 더 이상 자전거를 타지 않으려 한다고 어머니는 걱정이 많으셨다. 어지럽고 힘이 없어 자전거를 타다 자꾸 넘어진다는 아버지는 그 때문에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었다는 것이다. 오랜 병원 생활과 지금도 신경안정제를 복용해야만 하는 아버지에게 자전거는 더 이상 날개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깨달았다. 남동생이 아버지께 스쿠터를 사드리고 싶어 했으나 아버지는 고개를 흔드셨다. 아버지는 자꾸 힘이 없어지는데도 병원에 가는 걸 몸서리치도록 싫어한다며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곤 했다. 정신이 온전하실 때는 마치 당신의 운명을 알기라도 하는 듯 세상을 놓을 때가 되었다는 말씀도 하신다고 했다.

여름부터 몸이 부쩍 약해진 아버지는 벽에 기대어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 같다. 뒷마루에 가득 들어찬 가을 햇살에 아버지의 야윈 등이 젖어들고 있다. 아버지처럼 나도 벽에 등을 기대고 앉는다. 아버지의 따뜻한 등에서 퍼진 온기가 내게로 옮겨오는지 등이 따뜻해진다. 맑은 가을날 가슴 속으로 울컥, 잘 익은 감하나가 떨어진다.

밤에는 모든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

안성진

그때가 한 새벽 두 시쯤 되었을 것이다. 난 지인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한 시간째 국도 위를 달리고 있었다. 전조등이 밝혀주는 몇 미터 앞과 스쳐지나가는 주홍색 가로등 불빛만을 따라 핸들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던 그때, 저 멀리서 어렴풋이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난 그저 공사현장에 세워둔 마네킹 인부라 여기고 스쳐지나가던 찰나, 거기에서 검은 피부의 한 남자가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사람이다.’

순간 내 등에는 소름이 확 훑고 지나갔다. 난 몸서리를 치며 사이드미러로 보이는 멀어지는 그를 향해 ‘왜 거기 서서 사람을 놀라게 하느냐.’, ‘이 야밤에 서서 저렇게 손을 흔들다고 아무도 세워주지도 않을 텐데 왜 저러고 서 있는지 모르겠다.’ 등등 짜증 섞인 꾸밈들을 늘어놓았다.

그런데 그 흥분이 좀 가라앉자 이내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내 머리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 ‘왜’ 라는 것이 ‘그 사람이 왜 저기 서

있었을까’가 아니라 ‘내가 왜 저 사람을 보고 소름이 돋았었는가?’ 아니,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왜 난 공포에 떨었었는가?’ 하는 것이었다. 생각해보면 난 거기에 마네킴이 서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단지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던 것이었다. 그가 칼을 들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도로로 뛰어든 것도 아닌데 말이다. 사실 거기 서있던 것이 마네킴이었든, 사람이었든 지나가던 나에게 무슨 차이가 있었던단 말인가?

혹시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해코지 할까봐 두려워했던 것일까? 그건 아닐 것이다. 그가 살인마라는 것이나 위험한 인물일 것이라는 증거 따위는 내게 전혀 없었으니까. 더군다나 그 사람도 나를 무섭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서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니, 오히려 도움을 바라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럼 난 왜 그를 무서워했었던 말인가?

난 이내 졸음이 달아나 움직임이 활발해진 눈동자로 도로 옆에 줄지어 있는 검은 산들을 쳐다봤다. 그러면서 아까 행인처럼 한 밤중에 저 검은 산속을 혼자서 헤매고 있을 나를 상상해 보았다. 역시나 무서웠다. 도대체 왜? 방금 낯선 사람의 등장에 두려움을 느낀 것은 그 사람이 혹시 나쁜 사람이 아닐까 하는 기우에서 비롯된 공포였다고 한다면, 검은 산속에서 홀로 해매일 때는 왜 두려움을 느낀다는 말일까? 혹시 어둠, 그 자체가 공포를 가져다주는가?

아니다. 그건 아닐 것 같다. 만일 어둠, 그 자체가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것이었다면 매일 밤, 불을 끄고 어둠 아래서 잠이 드는 우리들은 공포에 떨면서 잠이 든다는 말일 텐데. 하지만 그렇지 않은지 않은가?

그럼 어둠이 아니라면 무엇이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는 것인가? 낮선 환경? 그 속에서 혹시 낮선 누군가라도 나타날까봐? 아니면 그 반대로 아무도 안 나타나고 그 낮선 환경에 혼자 남겨질까봐? 아하, 그렇다면 아까 그 사람도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낮선 사람’ 이라 두려워했던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럼 그 공포는 ‘낮설다’ 라는 것과 ‘어둠’ 이 함께 뒤섞여 만들어낸 결과물이란 말인가?

하지만 이내 난 그것도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난 처음 가보는 숙박업소나 친구 집에서는 불을 끄고 편안 마음으로 잠을 잘 수조차 없을 것이다. 그곳은 낮설고 어두운 곳일 테니까. 그리고 처음 가보는 찜질방 같은 데서도 난 절대 못잘 것이다. 그곳은 그야말로 ‘낮선 환경’ 에 ‘낮선 사람’ 들이 가득한 곳이니깐. 하지만 난 오히려 그런 곳에서 잠을 더 깊이 자는 편이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나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는 말인가? 그런데 그 때 내 머릿 속에서 퍼뜩 그 이유에 대한 실마리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면 나는 그를 어둠 속에서, 그것도 잠시 스쳐지나가면서 봤을 뿐이었다. 고로 나는 그를 거의 모른다고 해도 진배없었다. 하지만 그는 내 머릿 속에서 온전한 존재가 되어 나를 무섭게 하였던. 어떻게 그게 가능했었던 말인가? 사실 나에게 ‘그’ 라는 존재는 ‘그 사람 자체’ 라기 보다, 내가 밤에 스쳐지나가면서 본 그의 모습 일부와 나머지는 나의 상상이 더해져서 만들어낸 존재였던 것이다. 그렇다. 상상, 그것이 나를 두렵게 만든 것이다.

상상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마네킹이 아니라 사람이 서있는 것을 봤을 때 어찌면 내 머릿속에서는 무수한 가능성 있는 이야기들을 만들었는지 모른다. 가령 그가 살인마라든지, 혹은 탈영한 군인, 불량배 등등 현실 가능성이 높은 낯선 간에 수많은 가정들이 세워졌을 것이다. 그리고 내 머리는 만약에 그를 태워줬었다면 벌어줬을

가능성까지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의 가지가 어디까지 자라나 갔든 간에 그것은 나의 심장을 찌르고 나를 두렵게 만든 것이다. 어둠의 산 속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정말 그 산자체가 두려운 곳이라기보다 그저 두려운 곳이라고 생각해버리고 온갖 일들을 만들어 내는 나의 상상 때문에 난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다.

어둠과 상상과 두려움. 그런데 현재 젊은이들이 미래를 두려워하는 게 그와 같은 이유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비약일까? 사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중에 과연 몇 명이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선명한 상을 그려낼 수 있을까? 물론 극히 일부는 화려한 배경이나 대단한 열정으로 인해 몇 십 년 뒤의 자신의 모습을 쉽게 그릴 수 있을 지도 모르나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마치 내가 캄캄한 밤에 전조등이 비춰주는 몇 미터 세상만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미래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미지의 어둠속에서 현재가 비춰주는, 기껏해야 몇 년의 세월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것이 얼마나 확실하게 보일지는 지금 자신이 현재를 얼마나 더 많이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 개인차이가 나겠지만, 그 보이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우리 자신의 상상이 채워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상상이 차지하는 공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찌면 우리의 두려움이 자리할 수 있는 공간 또한 그와 비례해서 커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점은, 그 상상, 혹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알고 부딪혀본다면 전혀 두려워 할 것이 못될 수도 있다.

예전에 내가 아홉 살 때였을 것이다. 난 물놀이를 하다 귀에 물이 들어가 중이염을 앓았던 적이 있었다. 그리하여 이비인후과를 자주 찾아갔었는데 그 의사선생님께서 매우 친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서 나오는 ‘위잉’ 하는 그 기계소리와 특유의 이상한 약냄새는 날 두려움에 몰아넣었다. 그리하여 난 치료하기 전부터 울기 시작했다. 그때 어머니께서는 내게 물으신 기억이 난다.

“왜 울어, 어디 아프니?”

난 여전히 울면서 고개를 흔들며 이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도 난다.

“아니, 아플까봐.”

그렇다. 난 아프지도 않는데 아플까봐 엉엉 울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때의 기억을 돌이켜보면 항상 마지막에는 의사선생님께서 ‘생각보다 안 아프지?’ 라고 하시며 과자를 주시고 난 고개를 끄덕이며 그 과자를 받아들였었던 기억이 자리하고 있다.

그렇다. 예나 지금이나 날 두렵게 만든 것은 그 실체가 아니라 온갖 가능성을 만들어 내는 나의 상상이었다. 막상 닦쳐보면 별것이 아닌데도 직접 맞닥뜨릴 용기조차 앗아가 버리는 상상이 우리를 겁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밤이 되면 모든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에 그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외 나머지는 상상이 채워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밤에 그 두려움을 느끼기 싫어 눈을 감아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것은 두려움을 극복한다기보다 그저 회피해 버리는 것에 더해서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만들어 낼 뿐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두 눈을 크게 뜨고 미래를 직시하자. 물론 그렇게 한다고 미래가 밝게 보일 리는 만무할 것이다. 어차피 미래는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하지만 적어도 쓸데없는 공상에 사로잡혀 미래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겁쟁이는 되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현재에 좀 더 집중해보는 것이 어떨까? 어쩌면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캄캄하거나 막역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생각을 좀 바꿔보기를 바란다.

보이지 않기에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잘 모르기에 더 무모해지고 더 용감해 질수도 있는 것이다. 혹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고. 그렇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결국은 밝은 아침이 오듯 캄캄한 미래를 통과하여 우리가 생각한 밝은 현재를 맞이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오늘도 청춘들이여, 건투를 빈다.

심사평

(생활기록문)

생활기록문 총 응모자는 475명이었다. 여기서 생활글 혹은 수기라 하든 수필이나 에세이라 하든 산문미학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압도적 물량에 이를 만큼 풍성한 투고작 중 상당 수가 산문 형식을 자신의 신세한탄과 녀두리에 빼앗기고 있었다. 말이든 글이든 자기 연민에 익사해서는 상대의 마음을 흔들지 못한다.

여러 차례에 걸쳐 거르고 거르면서 붙들게 된 글들은 첫째, 삶의 경이와 존재의 새로움을 드러내는 산문적 사유를 획득하거나, 둘째, 인간의 운명을 끌고 가는 사랑·상처·꿈·좌절·성공·실패의 구태의연한 포착이 아니라 새로운 발견으로 승화한 경우, 셋째, 현실이 갖 추고 있는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그려낼 수 있는 형식이나 문체를 획득한 경우에 속했다.

최종적으로 경쟁한 작품을 이야기하기 전에, 언급해두고 싶은 인상 깊은 작품들이 있었다. <나만 알고 싶은 나라>는 단행본 수준으로 기획 집필된 장편에세이였다. 브라질이라는 나라를 의인화하여 한 계단, 한 계단 안내해 들어가는 점은 높이 샀으나 독자를 길고 깊은 산문세계로 끌고 가려면 그만한 매혹을 가진 통로를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나만의 거리에 남은 햇살>, <길 위의 날들>도 인문학적 서술 능력을 보이는 아까운 작품이었는데, 지루해지지 않도록 센텐스를 구획해가는 솜씨는 능란하나 낭만주의적 새로움에 도취된 문체가 아닌 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세계를 섬겨서 이야기할 줄 아는 능력일 것이다.

또 한편 <힘들면 내게 기대렴>도 야심찬 작품으로 발상이나 사건 전개가 소설적인데, 한 걸음만 떨어져서 보면 픽션 작가들이 흔히 선택하는 ‘너무 낮은 서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최종적으로 <이불 사건의 전말을 말씀드립니다>, <밤에는 모든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의 자전거>를 놓고 당선을 다투었는데, <이불사건의 전말을 말씀드립니다>는 신산한 삶을 낙관적으로 소화해내는 산문정신과 걸죽한 입담의 형식을 획득했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썼는지 그만큼 깊이를 얻어내지 못함으로써 걸작에 이르지 못했다.

<밤에는 모든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그간의 수필이 ‘문예취향’이라는 닫힌 구조에 빠져 있다면 그것이 에세이로서 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높이 사고 싶었다. 현란한 지식이나 관념적 틀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동작을 포착하여 사유를 이끌어가는 태도와 솜씨 모두 훌륭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마무리에서 계몽적 의도가 발생하면서 교훈적 메시지를 남기는 순간 문학적 긴장이 푹 떨어진다. 가작으로 밀린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남은 <아버지의 자전거>는 소품이지만 앞에 언급된 단점들을 모두 극복했다. 시적 사유가 돋보이는 문체로 일상이 감추고 있는 의미와 존재의 형식을 온전하게 그려냈다. 아름답다.

심사위원 : 임헌영(문학평론가), 김형수(문학평론가),
이명랑(소설가, 예심), 노정숙(수필가, 예심)

당 선 소 감

■ 당선 - 장미숙

흐린 날씨가 계속되더니 눈도, 비도 아닌 진눈깨비가 아침부터 도시의 풍경을 자욱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당선소식을 전해들은 어제는 종일 얼떨떨한 기분으로 보냈는데 막상 소감을 적으려고 하니 “두렵다”는 생각이 문득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제 가슴속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웅크리고 있었던 겁니다. 환영처럼 세상이 너무 커 보여서 어디론가 숨고만 싶었던 어린 시절, 아버지의 든든한 등을 가지지 못해 희망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못난 생각이 아직도 절 바보로 만들곤 합니다.

멋모르고 글을 써왔습니다. 읽고, 쓰고, 웃고, 울고, 좌절하고, 고뇌하고, 번민하다보니 어느새 글을 읽는 즐거움과 쓰는 즐거움을 조금은 알게 되었네요. 머리 속에서만 반짝거리던 생각이 글이 되지 못하고 흩어져버릴 때 가슴 졸였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만은 않았던 것일까요. 이제 잃어버렸던 희망한줄기 간신히 찾았으니 조심스레 꿈의 씨앗하나 마음의 텃밭에 심어보려 합니다.

이십여 년의 세월을 빈 허공만 휘저으며 살아온 것 같다는 생각으로 괴로워했던 게 불혹을 맞이한 때였습니다. ‘나도 뭔가 할 수 있을까, 뭔가 할 수 있을 것도 같다, 아니 뭔가 꼭 해야만 한다’는 열망으로 두통에 시달리며 얻어낸 결론은 배움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학교를 마지막으로 지식에서 소외되었던 오랜 세월 동안 도저히 채울 수 없었던 허전함이 무언지를 깨닫게 되면서 뒤늦게 대학공부를 하는 재미도 알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을 꿈꾸게 하는 무한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게 꿈의 씨앗을 품게 해주신 서울디지털대학교 사이버문학상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 가작 - 안성진

개인적으로 작가는 추상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글이라는 붓 혹은 조각칼로 형상화 하는 예술가라 생각한다. 직접적인 시각과 청각을 사용하는 다른 예술가들과는 달리 작가는 간접적인 감각들을 이용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마치 보일 듯이, 아니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고, 맛보게 해주어야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수필을 쓰며 글의 또 다른 부면을 알게 되었다. 작가가 죽은 생선, 아니 없는 생선이라도 마치 바다에서 그리고 바로 옆에서 펄떡거리듯 쓸 수 있어야 했다면 수필작가는 곁에서 살아있는 생선이라 하더라도 천박하게 과장되지 않은 어투로, 생선 너머의 그 이면까지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양쪽 모두에서 아직 미숙하게 절뚝거리는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심에 정말로 감사드리며 좀 더 예리하면서도 다양한 장르의 조각칼을 지닌 작가가 되기를 꿈꿔본다.

마지막으로 나를 세상에서 유일하게 ‘안작가’ 라 부르고 다녔던 내 친구와 수고하는 나의 여러 동기들, 그리고 항상 마음으로 걱정해주시고 믿어주시는 어머니와 누나, 특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SDU 디지털 문학 • 제4호 • 2010

발행인 오봉옥

편집장 성연호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60

TEL. (02)2128-3097

<http://writing.sdu.ac.kr>

인쇄 2010년 2월

발행 2010년 2월

제작 삼호인쇄

주소 서울 서초 양재 275-1

전화 02-589-0072

